

‘가능성을 담다’

지속발전 가능한 문화원 만들기

액션 토크

2019.12.10.

남양주 서경청소년수련원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가능성을 담다’

지속발전 가능한 문화원 만들기

액션 토크

‘가능성을 담다’

지속발전 가능한 문화원 만들기

액션 토크

발행일 2019년 12월 31일

발행인 염상덕

기획 최영주, 박현미

발행처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 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6층

전화 031-239-1020

팩스 031-239-3785

이메일 kccf-kg21@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kccfgg.org/>

발행처 다랑어스토리

ISBN 979-11-89046-11-8

※ 이 책은 '2019년 경기도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비매품)

‘가능성을 담다’

지속발전 가능한 문화원 만들기

액션 토크

2019.12.10.

남양주 서정청소년수련원

목 차

I. 권두언	7
II. 프롤로그	9
III. 사업개요	19
IV. 내용	
제1섹션	27
제2섹션	53
제3섹션	87
제4섹션	123
종합토론	153
부록	173

권두언

경기도 지방문화원의 연대와 협력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염 상 덕

〈경기도문화가족합동연수〉는 경기도 시군문화원 임직원 및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나누고, 각 문화원의 현실과 사정을 감안한 장, 단점들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특히 지역문화진흥 5개년 계획이 수립되고, 문화정책 흐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제 지역문화 패러다임은 문화향유를 넘어 ‘문화주체’, ‘문화자치’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연대와 협력을 통한 지역문화 거버넌스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의 중심을 외치기 위해서는 그 변화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경기도문화가족합동연수와 함께 〈지속발전가능한 문화원 만들기 액션 토크〉라는 이름의 포럼을 추진했습니다.

이 포럼이 경기도 31개 시,군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의 중심에 우뚝 서기 위한 실질적 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향후 연대와 협력의 물꼬를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림책

지속발전가능한문화원만들기 〈액선토크〉를 추진하기까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최영주

1. 서: 무엇을 하려했는가?

문화원은 근대적 문화지평을 넘어 이제는 현대적 문화지평에 발을 딛고 서야한다는 절박한 고민 위에 있다.

또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대안 문화를 고민해야 하는 지점에서 있다.

수없이 많은 용어들과 개념들이 생산되고 시기와 장소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 무수한 사례들이 있다. 새로운 개념과 용어가 생산되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지역마다,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다양하고 지향하는 가치가 다양해짐에 따라 그 만큼의 그릇이 필요하다는 뜻일 것이다.

시대를 읽어내야 한다.

이제는 동일한 문화적 잣대를 가지고 해석하고, 어떤 형태의 문화가 ‘올바른 문화(?)’임을 강조하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과 맞지 않다. 이미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고 있고, 저마다의 가치와 지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해야 하며,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안에서 탄생되는 다양한 형태의 관계의 연결고리를 확장하고 다시 엮는 것이 새로

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가 결합하여 문화원 활성화, 문화원 발전방향에 대한 조언과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 보고서는 보고서로써 책장에 얹전하게 꽂혀 있고, 참고서적이었을 뿐 실제로 합의하고 함께 연구해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구체적 실천으로까지 연결되지 못했다. 수많은 이유를 들 수 있고, 그 이유마다 타당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문화원 활성화, 문화원 발전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논의만 있다. 서로 고민과 문제를 공유하는 기회만 많았다.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서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지방문화원이 개별 독립법인이라는 이름으로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알아서 활성화하거나 발전을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을까?

앞서 말했듯이 연합회 차원에서 연구하고 확정된 보고서가 왜 구체적 실천으로 연결되지 못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의 결과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그것이 전국 229개 문화원의 합의에 기초한 산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문가가 결합하여 시대 흐름을 반영한 비전과 목표 설정이 되었으나, 정식으로 보고서로 상정되어 채택되는 과정이 없었다는 점이다.

둘째, 실제로 지방문화원의 현실적 여건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발전방향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연합회 차원의 발전방안이 정식으로 채택되는 과정과 맞물려 각 지방문화원 나름의 중장기 발전방향이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사 체장이 바뀌거나, 원장, 국장이 바뀌면서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 및 운영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는 항상 절곡으로 작용하는 부분이었다.

그것은 결국 조직의 불안정으로 연결된다. 이 상황을 극복하고 문화원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까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적 비전이 개별문화원마다 달라야 한다는 점에 대한 고민이 녹아있지 않은 듯하다.

셋째, 연합회가 되었건 지회가 되었건 문화원의 발전방향에 대해 공론화하고, 함께 해

결하고자 하는 구체적 방법, 실행차원의 노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II. 어떻게 하려 하는가?

이러한 문제제기 위에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다음과 같은 방향을 세웠다.

광역단위 시·도문화원연합회 차원의 중, 장기 발전방향 수립이다. 그래서 16개 시·도 지회 차원의 중, 장기 발전방향이 수립되면 그것들이 모여 현실적이고 합의된 방향이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그리고 몇 가지 원칙을 세우게 되었다.

첫 번째, 현재 지방문화원의 현황을 정량적 평가 차원을 넘어선 정성적 평가를 겸한 밀도 있는 수요, 요구 조사활동 전개.

즉, 현재 지방문화원에서 겪고 있는 조직, 법제, 사업추진과정, 직원처우, 시민과의 관계맺음, 당면한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그것을 기초자료로 하여 발전방향을 세운다는 원칙이다.

두 번째, 현재 지방문화원이 시행하고 있는 각 사업의 심층 분석, 평가 작업 시행.

즉, 지방문화원 사업이 현재 시대적, 문화적 흐름의 어느 지점에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이다. 그것도 어느 특성화된 하나의 사업이 아닌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방향 도출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실질적 개선이 가능하도록 컨설팅 과정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전문가만으로 구성된 연구진을 꾸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무국장 중심의 논의구조 형성.

즉, 앞서 제기한 지방문화원 수요, 요구조사를 통해 각 부문별 의제(Agenda)를 도출, 최종적으로 문화원장과 함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결정하는 최종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아래로부터 만들어진 단기, 중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할 수 있게 하지는 것이다.

네 번째, 사업 시행 도중, 각 문화원 임직원에게 실행과정을 홍보, 공유하는 과정을 전개.

즉, 임직원 교육과정을 개설, 현재 무엇을 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 공유하는 과정이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는 2015년〈경기도문화가족합동연수in여주〉를 계기로 차년도 지방문화원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한 아젠다를 채택 및 선언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나, 정교하고 세밀한 합의과정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 결과 도출까지 이르지 못했다. 지속적으로 ‘합동연수’라는 구조를 통해 지방문화원 아젠다 채택 및 선언 꼭지를 마련해 추진해오다가 5년이 지난 2019년 〈경기도문화가족합동연수in남양주〉를 통해 비로소 아젠다(의제) 도출을 위한 실질적 포럼 〈지속발전가능한문화원만들기‘액선토크’〉가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짧은 시간에 지방문화원에 산적한 모든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었으나, 향후 체계적 합의구조 마련을 위한 단초가 마련되었다는 자평을 해 본다.

그러나 이것으로 완성된 시스템으로 보기는 어렵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정들에 대한 설계는 고스란히 남아있다.

실질적인 지속발전가능한문화원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2020년부터 다음과 같은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우선,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업의 전면적인 개편이다.

그동안 서로 독립적으로 시행되던 사업을 하나로 카테고리화하는 작업과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각 지방문화원과의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상정하게 된다.

1. 지방문화원간 긴밀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너지의 극대화
2. 소통의 구심체로서의 역할
3. 경기도 차원의 문화정책과 각 시, 군 문화정책과의 접점 만들기.

둘째, 경기도 31개 시, 군 지방문화원의 구체적인 현황파악.

셋째,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단독사업의 최소화, 도문화원연합회-지방문화원 간 협력사업의 확대.

경기도문화원연합회를 새롭게 하기 위한 세 가지 방향에 의거, 모든 사업의 목표, 추진방향, 구체적 추진계획 등을 재배치하게 된다.

1) 사전준비단계

이 TF팀을 만드는데 있어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차원에서 고민한 내용을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Question

- ▶ TF팀이 왜 필요한가?
- ▶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일인가?
- ▶ 시작한다면 단계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움직일 것인가?
- ▶ 시작하기에 앞서 추진 가능하게 하는 제반 여건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
- ▶ 공식기구화 추진이 가능할까?
- ▶ 역할과 권한 부여를 위한 제반 여건 마련을 위한 방법은?
- ▶ 현실적으로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은 있는가?
- ▶ 실무적 과제 (자료집적, 정리, 분류, 분석)를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2) TF 구성과 추진 방향

중요한 것은, 애초에 목적하는 바와 같이 경기도 문화원의 중, 장기적 발전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Top-Down 방식이 아니 Bottom-Up 방식의 추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적절한 불협과 함께,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제반 조건의 구비가 필요했다. 그것을 위해 두 가지의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1. 중, 장기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TF팀 가동과 함께 제반 여건 마련을 위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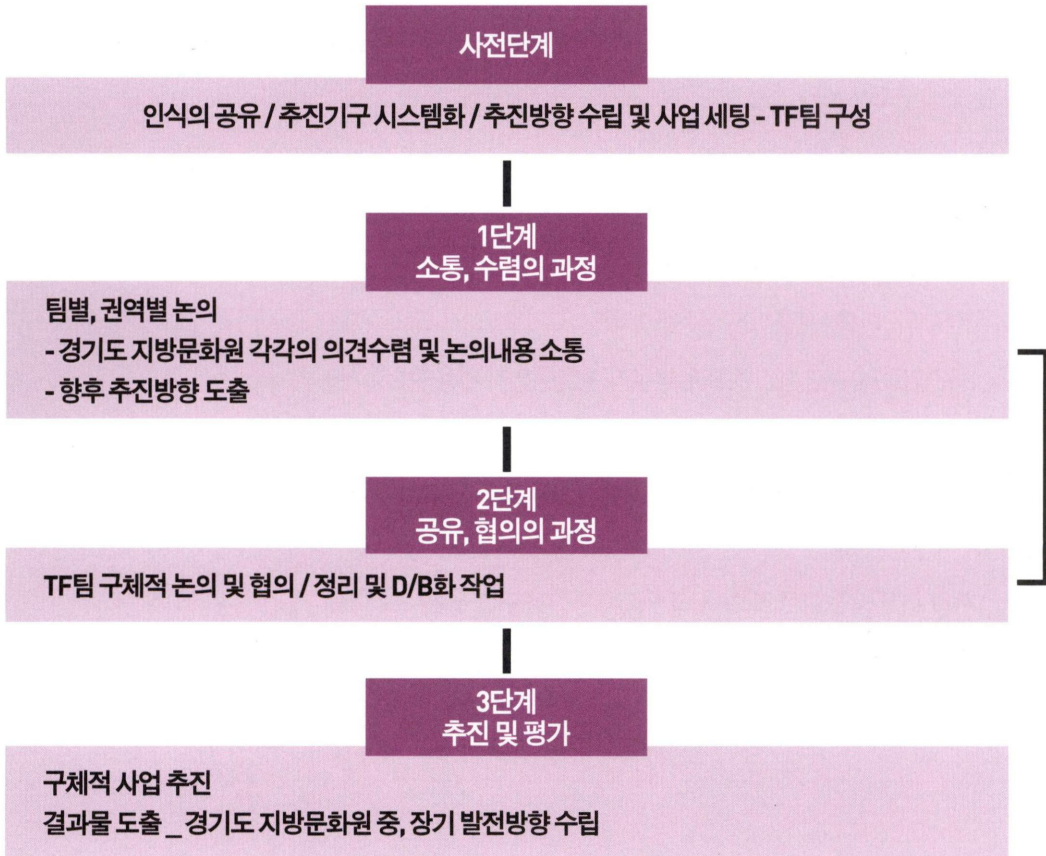
- 1) 실태, 요구조사 사업 가동
- 2) 경기도 문화원 사업분석
- 3) 문화원 직원을 위한 문화예술경영 및 실무교육마스터플랜 개발
- 4) 기초자료 D/B화 집적을 통한 향후 발전 가능성 모색
 - 현재 인프라를 활용한 OS 활용방안 마련
 - (공간인프라, 시민자원인프라, 부설기관 및 동아리 활용 등)

2. TF팀 구성을 두 단계로 나누어 구성. 구체적 목표를 다시 설정한다.

- 1) 1차 TF팀의 역할
 - * 사업 추진 방향 설정 및 실태, 요구조사 추진을 위한 구성
- 2) 실태, 요구조사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2차 TF팀 재구성

위의 고민에 의거, 다음과 같은 진행프로세스를 작성하게 된다.

표 TF팀 운영 알고리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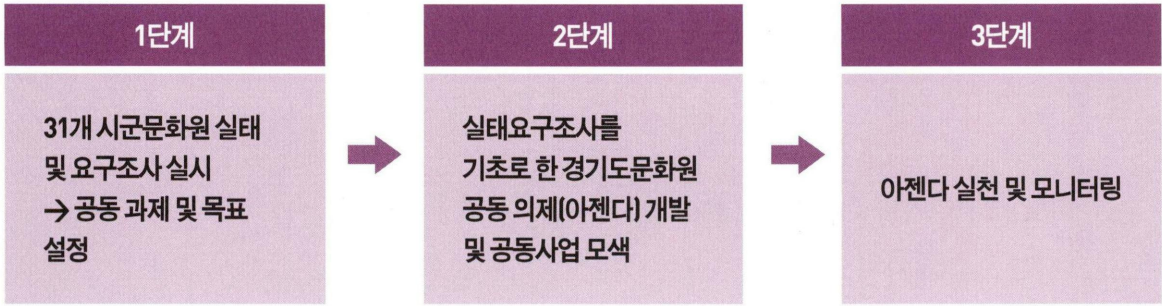
위의 흐름도에 의거 2020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3) TF팀의 역할에 대한 논의

역할 1. 경기도 문화원 발전방향 수립의 핵심그룹

-경기도 문화원 발전방향을 위한 정책연구 사업의 핵심그룹으로 '경기도 문화원 실태 및 요구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경기도 문화원의 중장기 발전방향 및 의제(아젠다) 개발, 제시

〈경기도 문화원 중장기 발전방향 과정(안)〉



역할 2. 31개 시, 군문화원의 소통 통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31개 시, 군문화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연결고리

역할 3.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업방향 및 실무진행 관련 자문

-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 관련 실무진행에 대한 자문
 - ex) 정책토론회, 문화원형 심포지엄, 민속예술제, 합동연수 등등
- 위의 과정을 통해 향후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지방문화원이 추진해야 할 미션과 비전 수립을 위한 키워드와 슬로건이 설정될 것이다.

그리고 직원연수, 사무국장연수, 분야별 TF회의, 권역별 TF회의, 국장직원협의회, 각종 워크숍, 연수 등을 통해 수집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 드디어 2021년 경기도지방문화원차원의 중장기발전방안이 수립되기를 희망한다.

문화원은 지난 50년 동안 해방공간과 더불어 지역의 문화적 구심체 역할을 했다고 자부해 왔다. 문화원장은 지역의 가장 덕망 있고 존경받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자리였다. 시대가 변해가고 또 이미 많이 변했다. 휘몰아치는 논리의 홍수 속에서 문화원은 어떤 논리와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를 깊이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토

론을 통해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여러 차례 마련될 것이고, 보다 더 진지하게 현재를 성찰하고 반성하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근본적인 고민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 고민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첫째, 지역문화의 거점으로서 문화원의 자기 위상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렇다면 문화원이 지역문화의 거점인가 하는 고민과 문화원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의 두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고민되어야 하는 질문이다.

둘째, 문화원이 현재의 시대적 흐름에 걸맞은 문화 사업을 개발, 시행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시대적 흐름은 어떠하며 그 흐름에 적합한 지표는 개발되어 있으며 그 지표에 따른 각 지방문화원마다의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복합적인 의미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문화원이 현재의 시대정신을 담보하는 문화담론을 생산하고 있는가?

문화원은 지역의 문화정책을 생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넷째, 문화원이 그 대안 문화를 고민하고 있는가?

가치와 지향의 문제이다. 목표설정의 문제이며 비전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다. 문화원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무엇을 지향하며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고민의 흔적이다.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이 아닌, 어느 하나의 길만을 합의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문화원 마다 저마다 특색을 가지고 있고, 그 특색들이 모여 다채로운 문화의 빛깔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다.

문화원이 발전한다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돌맹이 하나,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역사적 맥락에서 새롭게 의미 지어지고 새로운 가치로 재탄생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핵심은 지방문화원이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원이 연합회에서 해야 할 일이다. 중심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사업개요

I 개요

지속발전가능한문화원만들기 액션토크(Action Talk)는 ...

- 전국 230개 지역의 광범위하고 강력한 네트워크 조직인 지방문화원의 현안과 문화정책과 방향에 논의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 원론과 의미중심 보다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실천 아젠다를 도출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

□ 사업목적

- 한문연-도연합회-지방문화원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속적 담론구조 마련
- Bottom-up방식의 논의구조를 정착시켜 실질적 실행단위의 동기부여 강화
- 구체적 아젠다를 설정, 향후 실천이 담보된 포럼으로 조직

□ 사업개요

- 일 시 : 2019년 12월 10일(화) 13:00~18:00
- 장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서경청소년수련원 일원
- 대 상 : 전국 230개 지방문화원 네트워크, 경기도 문화가족
- 주 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공동주관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남양주문화원
- 후 원 : 경기도, 경기도의회, 한국문화원연합회, 남양주시, 남양주시의회

□ 추진방향

- 총 4개의 섹션으로 분리, 각 섹션마다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추진
- 각 세션별 참가 신청하여 적절히 인원 안배를 하고, 토론의 질을 높여 실질적 결론을 도출하도록 함
- 좌장-패널-토론자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닌 원탁회의 형식
- 문화원 관계자 뿐 아니라 타 지역, 타 기관 패널 적극적으로 섭외

□ 기대효과

- 경기도 문화정책의 현황 공유 및 상생의 방향 모색
- 경기도와 지방문화원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지방문화원 발전방향 공유 및 현실적 대안 마련

II 섹션구성

□ 프로그램

구분		내용	비고		
주제 강의	※ 본 기초발제를 통해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방문화원간, 유관기관과의 협력 구조 구축을 위한 개념정리와 객관적, 합리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현재 정부차원의 정책기조에 대해 소개하고, 현재 문화정책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에 지방문화원이 어떤 방식으로 실천적으로 결합, 함께 해야 할지에 대한 제안을 들어보고자 함				
	일시	2019. 12. 10 (화) 13:00~14:00 (60분)			
	장소	남양주시 서경청소년수련원 대강당			
	주제	지역문화협력과 거버넌스			
	강의	차재근 지역협력위원장 (현_포항문화재단 대표이사)			
	대상	참가자 전원			
제 1 섹 션	본 섹션은 경기도민속예술진흥을 위한 제반사항을 토론하여 향후 경기도민속예술 발전을 위한 지원구조방안 모색 및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한 실천방안 마련의 장.				
	• 참가대상 : 경기도 31개 시, 군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단체(보존회 등) 지도위원, 고증자, 관계자 등 약 60 여명 • 추진방향 : 본 포럼을 통해 나온 결과를 향후(2020년~) 민속예술제 운영지침으로 만들 고자 함				
	일시	2019. 12. 10 (화) 14:00~16:20			
	장소	남양주시 서경청소년수련원 제1강의실			
	주제	〈액션토크 1〉경기도민속예술 이대로 좋은가?			
	시간 배정	시간	발표자	내용	
		14:00~	좌장	개회 및 취지 (좌장:김은호 평택문화원장)	
		14:20~16:00 (100분)		1. 제1주제 :김장환 용인문화원 사무국장 경연형식을 중점적으로 향후 경기도민속예술제를 위한 실천적 대안 제안 3. 제2주제 : 임웅수 광명농악보존회 대표 (2019 경기도민속예술제 대상수상팀 대표) 경기도 민속예술(무형문화재)의 현황과 발전을 위한 제안	
		16:00~16:20	종합토론 (플로어 토론)		

구분	내용	비고														
제 2 섹션	본 섹션은 지역에서 자리 잡고자 하는 청년과 문화원의 지향점에 대해 논의한다. 문화원은 지금까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 없었다. 문화원이 청년을 만났을 때 하고 싶은 일과 청년이 문화원에 바라는 점들을 이야기한다. 오고가는 논의 속에서 청년과 문화원이 만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시너지와 지역의 모습을 마음껏 상상해 보고자 함. • 참가대상 1. 청년마을상점, 동네한바퀴 참여자 및 사업담당자 약 30명 2. 경기도 31개 시, 군문화원 임직원 및 문화가족															
	일시 2019. 12. 10 (화) 14:00~16:20															
	장소 남양주시 서경청소년수련원 제2강의실															
	주제 지역문화원은 지역청년과 손잡을 수 있을까?															
	<table> <tr> <th data-bbox="211 841 323 887">시간</th><th data-bbox="323 841 475 887">발표자</th><th data-bbox="475 841 1097 887">내용</th></tr> <tr> <td data-bbox="211 887 323 961">14:00~14:20 (20분)</td><td data-bbox="323 887 475 961">좌장</td><td data-bbox="475 887 1097 961">개회 및 취지(신희영 문화집합36.5 이사_문화기획자</td></tr> <tr> <td data-bbox="211 961 323 1330" rowspan="4">시간 배정 14:20~16:20 (120분)</td><td colspan="2" data-bbox="323 961 475 1054">1. 제1주제 : 최지호 동두천시청 문화체육담당주무관 청년들은 문화원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동두천 사례를 중심으로</td></tr> <tr> <td colspan="2" data-bbox="323 1054 475 1129">2. 제2주제 : 박도빈 동네형들 대표 지역청년들의 일상과 자립</td></tr> <tr> <td colspan="2" data-bbox="323 1129 475 1203">3. 제3주제 : 남진우 컬처임팩트 대표 청년기획자, 지방문화원의 새로운 바람이 되다</td></tr> <tr> <td colspan="2" data-bbox="323 1203 475 1330">4. 종합토론 토론자: 임민아 커뮤니티플랫폼 이유/ 서교송 파주문화원 사무국장</td></tr> </table>	시간	발표자	내용	14:00~14:20 (20분)	좌장	개회 및 취지(신희영 문화집합36.5 이사_문화기획자	시간 배정 14:20~16:20 (120분)	1. 제1주제 : 최지호 동두천시청 문화체육담당주무관 청년들은 문화원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동두천 사례를 중심으로		2. 제2주제 : 박도빈 동네형들 대표 지역청년들의 일상과 자립		3. 제3주제 : 남진우 컬처임팩트 대표 청년기획자, 지방문화원의 새로운 바람이 되다		4. 종합토론 토론자: 임민아 커뮤니티플랫폼 이유/ 서교송 파주문화원 사무국장	
시간	발표자	내용														
14:00~14:20 (20분)	좌장	개회 및 취지(신희영 문화집합36.5 이사_문화기획자														
시간 배정 14:20~16:20 (120분)	1. 제1주제 : 최지호 동두천시청 문화체육담당주무관 청년들은 문화원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동두천 사례를 중심으로															
	2. 제2주제 : 박도빈 동네형들 대표 지역청년들의 일상과 자립															
	3. 제3주제 : 남진우 컬처임팩트 대표 청년기획자, 지방문화원의 새로운 바람이 되다															
	4. 종합토론 토론자: 임민아 커뮤니티플랫폼 이유/ 서교송 파주문화원 사무국장															

구분	내용	비고
----	----	----

본 섹션에서는 베이비 붐 세대가 대거 노인인구에 편입되면서 나타난 ‘신중년’세대를 위한 문화 사업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노인복지관에는 가고 싶지 않은, 그러나 청년들 틈에 끼일 수도 없는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신중년 세대를 위한 문화공간은 어디인가. 지방문화원에서는 신중년 세대의 지역 내 주체적 문화활동을 위해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가. 현재 지방문화원 대표프로그램인 어르신문화사업에 대한 비판적 검토도 아울러 토론하고자 함

• 참가대상

1. 마을큐레이터, 생활문화(문화학교 포함) 참여자 및 담당자 약 40명
2. 경기도 31개 시, 군문화원 임직원 및 문화가족

일시	2019. 12. 10 (화) 14:00~16:20		
장소	남양주시 서경청소년수련원 제3강의실		
주제	어르신문화사업과 신중년, 그리고 지방문화원		
시간 배정	시간	발표자	내용
	14:00~14:20 (20분)	좌장	개회 및 취지 (좌장 : 박정근 의정부문화원 사무국장)
	14:20~16:20 (120분)	1. 제1주제 : 김재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본부장 노인 문화예술교육 사업 추진방향 및 지방문화원 협력 가능성 2. 제2주제 : 송은옥 한국문화원연합회 차장 어르신문화프로그램과 신중년, 그리고 지방문화원 3. 종합토론 토론자: 오민영 평택문화원 사무국장	

제 3
섹
션

지속발전가능한 문화원 만들기 액션토크

Action
talk

일시 2019년 12월 10일(화) 11시~18시

장소 경기도 남양주시 서경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

* 프로그램 내용은 추진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	주제	발표자
11:00~12:00	제21회 경기도문화가축합동연수 및 지방문화원 어워드 시상식	
13:00~14:00	• 주제강연 지역문화협력과 거버넌스	차재근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위원장
	제1섹션 경기도민속예술 이대로 좋은가?	
	- 경기도 민속예술 발전을 위한 실천적 대안 모색 - 경기도 민속예술(무형문화)의 현황과 발전을 위한 제언	김정환 용인문화원 사무국장 임용수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이사장
	제2섹션 지역문화원은 청년과 손잡을 수 있을까	
	- 지역문화원은 청년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무엇을 지향하는가 - 청년은 문화기관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무엇을 지향하는가 - 청년은 지방문화원과 협력하여 어떤 지역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	최지호 동두천시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주무관 박도빈 동네함들 대표 남진우 협치임팩트 대표
14:00~16:20	제3섹션 어르신문화사업과 신년, 그리고 지방문화원	
	- 진흥원 차원의 어르신문화예술교육사업 추진방향 및 지방문화원과의 협력가능성 - 한국문화원연합회 차원의 어르신문화사업 추진방향과 비판적 대안	김재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본부장 송은옥 한국문화원연합회 차장
	제4섹션 지방문화원의 현재 분석을 통한 미래비전 모색	
	- 지역분권과 문화자치, 지방문화원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지역소멸과 지역정체성, 지방문화원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문화향유를 넘어 문화주체로, 지방문화원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진고필 지역문화진흥원 이사 이동준 이천문화원 사무국장 박성희 인천 미추홀학사문화원 사무국장
	종합토론	진행: 이하준 김포문화원장
16:20~18:00	• 기조발제 지역문화진흥원과 지방문화원 그리고 지역문화진흥 5개년 계획	김영현 지역문화진흥원장
	- 각 색선편 포럼 결과 발표 - 각 색선편 발제자 중심의 토론을 통한 종합적 실천방향 모색	색선편 발제자 및 토론자 전부 참여

참가신청 <http://naver.me/5aFkHUqG>(해당링크에 신청)

신청기간 안내일부터 ~ 12월 6일(금)까지

문의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 031)239-1020

주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공동주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남양주문화원 후원 경기도, 경기도의회, 한국문화원연합회, 남양주시, 남양주시의회

제 1 섹 션

제1섹션

경기도 민속예술제 이대로 좋은가?

경기도 민속예술진흥을 위한 제반사항을 토론하여 향후 경기도 민속예술 발전을 위한
지원구로 방안 모색 및 민속예술제를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한 실천 방안 마련의 장.

좌장 : 김은호(평택문화원장)

• 취지

경기도 민속예술제 이대로 좋은가에 대한 내용으로 토론의 장을 열었습니다. 경기도 민속예술제는 향토문화의 뿌리를 가다듬고 점차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의 발굴과 전승, 보존을 위해서 1982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22회를 맞이하는 경기도 대표 민속예술제로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는 1990년도부터 개최하였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문화원과 각 지역의 민속예술 보존회와 함께 그 지역의 민속예술을 널리 알리고 보존 전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경연을 통해 전국대회인 한국민속예술제의 출전할 경기도 대표를 선발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였고 이제는 민속예술이 그 전의 명성만큼의 역할을 못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민속예술제도 많이 위축되었고, 이와 더불어 지역에서도 점차 민속예술의 보존이 어려워지는 실정에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통 민속예술을 꽃피우기위해 전승과 발굴에 매진하는 각 지역의 보존회 여러분과 주민, 또는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 1섹션 주제는 20여 년 동안 진행된 경기도 민속예술의 지난날의 반성과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불거졌던 논쟁들을 정리하고 개선 및

진행, 발전 시켜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민속예술제를 진행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구조적문제를 비롯하여 경연형식에 있어서도 논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지역의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하나 주요 논점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실 두 분의 발제자가 준비하고 계십니다. 순서는 두 분의 발제를 먼저 진행한 후 토론자와 발제자의 질의응답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 객석과 함께 질의응답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주제

향후 경기도 민속예술제를 위한 실천적 대안 모색

-경연형식을 중심으로

김장환(용인문화원 사무국장)

경기도 민속예술제에 대한 발전을 위해 실천적 대안 모색이란 주제에 대해, 제가 발제한 내용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 좀 해보시죠.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역사라는 것은 항상 지속되면서 변화를 동반합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 축적되어 온 문화유산을 가리켜서 우린 보통 전통이라고 부릅니다.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요소의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미래를 추진하는 원동력으로써 기능합니다. 전통이 갖고 있는 근원적 힘은 굉장히 큼니다. 그러한 전통문화 속에 풍부하게 융해 되어 있는 것이 민속입니다. 민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의 하나의 상징을 얘기한다면 민속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자체가 공동체문화 속에서 이뤄졌거든요. 공동체적 삶의 원리와 실천으로서 기능을 해오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공동체에게 응집력과 정신적 일체감을 준다는 측면에서 민속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민속이 거의 사라지거나 사라져 가고 있죠.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활과 함께 해왔던, 역사 속에서 함께 해왔던 것들이,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민속지나 향토지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원인은 근원적으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1905년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일제가 우리문화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탄압과정에서 우리의 민속적인 다양한 요소들이 철저하게 탄압을 받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일본에 의해서, 일본사람들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변형이 되기도 했고요.

그렇게 40여 년 동안 탄압을 받다가 해방 후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또 다른 탄압이 이뤄지게 됩니다. 근대에 와서는 우리 스스로가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근대화라는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일어난 미신 타파입니다. 마을단위로 이루어졌던 마을 동제라든가, 여러 가지 의례 같은 것들이 미신 타파한다고 전부 다 철저하게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의 전통적인 요소들이 그때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70년대 이후에 와서는 도시화, 산업화가 이뤄지게 됩니다. 그렇게 도시화, 산업화가 이뤄지게 되면서 농촌인구가 감소하게 돼요. 그 영향으로 민속이 사라지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계화입니다. 농촌의 기계화가 진행되면서 과거에는 노동집약적인 행위들이 이제는 기계가 대체하다 보니까 노동을 통해서 이뤄지던 모든 민속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의 정체성이었던 과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뼈아픈 과거의 형상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정신과 얼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것을 복원 시켜야 겠다라는 의식에서 발굴사업을 시작했고, 1958년부터 장충체육관에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시작한 것이 효시였습니다. 그때는 축제형태로 시작됐는데 그것이 2년 뒤에 60년대부터 경연대회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 또 그것이 상당한 호응을 일으켰습니다. 지금까지 사라졌던 우리의 민속이 이제는 살아나고 있구나 하는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이 대회를 출전하기 위해서는 전국 경연대회를 하려면 지방에서 예선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제1회 남도문화제라고 하는 타이틀로 전라남도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1966년도입니다. 그때부터 지역의 민속예술 경연대회가 시작이 됐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982년도에 경기도지사기쟁탈 경기 민속예술경연대회라고 하

는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연대회를 축제화 시키자, 축제성을 살리자 해서 한국민속예술축제라고 하는 전국 행사로, 경기도에서도 경기민속예술제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진행, 운영을 하다가 2002년도에 와서 청소년부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홀수년도에는 일반부, 짝수년도에는 청소년부를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금년도까지 일반부는 22회, 청소년부는 12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민속예술제에 대한 간단한 평가를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립니다.

긍정적 평가는 사라져가는 민속고유의 민속예술을 발굴하고 보존하고 전승하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민족 문화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라는 의미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전국에서 이뤄지는 민속예술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역마다 요소요소에서 벌어졌던 민속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 부정적 측면은 경기민속예술제가 경연대회로 치러지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입상이잖아요. 입상을 하려고 하다보니 원래 민속의 원형이 왜곡되는 현상(Fake lore)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수상하겠다는 지나친 경쟁의식으로 인해서 진정한 의미의 축제가 되지 못했다. 경쟁이 뜨겁다 보니 축제성이 사라졌다는 한계가 드러났다는 점이 있고요. 민속이라는 것은 민중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민중이 주체가 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

1. 민속 경연대회로서의 한계

민속이라는 것은 사회적, 문화적 환경 속에서 형성되고 전승되는 것이 민속의 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과정으로 만들어졌 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사실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경연대회의 장으로 나오다보니 본질이 왜곡되는 문제점이 생겨나는 거죠. 민속이라고 하는 것을 문화상대주의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문화상대주의는 예를 들어 우리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만 아프리카 부족 같은 경우에는 야자수 같은 걸로 지은 집에서 산다든가, 아니면 토굴에서 산다든가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불편할 수 있지

만 그들은 아파트에서 못 삽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지어줬는데 다 도망가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살아온 환경 속에서의 문화가 그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좋은 문화, 나쁜 문화가 없습니다. 민속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에서 파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민속, 나쁜 민속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속에서 우열을 가린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속예술이라고 표현을 하다보니 민속예술이 갖고 있는 한계성을 생각해봅시다. 민속에는 의례, 굿, 거북놀이, 지신밟기, 지경다지기, 고싸움, 줄다리기 등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전부다 예술이예요. 농사짓는 것들도 예술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2. 민속자료 발굴의 문제

민속예술제 자체는 사라진 민속예술을 발굴하고 보존하고 전승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민속예술을 발굴한다고 할 때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보통 고고학자들이 지표 밑에 있는, 땅속에서 유물을 꺼내는, 또는 무덤을 파내서 유물을 꺼냅니다. 그것은 하드웨어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형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민속이라고 하는 것은 유물하고는 달라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라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굴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입장을 해야 하다보니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만들어서 내세운다든가, 또 있는 자료가 너무 미비해서 경쟁력이 없어. 그 자료를 변형시켜 대회에 나와서 입상하려고 하는 현상이 팽배하다 보니 민속자료 발굴에 대한 한계성과 문제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왜곡되고 변형된 민속이 실질적으로 큰 상을 받아서 그 고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그것이 거기서 고착화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변형되고 왜곡된 민속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고착화되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사실 고고학적 입장에서 보면 땅속에 묻혀있던 유물들이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완벽하게 보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 꺼내 놓으면 훼손된다고 봅니다. 민속예술도 훼손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점이 있습니다.

3. 자료의 보존과 전승의 문제

보존, 전승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원래는 민속도 현장에 있는 그대로, 거기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서 그것을 재현하고 계승하고 전승하는 것 자체가 가장 완

벽한 보존, 전승이거든요. 생태학적인 측면에 입각해서 전승해야 한다. 경연대회를 해야하다보니 원형을 왜곡해서 변형시키고 무대예술이 아닌데 사람들에게 보여주다 보니 무대예술화 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변형된 한계성. 30분으로 제한되다 보니 시간을 압축하고 줄이는 연출이 가해지고 각색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보존의 원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민속이 완벽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4. 경연 공간의 문제

민속은 현장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원래 민속이 이뤄졌던 현장에서 재현되는 것이 가장 완벽한데 이것이 현장을 떠나서 경연대회장으로 나오는 것이 왜곡의 시작입니다. 우리 민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대가 없어요. 대부분 마당놀이 개념이거든요. 마당에서 놀이를 하는 사람과 그것을 바라보는 관객들이 서로가 유기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이것이 이뤄지거든요.

그런데 경연대회에서는 분명히 연희하는 사람들, 구경꾼들이 분리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함께하지 못하게 되죠. 더군다나 민속예술제에서는 통제선이 있어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관객들하고 교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감 부제의 문제가 있죠. 경연 공간의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 심사의 합리성 문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심사의 문제입니다. 심사가 과연 합리적으로 이뤄지는가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해봐야 합니다. 심사라고 하는 것은 심사의 기준과 경향이 있습니다. 심사의 기준과 경향에 따라서 민속예술제에 참여하는 작품의 성격이 바뀝니다. 많이 경험하셨죠. 어떻게 심사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심사의 흐름이 어떠냐에 따라서 연출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현장이 왜곡되다 보니 경연대회가 진정으로 민속예술의 발굴과 보존, 전승의 목적에 적절하게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더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일반적 관점에서 볼 때 심사위원의 지역적 연고라든가 그런 것들이 개입될 수 있어요. 심사위원들의 편견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 합리성의 문제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6. 심사위원의 자질 문제

심사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객관화 시키는 과정에서 의미가 담보되는 심사가 이뤄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심사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 작품의 본질이 왜곡되거나 조작되어 있는데도 분별하지 못한다든가, 번지르르하고 그럴듯한 연출에 매혹돼서 점수를 많이 주면 그 심사위원의 자질은 정말 부족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심사위원을 비판적인 부분으로만 보는 건 아니에요. 심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31개 시군이 전부 다른 것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30개 이상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객관적으로 심사를 해야 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더욱 자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심사위원을 어떤 분을 모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일회성 지원제도의 문제

원래는 경기도민속예술제가 민속경연대회였을 때는 시상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입상하는 팀에게는 상금이 얼마씩 지급됐는데 상금이 전승보존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서 전승보존지원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도와 각 시군의 매칭 펀드로 해서 예산이 나오면 그것이 매년 전승지원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는 일회성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당해 연도에 입상을 했으면 10팀을 뽑아서 다음 해에 지원금을 지원하고 끝입니다. 이게 문제죠. 사실은 민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동체문화 속에서 나온 소중한 문화유산이죠. 지금은 공동체가 해체가 됐습니다. 과거와 같은 공동체가 없어졌고요. 공동체형태의 농업과 관련된 사람들의 모임조차 해체가 된 상태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일회성 지원을 해주고 계속 유지해라?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회성 지원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8. 최고상 수상작품의 재출전 문제

경기도민속예술제에서 최고상 1등은 대상이고요, 2등은 최우수상입니다. 그 두 팀은 전국대회를 나가게 됩니다. 결국 대상, 최우수상을 받은 팀들은 같은 레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입상한 팀들이 경기도민속예술제에 또 나와서 입상을 한다? 경기도민속예술제에 근본적인 취지가 뭐죠? 사라져가는 우리 민속을 발굴하고 전승, 보존하는 거잖

아요. 근데 이미 증명이 됐어요. 이것은 훌륭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됐는데 거기에 상을 또 준다? 이걸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9. 무형문화재 지정 작품의 입상 문제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금 이렇게 입상한 작품들이 일반적으로 경기도 지정문화재가 된다는 거 아니냐 31개 시군이 다 그런 제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무형문화재로 지정됩니다. 지정이 되면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문화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전승지원금을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이 해마다 나오거든요. 용인시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매달 100만원씩 나옵니다. 그 100만원을 어디에 쓰냐면 전승교육비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전승하기 위해서 계속 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원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마추어팀들이 발굴하고 작품으로 만들어서 경기도민속예술제에 나왔다 하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팀들과 지금 처음 발굴해서 연습을 시켜서 만든 것은 프로와 아마추어의 게임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작품에 대상을 준다고 한다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도는 그것을 가리지 않아요. 도 지정문화재건 간에, 시군 지정문화재이건 간에 똑같이 참여할 수 있고요, 똑같이 입상할 수 있어요. 이건 잘못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결방안〉

민속예술의 원형을 복원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우선, 경연대회 심사를 이원적으로 하자. 이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경연장에서 심사를 하고 시상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 전에 1차적으로 그 현지에 가서 작품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가지고 현지에 가서, 보통은 민속지나 향토지에 전부 다 기록들이 있습니다. 민속을 연구한 다양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게끔 장르별로, 지역별로 특징이 있거든요. 그것과 대비해 사전조사라든가, 현지 조사 활동을 통해서 현지에 가서 1차 심사를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경연대회장에서 2차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향성이라든가 기본적인 맥락이 다 잡히거든요.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잠깐 30분 보고 심사를 하는 것 보단 훨씬 객관화 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말한다면, 민속예술제를 신청할 때 고증자가 있습니다. 근데 고증자가 이름만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어느 정도의 민속학적인 역량이 있는

사람인지 검증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증자도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요. 고증자가 될 만하다라는 검증을 하고, 고증을 했으면 다양한 측면에서 객관적인 사료조사, 현장실사조사까지 한 후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을 먼저 심사하고 2차로 경연대회 심사를 해야 합니다.

심사위원의 자격요건과 선정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임재희 교수라고 그 분이 쓴 글을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그 분이 주장하는 것이 심사위원의 자질검증을 위해서 다음 4가지 기준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민속학의 학문적 역량이 저서와 논문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있는 학자인가. 두 번째, 민속학자로서 전공 분야가 민속예술이며 민속예술에 관한 독창적 연구 성과를 올리고 있는가. 세 번째, 민속예술 작품을 널리 현지 조사하여 보고하고 체계적인 민속지를 작성한 경험이 풍부한가. 네 번째, 실제로 민속예술 작품을 고증하여 민속예술경연대회에 발표한 경력이 있고 입상 실적이 있어 그 역량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 4가지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이 4가지를 완벽하게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짚어드리자면 이러한 심사위원을 누가 선정하는 것이냐. 저는 여기서 경기도민속예술제 심사위원을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여기서 선정하면 안돼요. 어떻게 선정하는 지에 대해서 의심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객관적인 선정을 담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 연구원이 대표적인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그곳에 위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민속학회라든가 경기문화재단에 경기학 연구센터에 관련된 부서에 의뢰를 할 수 있고요. 또, 대학 민속학팀, 경기도 문화컨텐츠 연구소 같은 그런 곳에다 의뢰를 해서, 어느 특정한 한 곳에만 의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군데에 같이 공동으로 의뢰를 해서 공통적으로 추천된 사람들에게 심사를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입니다.

입상작품지원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제도, 10팀을 선정해서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제도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과거 회기가 아니라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10팀씩 선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위, 2위, 3위까지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매년 지원해주는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전

승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전승이 안돼요. 그렇게 해서 전승되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해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우수팀들에게는 전승지원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대신에 대회에 나와서 입상을 한다고 해도 지원금은 더이상 지원되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 전승지원금을 지원 해주되 영속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단위별로, 3년이나 5년 단위로 재평가 하는 겁니다. 재평가를 해서 계속 지원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물론 기준도 설정해야 하고 방법론에 대해서 심히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맺는 말〉

저는 위낙 용인문화원에서 문화원형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개발하는 부분을 전공을 했습니다. 민속예술제 하면 생각나는 것이 원형성, 예술성,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일단 얼마만큼 원형에 충실 하느냐, 또 상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예술성을 가져야 하는데 두 가지를 가만히 돌이켜 보면 원형성을 보존하려고 하면 예술성이 망가지고 예술성을 지나치게 생각하면 원형성이 망가집니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예요. 그래서 원형성도 살리고 예술성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민속예술제와는 별개로 또 다른 경기도민속예술콘텐츠경연대회 같은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고 지역 로컬과 연계시켜 글로벌시대라고 하는데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세계화시키기 위해서는 콘텐츠 개발을 해야 합니다. 민속예술제에서 원형만 복구하고 발굴하고 전승하는 그런 측면으로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지역의 민속 문화원형을 발굴해서 문화 콘텐츠로 개발해 지역의 독특한 문화산업적인 측면으로 확장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주제

경기도민속예술제 발전을 위한 실천적 대안 모색

- 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임웅수(경기도무형문화재총연합회 이사장)

발제 제안을 듣고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현장에서 40년 넘게 민속과 함께했던 종사자로서 그동안 많은 제안도 하고 때로는 불만도 드리고 답답함을 호소할 때도 있었지만 발제를 막상 한다고 하니 어떤 말을 어떻게 해서 설득할 수 있을까 하는 숙제를 안고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민속예술제를 통해서 입상을 했거나 못했더라도 우수한 민속놀이는 경기도무형문화재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경기도지방문화재로 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정을 받게 되면 경기도에서 전승비를 많지 않지만 지원하고, 지방자치 시, 도에서도 조례를 만들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만큼 지원하는 시군도 현재 8곳이 있습니다. 지원받는 시군은 활성화가 잘 되고 전승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는 87년도부터 발굴, 지정을 시작해서, 기능에 40종목, 예능은 28종목, 현재 68개의 개인, 단체가 지정돼서 전통문화예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2일 전에 부천에서 경기도 무형문화재 축제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돼서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전승하고 있는 단체들은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나름 지역의 전통예술로써 인정을 받고 활동을 하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보태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다고 해도 모닥불 피워놓고 앉아있는 앞에 몇

사람들만 따뜻하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열악한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기도 민속예술제에 31개 시군이 참가 합니다. 민속놀이, 농악, 민속극, 민속춤, 무용까지 5개 종목이 경합을 벌이는데요. 원형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여기서 원형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원형을 말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저는 농악을 하는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마을에 농악대를 많이 봤습니다. 농사지을 때, 명절 때 농악도 봤는데 그때 농악은 10명 이하일 때가 많고 명절 때 모이면 10명이 갓 넘는 분들이 모여서 농악을 치고 소리도 하고 놀았어요. 그런데 경연대회라고 하다 보니까 의상도 화려하고 30명 40명 사람도 많고 깃발도 상당히 화려하게 들고, 그리고 동두천 농악이나 광명 농악이나 평택 농악이나 대동소이한 농악을 갖고 경연을 나옵니다. 여기서 1등, 2등을 가리라고 합니다. 김장환 국장님께서 고증을 말씀하셨는데 누가 고증을 할 수 있습니까? 민속학자가 고증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민속학자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 마을에 오면 어떤 농악을 했는지 그분들이 정답을 갖고 있습니까. 이제 원형을 다시 이야기해야 합니다. 원형의 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회가 4차원, 5차원 발전되고 있습니다. 1차 산업이 농사짓고 흙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먹고 살았다면 2차 산업은 그것을 가공해서 공장을 짓는 일들이 2차 산업이었을 겁니다. 3차 산업이라고 하면 서비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커피들도 호텔에 가면 만 오천 원 받는데 여기에 서비스가 들어가고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당연하게 만 오천 원 내고 이 커피를 마십니다. 이제는 IT, 핸드폰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흔히 불렀던 유행가도 요즘은 노래방에 안 가면 몰라요. 가사를 몰라서.

현재 게임세계에서는 상대를 밀어내거나 눕히거나 해서 승리하지만 우리 민족은 상대를 우리 쪽으로 끌어당겨서 뒷걸음치며 이기는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줄다리기였다 라는 과거형이고요, 이 원형을 찾으려고 노력하되 원형을 회복할 수 있는 길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도 민속예술제가 발전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연대회의 일체감 조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상을 맞춰 입고 또 많은 인원이

대회에 참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들이 이미 우리 가슴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위적인 연출을 지양한다, 그렇게 하지 마라, 있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연출이 있어야 민속놀이를 세상에 내놓고 관람도 하고 즐길 수 있지, 옛날에 어르신들이 하던 방법만 가지고는 작품으로 내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시대에 맞는 연출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민속놀이 심사하는 분들의 방법을 말씀드리면, 지역에 가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경기도연구원, 국립단체연구원 등 많은 학술단체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학술단체의 교수라고 하는 분들이 와서 심사하는 것이 잘못 됐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 문화제가 얼마나 많아요. 판소리, 민속무용, 농악. 무형문화제도 많고 지방문화제도 많은데 이 분들은 전부 배제하고 전문 국악 교수들도 아니고 국문학 교수들이 와서 심사를 하는데, 솔직히 그 분들이 팽과리를 치는데 전라도가락을 치는지 충청도가락을 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리고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지적질도 해요. 물론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지만 현장 종사자로 볼 때는 상당히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어떤 선생님들은 의상 하나 하나에 파스텔 톤까지 얘기하면서 문제를 제기 하시는데, 물론 배울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심사하는 방법 또한 온당치 않다. 그래서 이것은 토론의 시간에 한, 두 시간 이야기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날을 세가면서 막걸리 좀 많이 먹어가면서 토론을 해야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여러분, 민속놀이가 그렇게 화려하거나 대규모였거나 웅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봐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꾸 외면하려고 하거나 눈 가리고 아웅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원금은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적은 돈을 가지고 뭘 하라고 이걸 나눠주는지. 현실적으로 현장 종사자니까 얘기해봅니다. 적은 돈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80명이 뭘 하라고, 이 돈 주고 하라고 하는 거면 저는 쥐도 안하겠습니까. 여기 경기도에서 나오신 분이 있다면 같이 한 번 깊이 있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건물하나 짓고 문화의 전당. 이런 것들을 아트센터라고 이름을 고치려고 하는데,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마이크 잡고 갑질 할 수 있을 때 이야기 하고 싶어요.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문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고 있는가. 국가 전체 예산에서 민속예술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민속예술에 대해서는 예산이 매우 적습니다. 이런 돈으로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해주지 않고 농사 잘 짓고 풍년 되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속놀이를 하는 방법이나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이 정말 끊임없이 이것을 시대와 시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가 있어야 되겠다. 그랬을 때만이 손에서 손으로 전달될 수 있는 예술문화가 나온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 드리면 대상을 탔는데 다음에 또 나와서 대상을 또 타거나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 성인 단체는 무슨 보존회, 무슨 보존회라고 있습니다. 그 보존회는 계속 그 민속예술을 갖고 나오고 대상을 타도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단체는 규제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일 년에 한 번 성인 대회를 하고, 일 년에 한 번은 청소년 대회를 하잖아요. 근데 A라고 하는 고등학교에서 민속놀이를 해서 대상을 탔어요. 다음 청소년 대회 때 그 지역에서 같은 작품인데 중학교에서 그 작품을 갖고 또 나왔다고 치자고요. 근데 동일한 작품이라고 해서 안 된다, 청소년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것을 주장 하는 거예요. 대회 운영규정을 만들 때 형평성에 맞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민속이라는 것이 오늘 아침 먹었으니까 내일 아침 또 먹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 없지 않습니까. 누가 저한테 그래요. “옛날에는 농사를 많이 지어서 그런 거 하기 좋아하지만 지금은 팥과리 치려면 힘들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하고 물어봐요.

저는 총체적인 민속을 시대에서 시대로 이어지고 손에서 손끝으로 이어지는 정책이 먼저 만들어져서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대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심사위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대상 탄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고쳐나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형문화제가 됐을 때,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사람들, 그 몇 사람을 제외한 뒤에 있는 수많은 회원들, 단원들이 분들에게는 어떻게 할 거냐, 민속놀이 일 년에 한 번 경연하고 끝나는데, 심지어는 우리가 문화 인디언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고민해서 정부로부터 국가로부터 빛을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우리한테 빛진 사람들 아십니까? 우리한테 전통민속예술 이름 석 자

쓴 거 외에 우리한테 뭘 준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제도를 잘 만들어서 무분별한 외래문화에 쓰나미처럼 휩쓸려가지 않고 이것을 잘 지키고 이어갈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실 무형문화재가 된다고 해도 어려운데 무형문화재가 아니더라도 평생을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가의 정신을 이어가는 상속자들, 그 분들에게 정말로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국가는 그 분들에게 복지문화를 만들어서 잘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맺음말〉

우리 고사성어에 보면 학철부어라는 말이 있습니다(수레바퀴 자국에 핀 물에 있는 붕어라는 뜻으로 곤궁한 처지나 다급한 위기를 비유한 말). 저는 전통문화예술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우리들이 모두 건어물전에 가서 매달리기 전에 국가는 정책적으로 배려해주는 길 만이 많은 전통 문화인들의 혼을 일깨워 주고 문화를 전승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영철 부천 석촌농기고두마리 보존회장/

첫 번째 김장환 사무국장님께서 부분들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대체적으로 현장에서 민속예술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할 내용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고민 했던 부분은 민속예술제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축제라는 용어를 함축한 말이고 경연대회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 명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경연대회 형식을 띄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칭과 내용이 어울리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술제라는 말이 사용된 것은 1999년 제40회 제주도에서 벌어졌던 한국민속예술축제부터 사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참가했던 모든 단체가 제주도 시내를 퍼레이드를 했었어요. ‘이런 것이 있다’ 제주도민들에게 알려주고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하나의 즐길 거리, 볼 거리, 놀 거리 등을 제공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외형적으로 보면 20년이 지났잖아요. 그 용어를 사용했던 것은 축제가 되어야 하고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인원수까지 제한했었습니다. 옛날에는 100명, 200명까지 나온 경우도 있었지만 그 해부터는 80명으로 제한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속예술제의 가장 큰 문제는 경연형식을 띄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민감하게 대두되는 것이 경기도 민속예술제를 통해서 한국민속예술축제에 누구를 내보낼 것인가 하는 출전권에 대한 문제인데, 저도 계속 참여를 하지만 제일 안타까운 것은 민속에 우열을 가릴 수 없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미 선조들이 살아온 삶에 농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대단히 훌륭하고 아름다운 거죠. 근데 그것을 경연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짚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인데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민속예술제 출전권을 지금과 같은 경연형식이 아니라 각 시군별로 순차적 기회를 주는 방법을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현재 수상방식을 전면 재조정 하자는 것인데요. 심사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있다고 하니까 현재까지 22회가 진행이 됐다고 보면 31개 시군 중에 경기도를 대표해서 전국대회에 못 나가

본 지자체가 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형태를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한 번도 못 나가본 그 팀들이 과연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지방 자치의 조건이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훌륭한 의미로 존재하기 때문에 순차적 기회를 준다고 하면, 만약에 포천이 선정이 되었다. 내후년도에 전국대회를 도를 대표해서 나간다고 하면 준비하는 시간도 넉넉할 테고 만약에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전문가들을 지원을 해서 내용을 보강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그 지역도 그 과정을 통해서 미비한,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완성도 높여서 그 지역에 대표적인 민속예술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전국대회를 나가게 되는 팀이 경기도 민속예술제를 주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지자체의 구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꺼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엔 우리가 도를 대표해서 전국대회를 나가고 그래서 이번엔 우리 시에서 행사를 주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런 시너지적인 측면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심사 제도를 없애고 민속예술 전문가들을 참가하는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해서 그런 내용들을 보강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봤는데 아까 발제자께서는 심사 문제를 제기하고 경연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국 나중에 콘텐츠경연대회 형식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예술제, 축제니까 축제다워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장에 가보면 저희도 그런데, 가면 저희 하고 끝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팀들을 보면 관심이 저 팀이 잘하나? 수상권에 들어갈까? 못하나? 하는 생각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자리에 가면 우리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서로가 관심을 갖고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을 물어볼 수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가 갖고 있는 부분들을 공감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정말 즐기는 자리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꽤 긴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더 발굴될 내용이 있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꾸준한 작업을 진행하되, 경기도 민속예술제는 좀 더 형식을 바꿔서 명칭에 맞게, 내용도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웅수 /

원래 58년도에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예술축제로 변경이 됐는데 이것은 경연에 치중하는 것을 막고 축제로 전환하자 라는 의도에서 됐었고. 경연을 하다 보니 어떨 때는 200명까지 나오는, 대형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민속놀이가 원래 목적에서 많은 훼손이 있다 해서 인원을 80명으로 줄였어요. 그러다보니까 원형을 가까이 찾아가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고. 그러나 여주 쌍용 줄다리기라든가, 기타 몇몇 민속놀이는 80명 이상이 필요했던 작품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80명으로 줄인 것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시군을 순회해서 동등하게 기회를 주자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순환적으로 하는 것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것은 다른 면으로 보면 우리 시는 관심도 없고 나갈 것도 없는데 라고 하는 강제성을 부여했을 때의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시에서 주최를 했을 때 그 시에서는 전국대회 나간다고 신바람이 나서 두들기고 했는데 경연이 아니었을 때 참가하는 다른 시군들의 민속놀이 팀들은 얼마나 많은 예산이 지원돼서 그런 열기를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좀 더 연구과제로 남겨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장환 /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경연대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경연대회가 진행되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됩니다. 31개 시군에서 우리 경연대회 나가서 입상 좀 해보자 라고 하는 강력한 모티브가 제공이 돼서 준비를 하고 다음번에 또 해보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우선은 경연대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입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왜곡이라는 또 다른 문제점을 항상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지역에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제공하면서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현채 김포문화원 사무국장/

저는 현장에서 무형문화가 관심 있어서 혼자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민속예

술제를 나가려고 하다보니까 고증자를 꼭 쓰게 되어있어요. 민통선 안에 있는 민속예술품, 그러니까 마을이 다 없어졌죠. DMZ 설정하면서 그쪽에 살았다가 다른 지역 간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녹취를 하고 했는데, 경연대회를 나가려고 하니까 고증을 받으라고 합니다. 근데 점점 제가 듣기로는 고증을 누구한테 받아야 고증이 되는 건지, 이름이 많이 알려진 교수님들한테 찾아가서 고증을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비슷한 현장에서 수 십 년간 실제 해온 분들한테 가서 받아야 하는 건지, 또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건지, 고증이 꼭 필요한 건지, 아닌지, 그런 게 궁금한 점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참석을 하다 보니까 김장환 국장님하고 임웅수 이사장님께서도 고증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오늘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장환 /

고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민통선 안에 있기 때문에 또, 마을이 없어져서 고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민속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역적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경기 북부지역 쪽에서도 해안가냐, 강 어구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승되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고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받아야 하는 거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고증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그러니까 고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꼭 민속학자라든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그 정도 민속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고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향토사학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충분히 고증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그 지역에 전승되어 내려오고 있는 민속에 대해서 지역민들, 또 지역 주변의 많은 분들이 고증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고증을 안 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고증은 분명히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웅수 /

고증이라고 하는 것을 좀 쉽게 표현하면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옛날부터,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돌려 말하면 고발한다, 그래서 그것을 학자들이 고발내용을 육하원칙이나 학술적인 용어로 바꿔

서 사회에 발표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볼 때 타당성이 있다 라고 고증을 해줌으로써 그 마을에 흐르는 흔적들을 글로써 선명하게 남겨주는 제도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증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마을에서 5대, 10대, 20대를 살아온 자손들이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그런 내용을 학자 선생들이, 또는 전문가가 글로써 잘 표현해 주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현재로써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영철 /

임웅수 이사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등 큰 행사, 국제적인 행사를 통해서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보존을 뛰어 넘어 무형문화재의 유통과 산업화, 확장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는 세계무형문화엑스포 같은 것들을 해야 하지 않느냐 라는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엑스포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간의 문화나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 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가져가는 축제의 자리가 엑스포인데, 세계적인 단위의 엑스포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저는 경기도 민속예술제가 이러한 엑스포적 성격을 가져야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여쭙보고 싶은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것과 같이 하는 건데, 경기도 민속예술제가 어떻게 보면 시군의 문화원들이 일 년에 꼭 참여하는 약간 의무적이면서도 가장 커다란 행사라고 본다면 아마도 경기도에 있는 민속예술인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가장 성대한 행사일 것이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훌륭한 행사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콘텐츠들을 엑스포적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개념들을 유도하는 것, 즉, 세계적인 부분의 커다란 의미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런 부분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세계적인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이미 그런 것에 훈련이 되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예술축제행사장에 가면 서로 반갑고 인사하고 너무 좋고 이래야 하는데 사실 경쟁의 눈빛으로 바라보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러한 어떤 훌륭한 나눔과 소통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엑스포적 성격의 예술제와 만나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임웅수 /

오늘도 이렇게 아주 바쁜 시간에 토론회를 하는 것은 우리 민속놀이의 집에 불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을 어떻게 꺼서 우리 집에 있는 세간 몇 점이라도 불에 타지 않도록 꺼내야 되겠다 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

서 이제는 그렇게라도 부지깽이 몇 개라도 호미, 삽, 삼태기 몇 개 타다 만 거라도 꺼내서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는 거고,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시도문화재로 만들고 또 국가문화재도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일류 무형유산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같은 것을 보면 시도대항전이 있고 전국체전이 있고 아시안게임이 있고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문화도 이런 세계에 문화체육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그릇을 가질 때가 됐다. 특히, 우리가 미국보다 땅덩어리는 작고 경제는 어렵지만 그래도 200년 갖고 있는 역사보다 오천년이라고 하는 우월성이 있는데 이런 것을 민속예술로써 같이 나누고 그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문화가 아닐까. 그렇다면 이제는 경기도무형문화재가 됐든, 지방문화재가 됐든 지역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전국단위 축제로, 그리고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문화올림픽을 만들어서 세계가 함께 공유하는 장을 만드는 그런 시대가 와야만 각국의 문화를 서로 알고 격려하고 응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옛날에는 애를 낳아서 가정에서 키웠지만 이제는 사회에서 키우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도 세계가 함께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희망적인 마음에서 글을 썼습니다.

손영철 /

그래서 경기도민속예술제를 그러한 장으로 만들어가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임웅수 /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무형문화재 뿐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건 농악인데, 시조나 민요도 보면 전국단위로 뭉쳐있지 않고 경기소리보존회, 남도소리보존회 따로따로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서로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국가의 축제로 만들어가는 것이 시대의 사명이고 경기도무형문화재로 국한을 한다면 경기도무형문화재도 31개 시군이 더 많이 공유해야겠지만 지역을 확대해서 그런 흔적들을 널리 알리고 전승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민 포천문화원 사무국장/

내용을 보니까 책에 좋은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국가문화재 지정심위기준이라고 해서 기록을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민족생활의 변천과 발달을 이해하는데 도움. 둘째, 발생연대가 비교적 오래고 그 시대의 특색. 그렇게 해서 총 7가지를 적어 주셨더라고요.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또, 민속예술의 발굴의 문제.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민속 문화재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 민속예술제거든요. 그러면 무형문화재 발굴심의기준과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민속예술을 발굴해야 하는 목적입니다. 문화재 심위기준 내용이 바로 문화 원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발굴해서 전승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지 그 방법이나 심사, 여러 가지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로는 이것을 발굴해서 그냥 경연대회에 겨우 나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원형을 통한 축제를 별도로 개발하는 거예요. 나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예술도 가미하고 전통과 현대 트렌드를 복합해서 어떤 축제를 개발한다고 하면 두 가지를 같이 한꺼번에 나갈 수 있다는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민속예술제 지원이 그 정도 금액은 안 받아도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되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저희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아까 김장환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수 팀을 세 팀 정도 뽑으면 한 팀당 1,2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 정도면 충분히 도움이 돼요. 그러면 3년 간 또 지원을 하고 또 이어서 지원을 하고 이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법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웅수/

예전에는 우수 전통 민속놀이라고 해서 시·도 매칭비율을 7:3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도에서 7, 시군에서 3. 5:5하다가 지금은 8:2로 변했어요. 이러다보니까 경기도에서 일은 저질러 놓고 일이 방대해 지다보니 자꾸 시군으로 미뤄요. 그래서 도와 시군의 의견충돌이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은 경기도 차원에서 또,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얘기를 해서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을 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어떻든 한시적 지원이 우리 문화가 이어져 갈 수 있는 근본적인 면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장환 /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 드렸던 것은 지금 총예산을 10개 팀에게 나눠주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것도 일회성이고요. 그것을 23팀을 선정해서 그 팀에게 해마다 지급을 하게 되면 금액은 늘어나죠.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 팀에게 무한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단위별로 3년, 5년 단위로 재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검토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고요.

또, 심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심사를 경기연구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만 보느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되어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오셔도 되는데 심사를 연구원이라든가 민속학회 쪽에 의뢰를 해서 공통으로 추천하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라는 말이었습시다.

임웅수 /

심사위원 문제는 이해는 하는데 결국은 우리끼리 따로 얘기해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는 근본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왜 우리 종사자들이 많이 있는데 종사들을 외면하고 국문과 교수들만 모셔다가 심사를 해야 하는가? 우리 국악과 교수들도 많잖아요. 또 문학회 선생들도 많고. 근데 한국민속예술제가 경기도에서 주최해서 가보면, 경기도는 요즘 현장 종사자들이 많이 오는 편인데, 거의 7명이 심사하면 5명이 국문과 교수들이 와서 딱 앉아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분들이 자꾸 옆에서 물어봐요. “저건 어디 가락이야?”, “저건 뭐야?” 이러면서 심사위원석에 앉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자존심이다. 그 분들이 7명이니까 예를 들어서 두 분이나 세 분 정도는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또는 현장 종사자들이 미처 모르는 부분들을 학문적으로 일깨워주기 위해서는 가능하지만 그 분들이 주가 돼서 1, 2, 3등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인시 백암면 백암농협 부회장 /

지난 9월에 경기도 대회에서 저희가 3위를 했어요. 그런데 차기 연도에 재출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임웅수 /

현행 제도는 경기도에서 대상이나 최우수상을 탔을 때 전국대회를 나가고 그 이외의

팀은 다음 대회에 또 도전을 해서 대상이나 최우수상을 탔을 때 전국대회에 나갈 수 있는 출전권이 주어지거든요. 백암 같은 경우 이번에 대상이나 최우수상을 못 받으셨다면 다음 대회에 또 나와서 좋은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장환 /

금년도에 우수상을 받으셨어요. 근데 다음번에 기회가 또 주어지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저희 용인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네 번째, 용인민속예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해에 일반부 경연이 있을 때 저희가 민속예술제 경연대회로 치룹니다. 거기에 출연한 팀들이 경연을 벌여서 최우수, 1등 하는 팀이 그 다음해에 경기도 민속예술제에 출연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백암 같은 경우도 작년에 대상을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나간 거였거든요.

용인시 백암면 백암농협 부회장 /

그렇다면 올해 우수상을 받은 것은 일체 관계없이 다시 도전해서 1등을 해야만 나갈 수 있다는 말인 거죠?

김장환 /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은호 평택문화원장 /

저희 평택에서도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시민의 날 민속 경연대회를 해서 거기서 우승한 팀이 경기도 대회를 대표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토론한 액션토크가 발제자 입장에서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좌장입장에서 지속발전가능토록 특히 경기도 민속예술제에 대해서 제기된 여러 문제들을 심층 토론하는 자리라도 만들어서 좀 더 여러 가지 연구를 해야 하지 않나 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이 경기도 민속예술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됐기를 바라면서 제1섹션 토론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2 섹 션

지방문화원은 지역청년과 손잡을 수 있을까?

본 섹션은 지역에서 자리 잡고자 하는 청년과 문화원의 지향점에 대해 논의한다. 문화원은 지금까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 없었다. 문화원이 청년을 만났을 때 하고 싶은 일과 청년이 문화원에 바라는 점들을 이야기한다. 오고가는 논의 속에서 청년과 문화원이 만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시너지와 지역의 모습을 마음껏 상상해 보고자 함.

좌장 : 신희영(문화집합36.5 이사)

• 취지

지역에서 자리 잡고자 하는 청년들과 문화원의 지향점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문화원이 지금까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청년을 어디서 만나야 되는지도 잘 몰랐고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이 문화원에서 전반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문화원은 그동안 어르신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좀 강했습니다. 실제로도 문화원 사업에 대부분 타겟과 이용하는 분들이 어르신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에는 다양한 계층이 있고 젊은 친구, 또 퇴직하고 제2의 삶을 준비하시는 신중년, 청년, 청소년, 어린이. 그렇다면 이제는 문화원이 먼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나 시민들에게 손을 내밀고 지역 문화를 함께 만들어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에서부터 본 포럼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제2섹션에서는 ‘문화원이 지역 청년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를 비롯해서 동두천문화원, 파주문화원, 이천문화원 등 몇몇 문화원에서는 이미 지역 청년들과 협력하는 사업들을 시작했지만, 아직 시작단계여서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이고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청년 입장에서는 ‘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까?’, ‘왜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간섭하려고 할까?’라는 답답함과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것

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청년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문화원의 입장, 청년들의 입장, 외부에 있는 청년 단체의 시각에서 문화원과 청년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서로의 지향점을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1주제

청년들은 문화원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 동두천 사례를 중심으로

최지호 (동두천시청 문화체육담당주무관)

안녕하세요. 저는 동두천생활문화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최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주제 관련해서 요청을 받았을 때 굉장히 감사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제 발제를 처음에 주신 게 이런 문제 제기를 하라고 저는 해석을 해서 그렇게 한 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저는 문화원에서 2년을 근무했고요. 올해부터는 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동두천 생활문화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생활문화센터는 동두천문화원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체제예요. 지금 세 개 기관이 나왔죠? 생활문화센터, 시, 문화원. 사실 이런 복잡한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논의거리가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문화원의 변화, 혁신. 어디나 혁신을 얘기하긴 하지만,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년 이야기를 하지만, 넓게 보면 문화에 패러다임의 변화, 이미 변화하는 시기잖아요. 어떤 세대로서의 청년이 아니라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문화원이 계속 지속이 되어야 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수용해야하고, 그들과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제 발제를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두천문화원이 어떻게 청년과 연결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문화센터에서는 그 동안 청년들과 연결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연결 지어 고민하면서 그런 인력이 생긴 거죠. 그런 인력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청년들과의 접점이 생겨났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노력을 하는 매개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화원은 흔히 생각하기에 청년과 접점이 적습니다.

그것을 만들어나가는 적극적인 매개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동두천의 청년연합이 막 만들어지는 시점이 있었어요. 청년연합을 만나서 프로그램을 해보자고 생활문화센터에서 제안을 했죠. 그러면서 청년 연합은 만들어져서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생활문화센터는 청년들의 젊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만연한 생각. 이렇게 접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는 문화원 사업 안에서 진행해야 하고 생활문화센터는 생활문화센터 안에서 진행해야 하는 관념들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청년 연합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싶은 상황이었고 그러면 지역에서 청년연합이 하고 싶은 것들을 연결 해보자. 생활문화센터, 문화원은 여러 가지 공모 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연결지점에서 찾았어요. 그러면서 스किन십이 생기고 어느 정도 신뢰가 생기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 그렇게 문화원이 지역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년들과 굉장히 어색해졌어요. 저도 ‘왜 어색해졌을까?’하고 고민하고 있는 차원이긴 한데,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청년연합이 원하고 있었던 부분, 자기들의 영향력을 내세우고 싶고 자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은 내용과 문화원, 생활문화센터가 지향하거나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점들이 좀 맞지 않는 부분들. 누구의 잘잘못이라기보다는 그런 방향성들이 찾는 부분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것을 더 노력해서 찾았다면 다른 접점들이 생겼을 수 있는데, 아직 동두천은 찾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년 연합과 헤어졌는데, 그 와중에 문화원에서 20대 청년들로 구성된 문화원 청년회를 구성하게 됐죠. 왜냐면, 청년과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청년들이 왔다 갔다 하니 문화원 차원에서 이런 에너지를 문화원의 변화를 위해서 활성화시켜야겠다고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낯선 풍경이 있었습니다. 당시 문화원에 어떻게 인식이 있었냐 하면 청년들이 문화원 회원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부터 “어떻게 어린 친구들이 들어올 수 있어?”라는 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동안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특

성이 있었으니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을 바라보는 인식에서 예를 들어 청년들이 문화원 행사에 안 나오면 “애네들 왜 안 나오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이 마치 문화원이 행사에 이용하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쉽고 저도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맞춰나가야 하는지 고민이고 이 자리에서 그런 논의를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문화센터는 어떻게 보면 안이하게 가려고 했던 거죠. 연합이라는 만들어진 단체와 손쉽게 시작하려고 했던 건데 그것이 안 되면서 시민 기획단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개별 청년들을 같이 발굴하게 됐어요. 시민기획단은 시민에게 열려있고 50대부터 20대까지 고르게 분포가 되어있었는데, 그렇게 생활문화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청년들을 만나게 된 거죠. 발견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들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때가 2017년도니까 지금까지 3년을 거쳐서. 많은 인원은 아니에요. 청년들이 한 4명 정도 됐는데, 2명이 좀 밀접하게 관계가 돼서 지금까지 관계가 지속되고 있죠. 사업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을신문 활동, 정책연구, 생활문화기초연구를 같이하게 되고 개인 프로젝트로 아카이브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계속 같이 이야기하면서 해나갔다는 과정들이 굉장히 소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두천에서 문화적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청년워킹그룹들을 만들게 됐죠. 이제는 청년들이 직접 페이를 받는 시스템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실패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역 정치적 상황도 있고 사업기획의 문제도 있고, 어쨌든 호기롭게 지금까지 3년 동안 아주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팀들을 어떻게 보면 조직화해낸 건데 그것도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나마 다행스럽게 청년 그룹이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동안의 느슨한 네트워크가 유용했다는 생각입니다.

더욱 더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한 친구는 해외로 떠났고, 한 친구는 떠난 해외로 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둘 중 한 명은 생활문화센터에서 고용해서 같이 일하고 있었어요. 문화원식구들 대부분이 50대 이상이신데, 직원이 아니라 아들처럼 딸처럼 생각하며 대하는 점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거는 문화원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기성세대에서 공히 보이는 부분이기도 한데, 일적인 측면에서 이 사람의 분명한 위치와 능력을 평가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마인드가 되어야하고 직위를 떠나서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도 그런 분위기가 좋은데, 가끔 청년들은 그것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폭력적인 부분으로 느낀 것 같습니다. 문화원이라는 조직이 끈끈하기 때문에 한 마디

가 여론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빠르고 그 여론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지역 사회에서 활동할 때 문화원에서의 인상이 ‘갑질’처럼 느끼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풀어나갈 지혜, 인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입니다. 청년들이 어려운 박봉에 삶을 갈아 넣어야 하는 상황을 견뎌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오래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죠. 문화원조차도 그런데 생활문화센터도 새로운 조직이고 새로 결합한 청년들이 문화원에서 그동안 감당했던 지역 내 활동을 견딜만한 이유가 없는 거죠. 맷집은 더더군다나 없고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힘들기도 힘들고 빨리 그만두게 되는 계기도 되고 이 부분은 지역의 정치 상황이든 문화원 조직 안에서는 다른 포럼의 자리에서든 개선이 되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청년들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특히 90년생들은, 저도 90년생들에게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엄청난 사회적인 불황 그로 인한 스펙에 대한 강박에 시달렸던 세대더라고요. 그런 세대가 문화원에 와서 기존 세대와 똑같은 마인드로 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원 우선주의, 지금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원도 역시 생활 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원은 어떻게든 회원들이 월 회비를 내고 참여하는 기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회원들에게 정보를 한시라도 접하게 하는 시스템이 오히려 문화원이 배타적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합니다. 생활 문화 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의 그런 상황을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나가는 방향을 선택하게 되는데, 청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문화원이 또는 청년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더 큰 범위 안에서 문화원의 역할을 찾아가고 그런 가치를 서로 잘 공유한다면 좀 더 빠르게 그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생활문화를 얘기하면서 지역문화를 얘기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지역이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등장을 하느냐? 이런 관점을 이런 세 가지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은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문화원처럼 이렇게 지역마다 촘촘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조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역문화를 이야기할 때 문화원이 지금 새로워지는 변화에 슬기롭게 반응하고, 청년과의 협력과 이해의 폭을 넓혀간다면 저는 그 시점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문화가 정말 안착됐다고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그만

큼 문화원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청년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 청년들은 지역을 어제와는 다르게 변화시키는 세대다. 그럼 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창의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조직이 문화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활문화센터가 되고 그렇게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들의 일상과 자립

박도빈(문화예술커뮤니티 동네형들 대표)

‘동네형들’은 지금 서울 전국구에서 8년째 일하고 있는 단체거든요. 문화예술단체인 거죠. 저희가 활동 시작할 때 청년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청년 정체기가 여러 가지 활동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개인적으로는 몇 년간 전국적으로 문화 기획자 양성과정도 많아졌잖아요? 지역문화 양성과정에도 강원 원주에서 몇 년째 양성과정을 같이 했었고 경기문화재단도 같이 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기초문화재단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서울은 거의 25개 자치구 중에 20번째에 송파가 만들어졌거든요. 기초문화재단 직원들 대상으로 설계하고 진행하는 것을 서울문화재단과 지난달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저희는 민간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여러 사업이나 정책들 관련해서 기관에 대한, 행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황은 아니고요. 문화원 같은 경우는 생활 문화나 지역 문화 관련해서 컨설팅이나 공모사업, 심사, 강의하면서 어느 정도 이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안받고 오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은 저희는 다른 지역문화원과 같이 일을 하거나 봐왔는데 정작, 저희가 강북구에 있는데, 8년 동안 강북구문화원이랑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고민을 하면서 왔는데요. 일단 현장에서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떠나서 계속 청년들이 청년 정체기나 청년문화나 아니면 지역에서 청년들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맥락에서 청년들이 커뮤니티를 만들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어느 지점에서 어떤 태도나 감수성을 결합할 수 있을지 고민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삼각산재미난마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속리산마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강북구 수유동에 재미난 마을이라는 마을공동체가 있습니다. 서울 안에서 아마 10년 넘게 활동한 마을공동체일 텐데, 사실 저희는 이 동네 살던 사람들이 아니고 다 다른 동네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이사를 왔고요. 되게 기대가 있었어요. 마을공동체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런 생각이 없어진 건 들어와서 2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에 ‘삼각산재미난학교’라는 초등대안학교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이 많이 활동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은 아이들 교육 중심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저희도 물론 그 프로그램에 관심도 있지만,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아서 동네에서 청년들을 모아서 청년들의 문화를 만들어야 지역에서 주체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간이고 다 10분 정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는 원룸이나 이런 곳은 주방이랄 곳이 없잖아요. 싱크대를 하나 달아서 거기에 큰 주방을 만들었습니다. 같이 밥 먹고 반찬 만들어서 나누기도 하고 같이 김장하기도 하고 이런 일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요. 6명 정도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청년들이나 청년단체들과 같이 큰 프로젝트를 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20살 때 올라와서 혼자 살고 있는데, 여름에 마트에 가면 수박 앞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 고민을 해요. 이 돈을 주고 내가 수박을 사면 도대체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하다가 못사고 돌아오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요.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식재료를 구입하고 다듬고 요리하고 밥을 먹고 정리를 하는 건 굉장히 큰 노동이죠. 내가 혼자 살기 부담스러운, 내가 항상 밥을 사 먹을 순 없으니까 혼자 살기에 부담스러운 식재료를 같이 사고 같이 요리해서 먹을 수 있으면 훨씬 같은 비용에 건강하고 즐거운 식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그 공간에서 많은 것을 만들어 먹죠. 그런 일상적인 활동이 저희에게 꽤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울에는 청년사업이 2013년도에 생겼고 최근 10년 동안 청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책도 쓰시고 강의도 하시고 난리였잖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 청년기를 보내고 성공했는데 우리도 성공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되게 괴리가 있더라

고요. 저런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은데 그냥 평범한 청년들이 모여서 서로 고민을 나누다 보면 공감되고 위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2014년도부터 계속 다른 지역에 있는 공간에서 워크숍을 진행하다가 기회가 잘 돼서 작년, 재작년은 전국의 청년들 100명이랑 2박 3일 동안 캠프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거의 그냥 2박 3일 내내 이야기를 하는데 프로젝트 끝나고 피드백을 받으면 이야기할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고 그래요.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신혼부부가 여름휴가를 여기로 오고 되게 이상하잖아요?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인들도 휴가 내서 오세요.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문화재단과 활동해오면서 물론 문화예술이 일상의 변화나 삶의 변화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 청년들과 문화예술을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일상에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모든 문화예술 활동들이 일상에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각자 갖고 있는 고민이나 일상에서 조금 가까운 활동을 참여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많은 청년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아직 20살 때부터 혼자 살았고 지금까지 계속 월세를 내는 세입자거든요. ‘동네 형들’같은 일을 하면 사실 평생 돈을 벌어도 절대 제집을 가질 수 없거든요. 왜냐면 제가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거죠. 주거나 집에 관련된 강의를 들으러 가거나 책을 보거나 방송을 보면 늘 내 집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지 알려주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도시에 살아가는 청년들은 삶의 많은 시간들을 세입자로 살아갈 텐데, 사실 아무도 세입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마치 내 집을 가져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민달팽이유니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청년주거 관련해서 정책 제안하고 실제로 달팽이집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청년 1인 가구가 할 수 있는 협동 주택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동네에 청년들이 운영하는 목공소가 있어서 이 세팀이 모여서 동네 혼자 사는 1인 가구 세입자들이랑 할 수 있는 10주 과정을 몇 년 운영하고 있고요. 25명에서 30명이 매달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는 잘 아는 것도 없고 잘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서 각자 혼자 사는 청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나누는 과정들을 같이 하고요. 민달팽이유니온은 전문가라서 실제로 집을 구할 때 무엇을 잘 봐야 하고 임대차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하고 어떤 것들이 있고 실제로 세입자로 살면서 집주인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집주인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들. 그런 과정이 있었고 보통 원룸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1년, 2년 단위로 계약해서 살다 보니

까 집에 전구가 나간다는지 물이 샌다든지 그러면 그냥 놔두고 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좀 어둡게 살거나 물이 새는 상태로 사는 거죠. 그걸 내가 해봤으면 별로 어려운 게 아닐 수 있는데 해본 적이 없고 집주인한테 얘기하면 화를 낼 것 같고 아니면 사람을 불러서 고쳐달라고 하면 돈을 많이 줘야 할 것 같으니까 놔두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내가 사는 공간에서 생기는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손의 힘을 기르는 것도 했었고요. 간단한 방법만 알면 전구나 스위치 이런 것들을 가꾸고 고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우리 평생 변기나 싱크대는 쓰잖아요. 그 구조를 한번 상상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평생 우리가 쓰는 물건들이니까 구조를 상상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뜯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면 청소도 훨씬 잘 할 수 있고 사소한 문제들은 스스로 고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싱크대, 변기, 세면대를 뜯어서 보는 거죠.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요즘에 인테리어 많이 하나까 페인트칠하고 다시 디자인하는 것도 배우고 사람마다 손 크기나 습관들이 다 다른데 똑같은 모양의 식기를 쓰잖아요. 각자 손에 맞는 식기나 그릇 만들어보는 이런 과정을 진행했는데 앞에서 보셨지만, 이 프로젝트를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았고 서울을 바꾸는 예술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어요. 어떠세요? 예술 프로젝트를 같으세요?

보통 삶이 예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는 저희가 이 해에 40개 정도 공모사업 단체들을 운영했는데 우수자로 선정돼서 설명회 할 때 이 내용을 발표했었거든요. 제가 심사위원과 이야기해 본 건 아니지만, 심사위원 중에 그런 질문을 주신 분이 있었어요. 어차피 2년 뒤에 나갈 건데 인테리어 하고 이런 거를 지원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사실 청년주거는 전문가들도 해결할 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부동산에서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그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에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누군가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도 되게 소중한데, 스스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상력들, 나한테 주어지는 2년 동안 내 삶을 맞춰서 사는 게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내가 사는 공간을 나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이나 힘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상력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서울시가 청년수당이나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시작으로 여러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라는 사업은 일하는 청년들이 적금을 부으면 서울시가 만기가 되면 100%로 매칭해주는 사업인데, 경기도도 아마 일찍부터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1년에 2천 명 정도 참여를 하는데, 그냥 적금 드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서울복지재단에서, 참여하는 청년들이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면 좋겠다는 제안 주셔서 저희가 참여하는 청년들과 커뮤니티 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예술에 관심 있는 청년들 스무 명이 한 달에 두 번씩 만나는 거예요. 다 직장인인 거죠. 아마 커뮤니티 운영해보신 분들은 상상해보실 수 있을 텐데, 저희도 엄청 걱정을 많이 했어요. 작년, 재작년 계속 진행했었는데, 실제로 재작년에 모였던 모임들이 아직도 지속하고 있거든요. 신기하기도 하고 여전히 맥락을 이해하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보통 요즘 스타벅스나 큰 카페에 가면 다 혼자 앉아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내가 집중을 하는 행위를 할 때 혼자서 집에서 하거나 도서관 같은 조용한 곳에서 하면 집중이 잘 될 텐데 왜 굳이 사람이 많은 곳에 나와서 혼자 있을까? 라는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로 서울에 <무중력 시대>라는 자치구마다 청년 활동 공간이 있는데요. 중력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청년 공간이라는 의미겠죠. 지금 서울시에 여덟 개 정도 있는데, 가보면 다 똑같이 도서관처럼 혼자 앉아있어요. 청년 공간인데 들어가면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여기서는 떠들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 같이 판단을 하기보다는 왜 청년 공간이 만들어지면 왜 각자 혼자 앉아서 무언가 하고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혼자 집에 있고 싶진 않은 거죠. 여러 사람 안에서 그사람들과 같이 소통을 하거나 작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적당한 거리감에서 오는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 사람 사이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느낌. 이거를 커뮤니티에 대응시켜보면 기존의 마을공동체나 커뮤니티의 이야기하는 방식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좋고 모이는 사람들이 만나면 만날수록 친해져야 한다는 그런 지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전에도 그런 감성이 있었겠지만, 새로 등장하는 세대들은 훨씬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이 되게 높아졌고 커뮤니티에 대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거리나 관계의 형태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드리면 참여했던 청년들은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있거든요.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이죠.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의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사실 복잡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만나왔던 학교 친구나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회적인 관계들이 있는 거죠. 이 모임에 오면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지 않고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부담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같이 하는 거죠.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높거나 만나면 만날수록 뭔가를 해야 한다는 역할이 크거나 그렇지 않은 거죠. 최근에 트레마리 같은 경우에는 일 년에 50만 원씩 내거든요? 책 모임

을 하는데 50만 원씩 내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기존에 참여했던 동아리나 모임이나 커뮤니티랑은 되게 다른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리하면, 제가 몇 년 전에 ‘우리는 3년 안에 망할 것이다’라는 주제로 포럼을 준비하면서 대표들한테 연락해서 이런 주제로 포럼을 열 테니까 대표님들이 오셔서 각 조직이 3년 안에 어떻게 망할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라고 했어요. 공통된 반응이 그거였거든요. 3년은 너무 길다. 예측이 안 간다. 1년으로 하자. 서울에서 그나마 사례나 정책이나 이런 자리에도 좋은 얘기를 해주는 잘하고 있는 조직들인데도 여전히 쉽지 않은 거죠. 2013년에 청년업이 생기면서 되게 많은 자원이 청년단체나 공간들에 갔었고 지금 6년 정도 지났는데 서울도 겹으로 상상하시는 것만큼 지역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단체들이 이제 거의 없어요. 요즘은 영리 쪽으로 많이 갔고 이런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찾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 고민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역에서 만나는 생활문화나 지역문화에서 기존에 활동해왔던 대부분의 분은 가정에서 누군가가 경제활동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굳이 지역에서 하는 활동을 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노동으로 치환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 있고 자발적인 활동들이 가능한데, 저희는 다 혼자 사는 1인 가구거든요. 당분간은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저희는 저희가 지역에서 활동하려면 이 활동이 저희 노동으로 치환되지 않으면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즐거울 수 있지만, 앞으로를 생각해보면 답이 안 나오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고요.

오늘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지역에서 청년 활동이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문화원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문화원만이 고민해야 할 문제도 아니고요. 활동하시는 지역에서 지자체나 여러 청년단체나 청년들과 같이 활동하는 기관들도 이미 고민하고 있으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문화원이 역사가 오래되기도 했고, 다양한 자원이나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시니까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주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직접 참여자들을 만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문화원에서 활동하시는 범주 안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의 청년들을 연결하고 합장할 수 있는 매개자들을 양성하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가는 게 오히려 전략적으로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는 앞에서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런 데서 강의나 발제를 하면 제 나이를 절대 얘기 안 하거든요. 제가 올해 38살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면 끝나고 질의응답이 대부분이 다 제 걱정을 해주세요. ‘결혼은 어떻게 하나.’, ‘먹

고살 만하냐.’,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렇게 되는데 지역 안에서 다양성이 공존한다는 것. 비단 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같이 하는 것 안에서 각자의 성향이나 취향이나 그런 것들이 공존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가 생기면서 축제나 이런 것에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거든요. 최근 들어서 제일 웃졌던 게 그거였어요. 한 청년이 축제에서 다양한 지역의 청년들과 만나니까 너무 즐겁다. 보통 가을에 하루 축제하기 위해서 6개월 정도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일이 중간에 있겠어요. 축제가 끝나고 이렇게 같이 축제를 해서 너무 좋은데 뒷풀이는 같이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역 활동하면서 이것이 되게 중요한 맥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후 토론에서 청년들의 자립이나 같이 활동뿐 아니라 지역 안에서의 소통이나 태도나 감수성을 어떻게, 왜냐면 새로운 세대들은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논의는 당장 해결할 수 없더라도 시간이 지나서는 유의미할 것 같아서 그런 애기도 같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기획자, 지방문화원의 새로운 바람이 되다

- 광주문화원과 청년 창업기업 (주)컬처임팩트를 중심으로

남진우(컬처임팩트 대표)

간략하게 저희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광주문화원과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광주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문화예술계 인근에서 쪽 활동을 해오다가 지역의 시립 예술단을 거쳐서 서울에 있는 구로 문화재단에서 한 6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재단에서 근무를 하다가 내 지역에 내려가서 내 것을 해보자고 해서 기획사를 작게 운영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광주문화원과 긴밀하게 많은 사업을 진행했고 하고 있고 그것을 운영하면서 제가 느낀 점, 생각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광주문화원이랑 2017년부터 사업들은 시작해서 현재까지 쪽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이 봐왔던 문화원은 문화예술계에 비유하자면 뽕뽕 얼어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예술 트렌드, 지역에 있는 재단, 다른 문화예술 기관들에 비해서 이 영역싸움에서 문화원이 밀리기 십상이었고, 저도 재단에서 6년간 일을 하면서 문화원과 지역에서 가장 큰 기관이 재단이잖아요. 재단 간의 영역싸움은 수도 없이 봐왔고 문화원이 입지를 붙이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광주문화원이랑 3년 동안 운영하면서 광주시를 많이 바꿨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하는 불량콘서트, 숨씨마켓, 공감센터뽀뽀, 문화배달원 200인과 함께 하는 신장개업 으랏차차 문화센터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을 통해서 현재까지 저희가 3년간 운영하는 사업들입니다. 2020년 올해의 공모사업에 대한 심사평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청년기획자가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기관과 얼마나 잘 협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결과로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신선하게 만들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숨씨마켓은 공연 형태가 아닌 프리마켓 사업입니다. 이 숨씨마켓을 뺀다고 하면 나머지 세 개 사업들은 1년에 단계를 가지고 설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불량콘서트는 지역에 있는 아티스트들에게 좀 더 중심을 두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아티스트들과 함께 지역을 대표하는 콘텐츠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했구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아티스트들이 저희의 주변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랑,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화예술의 트렌드가 생활 밀착형 문화시설, 생활예술동호인 이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에 있는 아티스트들과 함께, 저희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분들과 함께 생활예술인 중심의 사업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운영할 사업인데요. 운영했던 사업을 지역 예술기반 생활예술동호인과 함께 운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화원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학교 이런 기관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스템을 만들어보려고 생각해서 지역통합형 문화서비스라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현재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불량콘서트는 2017년도 당시에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400개 팀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그중에서 최종 40개 팀만 선정이 됐고요. 그중에서 5~6번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5개 팀만 그해에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을 했고 지금 2019년부터 내년 2020년도까지는 공모사업을 벗어나서 광주시의 축제로 자리매김을 시켰습니다. 문화원과 2019년도부터 좀 더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함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광주시는 남한산성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통문화예술이 상당히 발달해있습니다. 전통문화예술이 발달되어있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지역에서 축제나 문화예술 행사만 하면 그렇게 전통문화예술만 합니다. 다른 것 없이. 전통문화예술, 트로트 이거 말고는 다른 형태의 사업이 없었고요. 저희가 찾은 2차 대안은 타지역의 예술단체였습니다. 광주시는 전통문화예술이 상당히 잘 발달되어있으니 이 아티스트들과 다른 장르인 힙합이나 EDM, 재즈 이런 계통의 타지역 아티스트를 서로 연결

해서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실현해보자는 생각에서 사업을 디자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패치워크 식의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굳이 콜라보라고 표현하지 않고 패치워크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패치워크는 천을 덧대서 만드는 그런 형태의 것인데, 저희가 1년에 세 개의 작품을 제작하다 보니까 콜라보처럼 서로 밀접하게 하나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콘텐츠들의 연결고리를 잘 만들어서 그 연결고리를 갖고 이색적인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어보라고 시작했구요. 저희가 광주시에 있는 전통문화예술단체 타지역의 현대콘텐츠의 단체와 함께 패치워크에 대한 콘텐츠를 만드는 작업을 201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공연에 대한 발표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항상 청소년들과 함께 EDM 클럽파티를 야외공원에서 했었습니다. 이 시범적으로 한 번만 할 계획이었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서 지속적으로 불랑콘서트를 대표하는 콘텐츠가 되었고요. 본공연이 진행되기 이전에는 댄스경연대회와 노래자랑 프로그램도 했었고요. LED 구간과 비보이 이런 콘텐츠도 제작했구요. 농악과 태권도를 패치워크 형태로 작업을 했었고요. 물총 대전도 진행했었고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콘텐츠를 가운데에 놓고 앞으로 사전프로그램으로 청소년댄스경연대회, 댄스경연대회 등을 했구요. 본 공연에 와서 그 기세를 몰아서 야외에서 저녁에 EDM 클럽파티를 하는 형태로 기본적인 포맷을 갖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불랑콘서트라는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의 브랜드로 3년간 운영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의 축제로 지정한다는 것도 시에서 좋게 봐주시고 문화원에서 많이 협조해주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도 저희 나름 이 콘텐츠를 발전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2017년에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콘텐츠의 기본인 골격을 만드는 쪽으로 많이 노력했습니다. 패치워크 형태의 콘텐츠 제작을 지속적으로 여러 예술단체와 했구요. 공원에서 즐기는 이색적인 클럽파티, 물총 대전, 장애인 핸디 마라톤대회 광주에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콘텐츠를 많이 했습니다. 불랑콘서트는 광주시 최초의 타이틀을 많이 가진 지역 축제 중의 하나입니다.

2018년도에는 꿈의 예술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엘 시스템아 교육이라고 해서 좀 환경이 어렵고 불우한 친구들을 문화 예술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해주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인데요. 저희는 광주시에 꿈의 예술단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오케스트라가 아닌 지역에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이 친구들이 예술 콘텐츠를 만드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에 가장 주목한 것은 기존의 예술 창작방

식처럼 앞에서 선생님이 손들어, 손내려, 앉아, 일어나가 아니라 이 친구들이 기획부터 시작해서 안무, 선곡 모든 것들을 친구들이 멘토링 형식으로 끌어가는 형태의 사업으로 집중을 했고요. 그 결과 좋은 공연을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마지막 2019년인데요. 청소년들과 이런 것을 해오다 보니까 불량콘서트가 어느 정도 지역에서 자리를 잡다 보니 관심을 가져주는 친구들이 많았고 직접 기획해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임팩트라는 청소년들을 모집해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만이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과 함께 기획하고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2019년 사업에는 청년들이 유튜브 방송도 만들어서 했었고요. 축제에 대한 홍보 이벤트도 직접 만들어서 하면서 2019년에는 청소년임팩트를 운영해서 한 것이 가장 큰 차별화 전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프로그램에서 장애인 핸디 마라톤대회는 광주시가 상당히 문화예술 소외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광주시에 있는 장애인들은 얼마나 문화에 많이 무딜까 해서 장애인분들이 그렇게 마라톤을 작게 하는 형태의 핸디 마라톤대회를 했었는데, 올해 가장 많이 해서 500분 정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주목받았던 물총 대전이 많이 없어져서 야외에 가서 소프란 축제를 모티브로 해서 물총 페스티벌을 만들었고요. 실제로 태국 현지 기획사랑 MOU를 체결해서 5월 행사 때는 DJ가 와서 공연을 진행했었습니다.

숨씨마켓은 프리마켓인데요.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지역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확장이 많이 됐었습니다. 생활예술동호인들을 만날 수 있었고 생활예술동호인들과 함께 저희 숨씨마켓에 대한 팬층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많은 분이 함께 숨씨마켓이나 킬치 임팩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문화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었어요. 문화원 측에서 셀러를 모집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활예술동호인분들과 많은 사업을 함께 하다 보니까 다음 연도에는 생활예술동호인분들과 함께 하는 사업들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공감센터뽀뽀이라는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주목할 것은 전문가, 비전문가 간의 문화원 교류, 광주시 대표 생활문화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생활 밀착형 문화시설이라고 하는데, 광주시에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문화시설로는 노인복지회관, 문화원, 학교들이 있죠. 학교들은 각 세대를 대표하는 주요 타겟층을 갖고 있습니다. 이 타겟층들의 동호인들과 저희 지역에 있는 아티스트들을 서로 연결시켜드렸습니다. 함께 작품을 창작하는 형태의 사업들을 진행했었고요. 창작한 작품을 단순히 자기

네 기관에서 공유하는 게 아닌 다른 기관에 가서 서로 선보이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장개업 으랏차차 문화센터인데요. 가장 중심으로 생각한 것은 지역 통합형 문화서비스를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사업의 소개는 앞서 말씀드린 공감센터 뽀뽀의 확장 개념입니다. 그래서 동호회 회원들을 좀 더 많이 한 200명 정도 모아서 그분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같이 창작을 해보자고 해서 시작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지역통합형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통합형 서비스의 중심은 바로 청년기획자입니다. 지역에는 생활 밀착형 문화시설이 있고 많은 아티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그것을 많이 느꼈고요. 저도 재단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했지만, 지역과 지역, 기관과 기관이 서로 협력해서 소통한다는 것은 사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청년기획자가 문화예술 매개자가 돼서 서로 소통하는 중심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고 생각을 해서 2020년에는 지역통합형 문화서비스에 중심에 청년기획자들이 서서 다양한 문화 사업들을 운영하고 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원과 이렇게 많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각한 바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 말고 키움에 대한 바람인데요. 저 또한 많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그 교육 프로그램들이 사실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역에서 활동을 해보니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가고 지역에서 선진적으로 사업을 하는 ‘동네형들’, 동두천생활문화센터 같은 선배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원에서는 무언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이분들과 지역의 청년들을 연결해준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효과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을 넘어 지지에 대한 바람인데요. 저희가 광주문화원에서 갈 때마다 친정에 간다고 하는데, 정말 따뜻하게 반겨주시고 늘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문화원에 가면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저한테 가장 컸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 문화원 사업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확장할 수 있도록 소개를 많이 시켜주셨어요. 공적인 문화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확장해 나갈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신뢰를 얻고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가장 큰 힘 중의 하나였습니다.

또 한가지, 상생과 상상에 대한 바람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기획한 남한산성 문화

제가 경기 관광축제의 대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문화원에 있는 많은 자료를 충분히 저희 식구들과 함께 읽고 그것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니까 탄탄한 이론적 기반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있는 자료들을 활용해서 청년들과 함께 다양한 신규 사업을 한다면 문화원과 청년들이 상생하는 그런 사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내년에 국립 아카이브센터가 생긴다고 합니다. 저희가 차근차근 살펴보니 아카이브센터가 하는 역할이 문화원이 하는 역할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만, 다른 점 하나는 서비스 방식에 대한 차이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개선한다고 하면 문화원이 새로운 발전 모델 중 하나가 지역 내 아카이브 역할이고 그것을 전문가들과 청년들과 함께 연구한다면 충분히 문화원이 전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기관에서 새롭게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좌장 /

세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동두천 생활문화센터의 최지호 선생님께서는 기관 입장에서 청년들과 협업하셨던 사례, 이런 과정이나 상황에서 문제 제기, 실패 사례를 통한 문제들에 관해서 말씀해주셨고요. 박도빈 대표님께서서는 기관이 혁명하기 앞서서 서로 이해하고 공존해야 하는 이유, 활동이 노동이 되기 위한 생태계 조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셨고, 세 번째로 남진우 대표님께서서는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협업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문화원의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발표자와 토론자들 간에 지정 토론이 있을 건데요. 지정 토론은 토론자들께서 토론을 원하는 분께 질문을 연달아서 해주시면 순서대로 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토론

서교송 파주문화원 사무국장 /

저는 파주문화원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 오면서 제가 버려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낯설어요. 나이 드신 분들과 이야기하다가 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어서 저 스스로 어색함을 느낄 만큼 이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문화원이 청년들과의 관

제가 어떤 곳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아까 발제하신 분이 문화원은 어르신들만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약간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도 있고 청소년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청소년 관련해서 두 군데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들이 청소년과 같이 연계되어있어서 청소년들에 대한 관계나 사업에 대한 이질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청년을 딱 대놓고 이야기하니까 청년이란 부분하고 그런 연계 되어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던 게 아마 컸어요.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이라는 것이 청년들에 정말로 중요한 것인지 학교에 가 있거나 아니면 직장에 가 있거나 꿈을 위해서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데, 기존의 문화원의 방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만나서 무언가 반영하거나 함께 하자고 제안할 수 있을까? 구세대 변명이라고 얘기한 그간 문화원에서 청년들에게 어떤 일을 같이 할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시스템인 단지 그런 것 때문에 반감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세 분 말씀 다 재미가 있고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들었는데요. 실무를 보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문화원에서 청년 활동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을 할 건지라고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세 분에게 질문을 한 개씩만 드리겠습니다.

Q. 문화원에 대해서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 해주셨어요. 다 새겨들을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원들이 청년과 일을 하면서 생긴 말씀하지 않으신 숨은 점점과 해결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청년들이 좋아하고 필요한 활동을 해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의 문제가 무엇이나면 문화원이 과연 그렇게 실험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약간 고민이 있어요. 어쨌거나 문화원은 공익을 위한 다수의 많은 분을 위해서 사업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어르신이나 청소년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가 되기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극복해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좌장님께 여쭙보고 싶은 것은 현실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관, 재단 등 다른 기관 단체와 협업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단체와의 협업, 협조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Q. 문화원과 청년기획자로서 사업을 출중하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을

보니까 자체적으로 중요한 것이긴 한데요. 문화원이 청년들과 결합했을 때 청년기획자들을 육성하는 수준에서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문화원에서 기존 프로그램이 있듯이 문화원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좋을지, 바깥에 있는 청년기획자들과 느슨한 행정적인 결합 형태가 바람직한지?

좌장 신희영 /

세 발제자분에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동두천 생활문화센터의 최지호님께 문화원이 청년과 일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신 숨은 점점들과 생각하고 계시는 해결책이 무엇인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최지호 /

실망을 드려 죄송합니다. 사실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파주문화원 사무국장님께서 토론문을 주셨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관돼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화원이 청년에게 맞춰야 하나? 청년은 몇 살까지인 거지? 헛갈리니까. 결국, 문화원의 존재와 청년단체든 개인이든 서로 득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 그렇다면 문화원 입장에서는 늘상 이야기합니다. 공모사업이든 자체 사업이든 그걸 정리하는 작업을 청년들과 단순하게는 단기 알바라도 할 수 있고 그것들을 예쁘게 디자인하는 청년에게 맞는 방식으로 가공하고 활용하는 것부터 문화원이 원하는 것부터 청년들이 실천을 해주고 청년들이 원하는 것도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나 비겁하게 생각을 하는 차원이고요. 나아가서 지역학. 대세잖아요. 빨리 해야 하고 이거는 문화원밖에 못 하는 겁니다. 지역학을 우리 어르신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트렌디하고 힙한 항목이거든요. 지역학 하는 사람들을 끌어와야 해요. 앉혀 놓고 계속, 이 지역에 가치에 대해서 니가 해석하고 전파해줘. 이런 식으로 계속 과학계 표시를 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좌장 신희영 /

다음으로는 동네형들 박도빈 대표님께 기관과 단체 협업이나 협조 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아주 많지만,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제가 발제문에 청년들이 지역에 소비되고 있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실제로 지자체나 지역의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요. 청년 이슈가 사회적으로 확장되고 정책들이 만들어지면서 청년 정책이나 청년들을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논의를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예산이 수립되었고 사업이 예를 들면, 청년 조례가 만들어졌고 청년을 지원해야 하니까 하는 상황들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물론 경험을 가지고 자기 콘텐츠를 가지고 활동하는 청년들한테는 뭔가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그냥 계속 소모되는 거예요. 지역에서 청년들이 무언가 처음 시작한다고 할 때 다들 응원하고 지지해주시거든요. 불러다가 같이 회의도 하고 주로 영상을 제작한다거나 디자인을 해달라거나 공연을 해달라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청년이 자립해야 하는 순간에는 같이 나누어 가질 자원도 없고 지역 안에서 새로운 경쟁자가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많은 청년이 지역의 활동을 포기하고 떠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기획자로 일하고 있다 보니 기획자의 결핍과 기획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결핍이 어디서 만나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책도 마찬가지고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서로 어디서 만날 거냐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역에서 청년들이 어떤 결핍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필요하겠지만, 제가 아까 토론 시작하기 전에 여쭙았던 게 문화원이 꼭 청년들과 만나야 하나? 청년과 같이해야 하나?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해봐야 하는 것 같아요. 지역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고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굳이 문화원의 미션일 필요도 없고 사실 문화원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위해서는 많은 논의와 준비와 같이 고민해야 하는 기관들과의 협업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세대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참여자이기 때문에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본질적으로 같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 지금 청년들이 평생 청년들도 아닐 것이잖아요. 생의 주기 관점에서 비어있는 단계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논의가 되어야 실제로 민간에서 단체들과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지 기존의 청년들을 지원하는 기관들과 정책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안 할 수도 있죠. 저는 안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좌장 신희영 /

마지막으로 남진우 대표님께 질문하셨습니다. 문화원은 청년들과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하는 게 좋을까였던 것 같은데 청년을 육성해야 하는지, 청년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지. 지금처럼 외부에서 활동하는 단체들과 느슨하게 활동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 지향해야 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남진우 /

제가 발표를 드리고 나서 생각한 것은 청년들이 조직에 속해 있는 경우도 있고 저희같은 경우도 있고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문화원 조직 내부에 들어가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왜냐면 지역에 대해서 이미 많은 정보와 지식과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 조직 내에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열린 생각이라든지, 사업 방향을 끌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청년 조직들과 함께 거리를 유지하고 서로 협력과 협조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제 입장과 경험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교육 프로그램은 제가 발표 중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문화원이 교육을 주로 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교육을 주로 하는 교육기관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했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되어있지 않고 많이 허술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 것은 현재 문화원이 갖고 있는 시점이나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추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제시 드린 것처럼 지역에 있는 선배들을 찾아서, 지역에 있는 하고 싶은 청년들을 찾아서 매칭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단순한 매칭이 아닌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원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인해서 뭔가 지역에서 하고 싶은 선배들을 모아서 조직들을 만들어주고 그 조직이 사업을 개설해나가고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청년상점 사업조성이 나름 의미 있고 신선한 방향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임민아 커뮤니티플랫폼 이유 /

안녕하세요. 저는 협동조합 커뮤니티플랫폼 이유의 임민아라고 하고요. 31개 시군 문화원에 다니면서 어떤 분들이 일하고 계시는지, 지역문화원에서 어떻게 주민분들과 만나고 있는지를 청년들의 시선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지역에서 26살 때부터 활동을 했어요. 물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역 활동을 한

것이긴 하지만, 고향이 부산이에요. 결혼하고 경기도 부천에 올라와서 활동을 막 시작했을 때 다들 우쭐쪼 해주는 것이 있었어요. 26살짜리 작은 여자가 지역에서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왔다 갔다 하니까 동네에서 어른들이 응원해주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39살이 된 지금도 잘 활동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협동조합 커뮤니티플랫폼 이유도 잠깐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비영리단체로 시작했다가 청년들이 어쨌든 먹고사는 문제도 이 활동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누구나 미디어 협동조합>이라는 법인을 만들게 되었고요. 대부분 청년이 미디어 활동을 통해서 시작하긴 했지만, 우리의 이웃 세대인 40~50대까지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면서 저희 사업이 미디어 사업에서 컨설팅이라던지 해외 공동체 사례 연구나 해외 사례 답사까지 가게 되는 코스도 짜서 함께 여행을 가고 다양한 포럼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직원분을 대학원에서 만났어요. 문화원에서 일하고 계신다길래 술자리에서 제가 지역문화원에 대한 제 이미지를 이야기했어요. 그 분이 절대 그렇지 않다고, 문화원이 지역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 해주시면서 정말 우리의 시선에서 문화원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업이기는 하지만, 동두천문화원도 만나게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을 자연스럽게 지역에서 만나고 있는데, 오늘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각 지역 문화원 관계자분들과 각각의 지역 내에서 끝장 토론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떤지. 직접적으로 주도해서 하기 어렵다고 하면 연합회나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서 판을 깔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청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 문화원과 함께 일을 하다가 이 일을 놓고 다른 꿈을 꾸게 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섹션 시작 전에 한 강의에서 앉아있는 분들 대부분의 연세가 제가 뒤에서 봤을 때 50대 이상인 분들이더라고요. 반응을 좀 봤는데, 차재근 선생님께서 한참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내가 애정을 가지고 이야기하겠다. 어쩌면 좀 아픈 소리일 수도 있다.”라면서 시작하셨는데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좀 거부감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끄덕끄덕하면서 본인들도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리액션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되기도 했다. 물론 그런 기회가 잘 만들어져야 하겠지만, 그런 때가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동두천 이야기를 들으면서 최지호 선생님께 물어보고 싶었어요. 문화원이 생활문화 센터를 운영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왜 청년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지?

왜 청년을 찾게 됐는지 에 대한 계기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이런 토론회에 간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청년들을 항상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 것에 사업에 끼워 맞추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뭔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이것을 돌파구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미 프로젝트를 다 만들어 놓고 여기에 청년을 끼워 넣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조금의 예산이 지원되고 문화원이 기회를 준다고 하니까 그 예산을 받아서 활동하는 활동비가 생기니까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문화원이 이제 청년과 무언가 손을 잡고 한다고 했을 때 백지에서부터 이야기하면 좋겠다. 정말 청년이 지역에 살면서 어떤 고민을 하고 뭘 하고 싶은지를 백지에서부터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게끔 문화원은 그런 판을 깔아주는 역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나 프로젝트 진행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청년들은 서툴러요. 여기 계신 박도빈 선생님, 남진우 선생님이나 저처럼 청년 활동할 때부터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청년들은 정말 서툴거든요. 예산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려나가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이미 행정이나 문화원이 설계한 사업에 청년을 끼워 넣는 구조가 아니라, 사실 너무 웃긴 게 헵치 거버넌스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는 헵치와 거버넌스도 위에서 내리쬐는 형태이거든요.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청년들한테도 정말 거버넌스가 뭔지를 이야기하고 싶으면 문화원에서 백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함께 탑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원이 같이 일을 하는 파트너로 동료로 만났는데, 청년들을 내 아들, 딸 같다고 하면서 딱 까놓고 이야기해서 허드렛일 시키는 거죠. 내가 저 일을 하면 허드렛일인데 저 일은 청년들이 해야 한다고 하면서 딸, 아들 같은 청년들에게 허드렛일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일적인 면에서는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31개 시군 문화원 다니면서 느낌이 어땠냐면, 기존에 만난 기관들과 만났을 때와는 느낌이 많이 달랐던 게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녁 늦게까지 고생하는데, 밥이라도 먹고 가야 하는데, 우리 가지고 있는 선물이라도 하나 챙겨줘야 하는데” 이러면서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정이 들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에게 힘이 되어

줘야겠다는 문화원에 계신 분들의 에너지를 받았습니다. 앞서서 최지호 선생님이 동두천 이야기를 쏟아내시면서 동두천의 문제라고 하셨지만, 저는 기존의 문화원을 지키고 계셨던 어르신들 지금 새롭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청년들을 포함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이 좀 성찰하고 역량을 키워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재근 선생님도 아까 말씀하셨어요. 과거의 단상에서 좀 벗어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쭙보고 싶었는데, 문화원에서만 노력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문화원과 같이하려는 청년 세대들도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 청년들한테 예산이나 기금으로 공모사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관계가 아니라 지역에서 내 이웃 세대, 부모님 세대이신 거잖아요. 이웃 세대와 자주 만나서 안면을 트고 안면이 확장돼야 이야기도 편하게 할 수 있고 뭔가를 같이 꿈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문화원에서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박도빈 선생님이 처음에 마을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마을이라고 하면 아름답고 훈훈하고 그럴 거라고 기대하고 들어갔다가 환상이 깨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굉장히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사는 곳이 마을이거든요. 문화원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깔아 놓고 이야기를 시작해야지. 이 아름다울 것이라고 기대하고 시작하게 되면 첫발부터 힘든 거죠.

청년들이 왜 혼자 카페에 있지? 저는 직장 그만두고 나서 한참 혼자 일을 할 때 실제 내가 내 공간을 운영하고 싶고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공간을 운영하고 싶은데 당장 돈이 없는 거예요. 없어서 고민하던 차에 조직에서 손을 내밀어 주셨는데,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말들이 많았어요. 저는 지역에서 싸움꾼, 블랙리스트였거든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죠. 저들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면 저 목소리가 더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이냐. 그런데 중간에서 경기문화재단도 그랬고 지역의 활동가, 문화 예술인들이 그런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도록 옆에서 손을 잡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굉장히 지지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청년들이 지역에서 어떤 목소리든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용기와 지지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진우 선생님한테는 PPT를 보면서 저랑 같이 일하는 청년들한테 이 PPT를 보여줬으면, 저는 못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너무 어마무시한 프로젝트인 것 같기도 하고 저 정도 축제, 기획을 운영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고 그 예산을 잘 기획해서

운영하는 것도 엄청난 능력인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본인의 개인기로 잘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청년들에게 실제 지역에서 기획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 건지 이야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도빈 선생님은 워낙 잘하시니까 경기도에 있는 청년들이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한테 가서 기획을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배워오는 기회를 만들어보면 좋겠다. 제가 영상 콘텐츠를 만들면서 저희도 물론 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규모나 사업 규모에 따라서 콘텐츠 제작팀을 달리 운영하고 있어요. 문화원과 같이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 콘텐츠가 굉장히 빠까뻔쩍하지 않아도 된다. 청년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는 B급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회를 주는 우리 협동조합 청년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 뭔가 B급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연합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희 협동조합이 내년에는 사례 발표를 좀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장 신희영 /

시간상 최지호 선생님께서 왜 청년을 찾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최지호 /

첫 번째가 제가 기획하던 일이 청년들과 하던 일이었고, 두 번째는 저는 청년이 지겹습니다. 청년이라는 단어가 지겹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청년문화 이런 것에 관심 없고 지역이 변화해야 한다는 거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윗세대들을 다 싸잡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동력은 청년에서 나오지 않냐는 이런 당연함이 있었던 것 같고 이것이 계속 어떤 의견이든 전파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단,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어려도 정말 끝대 같은 청년이 있고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청년 같은 어르신이 계세요. 나이의 청년이 아니라 변화에서의 청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로어 토론

이천문화원 000 /

청년에 있어서 저도 관심이 많고 청년들을 유입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교육을 받고자

왔습니다. 이천에는 헬프리카유티브,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노래 등으로 어르신들과 청년이 협동하는 사업을 주로 했었고요. 이천에 지역을 벗어나서 수도권이나 서울로 많이 가는 지역 청년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소규모 청년단체들을 찾아서 동아리로서 흡수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이 자리에 같이 오신 것만으로도 청년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고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두천생활문화센터 000 /

결론적으로 대학원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 중 하나가 올해 8월에 대학교 졸업했어요. 4월부터 본격적으로 근무를 시작하게 됐는데, 졸업하기도 전에 일하게 되어서, 사실 문화원이라는 곳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동두천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는데도 문화원이 뭐지? 하면서 원서를 쓸 때야 찾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기도 했지만,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아직 어려서 몰라” 혹은 “내가 안 해봐서 그래” 이런 말들이 제 사기를 너무나도 꺾었어요. 제가 일단 부딪혀보고 실패를 해도 저 스스로 느껴보는 성향이 좀 큰데, 저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란 것은 알지만, 그런 점들이 내가 여기서 더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차라리 내가 무기를 장착해서 다시 돌아와서 아예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판단하에 대학원은 선택하게 됐는데요. 문화원이나 생활문화센터에서 생활했던 점들이 아예 안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점들이 지속적으로 있기에는 힘든 상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광주문화원 000 /

오늘 세 발표자분의 내용을 들으면서 많이 공감했구요. 또 발표에 대한 파주문화원 국장님에 대한 고민에 대해 공감했거든요. 남진우 대표님과 협업하고 있어서 많이 믿고 의지하고 가고 있지 않나. 우리는 3년 안에 망한다는 주제로 무언가 한다고 했는데, 5~10년 안에도 망하지를 앓고 크게 별지 않아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시각으로 대견함과 명분을 같이 갖고 있어요. 동네형들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이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중엔 민생고 때문에 결국은 떠나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청년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려면 문화원과 손을 잡든지 다른 기관과 손을 잡든지 쏠어지는 지역을 위해서 기반을 닦고 활동하려면 공모사업이 최소한의 민생고라도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방법은 모르겠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비영리단체로 8년 동안 운영하고 앞으로 비영리단체로 운영할 것 같고요. 작년, 재작년부터 좀 큰 규모 행사나 이런 기획 요청들이 있어서 따로 영리 업체를 분리해서 가지고 있긴 해요. 행정적 필요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술신(scene) 안에서도 청년예술가들을 지원해야 하느냐에 있어서 청년예술가들의 문제는 청년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술가들이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이고, 그러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도 마찬가지인 거죠. 본인이 일이 아니라 활동이라는 관점에서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동으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입장이 있어서 이걸 구조적으로 총체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저는 일은 기획자로 많이 하고는 있지만, <동네형들> 하기 전에는 시민단체에서도 일해서 활동가의 정체성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동네형들>에서 하고 있는 큰 축은 시민 없는 시민운동에 대한 고민이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새로운 세대들이 참여하려면 좀 더 쉽고 재미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활동하고 있는 건데, 비영리단체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는 조직인 거잖아요. 대부분 사업이나 컨설팅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컨설팅이 되는 거죠. 비영리단체에 자생과 자립을 계속 요구하는 게 맞느냐는 고민이 있고, 시민사회 협력이 자생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기획자도 그렇고 활동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40대 활동가들이 거의 없어요. 30대는 더욱 없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것도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지역에서 활동도 사실은 지역에서 일로서 접근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의 활동을 고민하는 분도 있겠지만, 계속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소비되고 소모되고 아예 지역을 떠나는 것보다는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원사업의 형태가 아니라 공적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고 같이 갈 거냐를 고민하거나 기본 소득도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기존 방식으로 계속 경쟁시키고 평가해서 3년 공모 사업하면 더 못 주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5년, 10년 공모사업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구조를 인정하고 그다음 단계로 고민을 넘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 바탕에는 지역에서 청년 활동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게 지금까지의 결론이예요. 이렇게 나와서 발표를 하거나 이미 들어보셨을 단체들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 기획자들이 잘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임민아 /

지역 활동하면서 그런 사례를 만들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청년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전문성을 일단 확보하고 공부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법인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청년을 대상으로 어디든 가서 본인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받아왔어요. 본인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지역에서 네트워크 하면서 어떤 청년이 있는지 알 게 만드는 것. 각종 포럼이나 네트워크 모임을 만들면서 계속 청년들을 앞세웠어요. 이런 사람이 지역에 있습니다. 이 청년이 지역에서 먹고 살 수 있게끔 동네에서 도와주세요. 각종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홍보 예산도 엄청나게 많고 그런 것들을 영리 기업에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역에서 활동하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줘라. 경기도에 정책 축제에 나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쨌든 이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지역에 사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자꾸 퀄리티 높은 보기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가들에게 예산을 쓰지 말고 지역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예산을 지원해줘서 청년들이 먹고사는 문제도 해결하고 그걸로 돈을 벌어서 본인이 또 지역에 환원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 저희가 부천시에서 만들어 가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자꾸 청년을 이야기할 수 있는 판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지호 /

한 가지 국장님 발제에서 봤던 건데, 문화원에 전통문화라는 단어가 고루하다고 느끼기 쉽잖아요. 여러 가지 트렌디한 부분을 보면 굉장히 강점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청년의 먹고사는 문제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중년의 먹고사는 문제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거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다. 그거를 연결하는 지점, 연결하는 역할은 문화원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좌장 신희영 /

문화원이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서교송 /

오늘 너무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문화원도 굉장

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문화나 지역학 등 문화원만의 강점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뗄 수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원하는 포럼 활동을 하고자 하는 젊은 분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서 그분들이 문화원 내에 들어와서 문화원과 연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이끌어 나가야 하는 저희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좌장 신희영 /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지만, 이런 자리들이 자꾸 이어져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오늘 제2섹션에 참여해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 백

제 3 섹 션

제3섹션

어르신문화사업과 신중년, 그리고 지방문화원

본 섹션에서는 베이비 붐 세대가 대거 노인인구에 편입되면서 나타난 '신중년'세대를 위한 문화 사업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노인복지관에는 가고 싶지 않은, 그러나 청년들 틈에 끼 수도 없는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신중년 세대를 위한 문화공간은 어디인가. 지방문화원에서는 신중년 세대의 지역 내 주체적 문화 활동을 위해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가. 현재 지방문화원 대표프로그램인 어르신문화사업에 대한 비판적 검토도 아울러 토론하고자 함

좌장: 박정근(의정부문화원 사무국장)

• 취지

제 21회 경기도 문화가족 합동 연수와 함께 하는 지속발전가능한 문화원 만들기 액션 토크 제3섹션입니다. 어르신문화사업과 신중년, 그리고 지방문화원이란 주제로 토크 장을 열어볼까 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3섹션의 좌장을 맡게 된 의정부 문화원 사무국장 박정근입니다.

본 섹션은 그동안 문화원의 주요 타겟이자 주이용자였던 어르신 세대와 새롭게 등장한 신중년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인구로 대거 편입되면서 등장한 신중년 세대는 노인복지관에 가기엔 너무 젊은 나이이고, 청년이라고 할 수가 없는 중년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신중년 세대는 문화를 향유할 여유와 의향이 있으나 정작 그들을 위한 문화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형태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과연 지방 문화원은 이러한 신중년 세대를 위한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 온 어르신 문화 사업에 대해서 돌아보고, 외부에서는 어떻게 어르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중년 세대를 맞이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김재순 본부장님과 한국문화원연합회 송은옥 차장님께서 발표를 준비해주셨습니다. 토론자로는 어르신 문화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계신 오민영 사무국장님이 자리해주셨습니다. 오늘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서 어르신 문화사업과 신중년, 그리고 지방 문화원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순서는 모든 발표자 분 두분이 발표해주시고, 토론자와 발표자의 질의응답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객석에 계신 분들과 함께 플로어토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순서를 할까 합니다.

오늘 먼저 자리해주신 분들 잠깐 소개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김재순 본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송은옥 차장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평택문화원의 오민영 사무국장님께서 자리해주셨습니다.

먼저 노인문화예술 교육 사업 추진 방향 및 지방문화원 협력 가능성, 그리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차원의 어르신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추진 방향과 내용에 대해 소개해주시고, 지방문화원사업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실 김재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본부장님의 발표를 큰 박수로 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주제

노인 문화예술교육 사업 추진방향 및 지방문화원 협력 가능성

김재순(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본부장)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시민교육본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재순이라고 합니다.

시민교육본부는 문화교육사업 전체 영역 중에서 주로 사회문화예술교육 학교 밖에 있는 모든 국민들 대상 사업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 받은 주제는 어르신 문화예술교육, 그리고 최근에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신중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면서 향후에 어떠한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지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들은 것은 강의나 긴 발표보다는 짧게 주요 주제들을 이야기하고 이후에는 같이 토론하는 자리를 갖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고 토론 주고받는 자리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어르신과 신중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참고로 가져와봤습니다. PT에 있는 것은 자료집 원고에 쓴 것을 요약한 것이니 원고 보기 힘든 분은 앞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한국의 인구변화에 관련한 주요 수치 자료인데요, 위에 있는 것 보시면 다 아시는 것처럼 인구 변화의 예측을 해보면 2026년부터는 초

고령 사회 본격 진입하게 된다, 이때부터가 노령 인구가 20%가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초고령 사회라고 붙어 있고요. 밑에 있는 것 보시면 이 단어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구 오너스기에 진입한다. 오너스라는 것 들어보셨죠? 생산 활동 가능한 인구, 20세부터 64세 인구가 충분한 시기를 오너스기라고 하는데 우리 인구 변화를 향후 예측해보면 2031년부터 인구 오너스기다. 생산 가능한 인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봉양해야 할 인구들이 더 많아지는 시기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실제 이거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016년에 발표된 제3차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옆에 수정이라고 표시해놨죠. 작년 말에 또 한번 수정되어서 발표가 됐어요. 5년 주기로 발표하고 있는 계획이 매년 인구변화에 따라서 사회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도 매년 수정된 계획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발표된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박스에 있는 내용은 아시는 내용일 테고요.

밑에 있는 내용 보시면 첫 번째 것도 주목할 만한 것인데, 노인 빈곤률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노인들의 경제적인 여건들이 OECD 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평균이 2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매우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고요. 신중년층의 문제도 여기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계획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주로 다뤄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아지게 될 신중년층에 대한 계획들은 담겨 있지 않다, 그 부분들을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이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자의 사회 참여, 60세 이상 인구의 활동 능력 인구라고 하는 것은 60세 넘었음에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들은 약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실제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에서 참여할 수 있는 수는 30만 명 내외. 활동할 수 있는 인구 대비에서 실제 지원되고 있는 일자리 수는 부족하다. 그러다보니까 1만하고도 연관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가 예방적 건강관리 및 아름다운 마무리. 고령 노인이나 치매노인,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참고할 수 있는 거고요.

혹시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2018년 5월에 문체부에서 문화비전 2030과

새 예술정책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새정부 들어와서 중장기적인 문화 비전을 발표한 건데요. 이 자료에 보시면 앞간에 인구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나온 내용들 요약 발표했습니다. 은퇴 후 인생이모작을 준비하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문화예술정책단에서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밑에 있는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예술 치료, 그리고 여가 시간을 활용한 문화 예술 교육,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그다음에 경제적 여유와 자격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문화 활동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문화예술정책에서도 이 연령대를 고려할 때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작년 자료에 언급이 되어 있었구요. 이것들을 바탕으로 보시면 신중년 세대 참고로 하고자 가져왔습니다. 이 자료는 2020년 한국의 트렌드 관련된 보고서에 여러 번 나와 있는데 그중에 한 보고서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보시면 오팔세대라는 게 열 가지 핵심 키워드 중 하나로 들어가 있어요. 오팔 세대의 의미는 뭐냐. 5060 신중년 소비자들을 말하는데 신노년층이라는 걸 영어로 썼을 때의 약자로도 의미하고요. 베이비부머 세대 딱 중간층에 해당할 수 있는 58년 개띠를 언급한다고도 합니다. 오팔이라고 하는 보석도 의미한다고도 해요. 오팔 세대가 앞으로는 중요한 세대로 자리 잡을 것이다. 오팔 세대의 특징은 무엇이나, 새로운 일자리에 계속 도전을 한다. 은퇴 이후에도 제2의 경제적 활동을 모색하는 사람이다. 활발한 여가생활을 즐긴다.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형성한다. 매우 다양하고 까다로운 소비자다. 자기 취향이 확실하기 때문에 자기 취향에 맞는 여가나 소비를 즐긴다는 게 오팔 세대의 특징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존 정책이나 트렌드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언급한 것이고, 책에도 이 내용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부터 노인 관련된 문화 예술교육 사업을 시작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표에 다 넣어놨습니다. 유아, 3세부터 5세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부터 아동 청소년, 청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략 비중을 보셔도 아동 청소년 사업이 많죠. 아동청소년이 사실 전체 사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사업은 사회문화예술교육만 봤을 때 10% 정도. 아직 예산상 사업 규모상으로는 크진 않아요. 위

낙 학교 문화예술교육 안에 아동청소년 지원하는 예산이 크다 보니까 그쪽 비중이 크긴 한데, 앞으로는 저희가 이번 것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는 맨 마지막 쪽에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노인 사업들, 대표적인 사업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인 복지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가장 오래된 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저희가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전국에 350개 정도 노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00노인 종합 복지관 이런 데들. 거기에 저희가 여기 있는 것처럼 무용이나 미술, 사진, 연극, 음악 이 다섯 개 분야를 복지관이 신청을 합니다. 저희는 미술을 하고 싶다 신청하면 저희가 접수를 받고 그 분야에 맞는 예술 강사를 선발해서 확인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 교육 진흥원이 노인종합복지관 협회에 예산을 기부하고요. 여기서 강사와 복지관을 매칭을 해줍니다. 1년동안 한 프로그램당 35주짜리 프로그램으로 다섯 개 분야중에 신청하는 분야 중에서 파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규모가 250개 시설에 지원이 됐고요. 연말에는 청춘제라는 것까지 개최해서 지난주에 상암동에서도 축제했었는데 전국에 있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축제 형태로 공연이나 전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노인 영상 미디어입니다. 이거는 주제가 특화되어 있어요. 영상 미디어. 이게 요즘 미디어, SNS, 유튜브가 트렌드잖아요. 어르신들도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시범 삼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 미디어 활동가 및 노인 영상동호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국 미디어센터협의회라는 곳과 연계해서 전국에 보면 지역 미디어센터가 곳곳에 있어요. 거기서 어르신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12개 지역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작년하고 특히 올해 들어 강조하는 것은 1인 방송이 가능한. 유튜브 같은 경우 실제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개인 방송까지 개설하는 것들도 이 과정 안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이것들이 어르신들이 관심이 있고 호응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상이군경문화예술교육이라는 게 또 있어요. 상이군경이라는 말이 생소하기도 할텐데 국가유공자들 계시잖아요. 국가유공자들이 전국에 보훈문화복지대학을 주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여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문화 프로그램 제공하고 있습니

다. 저희가 이거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와 협력을 해가지고 여기서 보훈문화복지대학 전국 17개 시도에 하나씩 있거든요. 거기에서 수요를 받아가지고 그 수요에 맞는 단체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년 단위로 최소 10회에서 길게는 30회까지 1년 짜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 예방형 치유프로그램입니다. 아까 앞에서 새 예술 정책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예방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한 번 강조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치매 예방입니다. 치매에 걸린 어르신 보다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치매 예방 및 위험단계라고 증상을 받으신 분들 대상으로 특화된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집에 보시면 올해 지원되는 기관들 현황을 넣어놨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대상을 지역에 있는 문화 기반 시설이라고 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문화원, 문화의 집, 박물관, 미술관 이런 식으로. 표에도 보시면 문화원이 3개 기관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좀 관심 갖고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원대상은 경도인지장애라고 증상을 받으신 어르신이나 가족들, 치매위험군이라고 판단되는 분들의 노인들이나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국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와 문화기반시설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방식이 좀 독특해요. 앞에 있는 사업들은 예술 강사, 혹은 문화 예술 단체들이 알아서 예술 교육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섭외해서 진행하도록 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강조해놨습니다. 예술치료사와 슈퍼바이저까지 반드시 같이 참여 인력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치유 프로그램 자체는 일반적인 문화 예술 체험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인 설계가 들어가줘야 된다. 일반적인 체험으로 가기에는 다소 위험군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슈퍼바이저와 예술치료사라는 분들까지도 같이 참여 인력으로 구성해서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역에서 이런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올해 진행되는 것들도 내용을 안내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문화원에서도 참여를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문화재단 산하에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

센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쉽게 말하면 자율제안사업이에요. 그래서 운영단체, 예를 들면 문화원이 우리 지역의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고 제안을 하시면 그 내용을 보고 선정이 되는 방식입니다. 특정하게 어떤 대상이나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대상과 프로그램과 장소를 정해서 신청하시면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면 1년 단위로 프로그램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매년 300개 정도 단체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어르신과 신중년 사업이 34개 정도,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각 지역에 있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기관들의 내용들을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문체부가 광역 자치 단체로 예산을 교부하고 여기서 광역 센터로 다시 교부하면 여기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같은 경우는 협력 관계로 지역 단위의 컨설팅이나 모니터링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여드린 다섯 가지 사업이 지금 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인 관련 문화예술교육 사업입니다.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2009년부터 11년까지는 한국문화원연합회와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문화기반시설 연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게 그 이후에는 다소 끊기고 협회와 연계하기보다는 주제별 사업에 관심 있는 문화원에서 참여하고 계신데요. 향후에 어르신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이따 논의도 하겠지만 필요한 제안이라든지 협력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질문 주시면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쪽 5개 사안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5가지 사업이 다 주체가 정해져 있거나 시설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시면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양로원도 있죠. 경로당도 있죠. 노인복지주택들도 요즘 있어요. 공동생활가정들도 있고. 정말 다양한 대상들이 지역에 있는데 중앙에서 진흥원이 하고 있는 사업들은 정해져 있는 시설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필요로 원하는 분들이 참여하기에는 아직 한정된, 다소 아쉬움이 있는 구조입니다. 뒤에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개선해나가려고 하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제로 들어가 있었던 신중년 관련된 사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작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신중년 세대에 대한 것들이 이슈가 됐죠. 서울에서도 50 플러스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사업들을 펼쳐나가면서 신중년의 키워드가 관심

갔게 했습니다. 2017년에 신중년 문화예술교육 기초조사라는 것을 진행했고, 작년부터 시범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중년 사업 특징은 2017년에 조사가 됐던 내용입니다. 아시는 내용 있을 수 있지만 쪽 한 번 보겠습니다.

신중년 세대의 특징은 뭐냐. 한국 전쟁 이후에 출산율이 급증한 시점에서 출생한 50세부터 64세를 일컫는다. 이들의 특징은 높은 교육 수준, 그리고 비교적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금의 시점에서는 자녀와 부모를 부양해야 되고, 은퇴 후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세대들이다. 자녀들이 딱 독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족들의 축소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의 사무직에서 다른 업종, 자영업이나 임업, 농업, 어업 등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따가 여쭙볼게요. 과연 이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우리 지역에 맞는 특징인 건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을 두 가지 키워드로 연구 정리했었어요. 첫 번째는 끼인 세대. 전쟁과 빈곤부터 민주화를 겪으며 경제성장, IMF까지를 다 겪었고, 그다음에 기존의 대가족 세대에서 핵가족까지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세대. 그다음에 부모 봉양과 자신은 부모 봉양을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스스로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세대입니다. 양극단을 다 겪고 있는 세대들을 신중년 세대이자 끼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액티브 시니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65세 이상들을 시니어라고 표현을 할 때 반대적으로 보이는 표현인데요. 능동적인 삶을 추구하며 소비 수준이 높다. 자기가 원하는 거에 기꺼이 소비할 줄 아는 사람이다. 꾸준한 건강관리와 교육, 여가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봉사 활동도 참여하고 있다. 대중문화에 대한 수용력도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다양한 문화예술공연들이나 활동들을 즐길 수 있고 TV나 영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즐기고 있는 세대라고 합니다. 두 가지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저희가 2017년 연구를 하면서 실제 신중년 세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한 그룹,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들, 이 그룹들을 조사해봤을 때 공통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이 이런 요인이었습니다. 문화 예술 교육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려운 점이 무엇이나. 첫 번째,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자녀 양육이나 부모 부양에 따른 책임 때문에. 자기의 경제적 활동도 계속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그런 경제적 활동들을 병행해야 되다 보니까 여가시간을 찾아가서 누리기가 어렵다. 경제적인 부담과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제약 요인들로 나타났고요.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활동을 계속 해보고 싶거나 할 수 있는 요인

들은 뭐냐. 가족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참여한 분들과 함께 즐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문화예술교육에 중점을 두는 활동이다 보니까 강사가 재밌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지금은 65세 이상이 되셨는데 최근 2~3년 지역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많이 찾아다니세요. 문화원도 많이 다니시고 복지관도 많이 가서 하모니카, 합창, 서예 이런 걸 많이 배우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1번이 이거였어요. 어머니들 카톡방이 있대요. 거기서 A강사가 잘한다 하면 그쪽으로 몰려가고 이분이 문화원에 내년에 한다고 하면 문화원에 가서 듣더라고요. 이미 커뮤니티가 참여자랑 형성된 상태에서는 강사를 따라가는 걸 저희 어머니 통해 볼 수 있었어요. 이런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얻고 싶은 기대요인은 무엇이나라고 신중년 세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삶의 질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동안 그냥 우리 가족, 부모님, 돈 벌기 위해 살았던 게 조금 더 나를 위한 삶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예술적인 부분들을 제대로 즐겨보고 싶다는 게 있었어요. 여기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진지한 여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분들 얘기하면서 나왔던 게 아까 말한 것처럼 나를 잊고 살았던 세대에서 이제는 나를 발견하고 싶다, 진정한 나를 찾아보고 나를 누리고 싶다는 게 많은 단어로 나왔었어요. 두 번째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관계망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친하게 잘 지내면서 내가 사회생활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를 발견하는 것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 이것들이 문화예술교육에서 얻고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과 비교해서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문화원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복지를 하고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프로그램을 찾아가는 이 세대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부분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비교해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앞에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년부터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생애전환기, 50세에서 64세의 중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범 사업이어서 두 가지 방식으로만 진행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지역 연계형이라고 해서 광역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와 협력을 해서 광역 지역별 특성에 맞게 센터들이 자기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다섯 개 지역에서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자체사업기획형이라고 해서 진흥원이 직접 전문가들과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학과로 한

달 살아보기. 한 달 동안 이 프로그램 딱 한 달만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는 작가와의 만남, 작가들과 책을 보기, 책에 관련된 현장을 가보기, 마지막에는 나만의 글을 써보기. 이런 식으로 한 달 동안 문학이란 것을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요. 자연과 함께 한달 살아보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생태가 노작, 노작이란 건 실제 체험들을 해보는 겁니다. 명상 시간을 갖는 것도 여기 있고요. 품격 있는 고난이라고 해서 연극이나 사진 같은 것들을 배워보는 작업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실제 신중년 세대들이 다섯 명 이상 서로 팀을 짜서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프로그램 참여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진흥원이 직접 하거나 광역 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시범 사업 단계다 보니까 내년까지는 이 트랙으로 갈 것 같아요. 진흥원이 직접 참여자를 모집하거나 광역 센터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참고로 내년에도 올해까지가 예산이 4억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10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만큼 정부차원에서도 신중년 세대들을 위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들이 있는데 현재 예산 규모로는 직접 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향후에는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연계해서 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올해 이 사업 결과가 있었는데 결과집 나오는 것들을 참고해보시면 향후 문화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5가지 원칙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획하시는 분들과 참여자에게 공유하고 있는 5가지 원칙입니다. 생애전환 문화예술 학교라 함은 전환의 기술을 배운다. 그 다음에 참여자들이 스스로 배우고 자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강사가 앞에서 가르치는 것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방식들만 제안해주고 참여자들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강화한다. 프로그램 끝났다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인 사람들이 함께 자기들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직접 행함과 고난, 그냥 앉아서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 자기 몸을 통해서 해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연극이나 사진, 생태도자기 이런 이유에서 해본 겁니다. 단순 강좌형은 여기서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일자리 창출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거는 정보 사업의 문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일자리 창출사업이면 실적을 강조하잖아요. 일정의 숫자를 내야 되고 반드시 이분들이 어떤 활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그게 아니라 오로지 이 활동들

에 집중해서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가 현재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다섯 가지의 노인문화예술교육 그다음에 신중년 관련 시범 사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진흥원이 문화예술교육 관련해서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참고삼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월에 작년에 저희가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거기 핵심으로 담겨 있는 삶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교육이란 게 비전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추진 전략을 세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지역 기반 생태계를 구축한다, 수요자 중심 교육을 다각화한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교육의 기반을 고도화한다. 상징적인 것은 첫 번째의 추진 전략 1번이 지역 중심이라는 겁니다. 본래의 중앙에서 진행하던 방식에서 각 지역, 더 구체적으로 기초생활권 단위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자발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해나가겠다는 것을 작년에 발표한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이런 저런 일들이 1월부터 진행이 됐어요.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위원회도 구성하고 연구도 하고 이런 추진 단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있었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여기서 나온 핵심 세 가지입니다. 수요기반이란 걸 첫 번째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현장의 수요 대상의 특성을 입체적으로 고려한 사업을 개편하겠다. 저희가 이 사업 구조가 어떻게 개편될지는 내년 상반기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진흥원 사업 구조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개편해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개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내년에 발표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거기서 핵심은 수요기반으로 간다. 그리고 생활권 중심. 특정 계층 중심 사업에서 저희가 보편적인 문화예술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원체계를 만들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진흥원 사업들은 앞에도 소개해드렸지만 대상이 이미 거의 정해져 있어요. 노인문화예술교육, 장애인문화예술교육, 군부대문화예술교육 대상을 정해서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남양주 문화예술교육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에 있는 주체들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은 어떠한 사업과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들을 스스로 짜는 방식이 되겠죠. 지역이 지역에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을 스스로 계획을 수립해서 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부분들이 수요 기반과 생활권 중심에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반 강화는 기관의 역할인 건데 전문 인력들을 어떻게 계속 양성해나갈 것이며 연구를 통해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넓히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인사업 같은 경우에도 앞에 다섯 가지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현재 시설별 강사 파견

방식에서 향후에는 지역 사회 중심의 유관 기관 협력 체계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앞에 보신 것처럼 노인복지관 지원하고 치매 안심센터 지원한 방식에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었잖아요. 지역에서 활동한 주체도 문화원을 포함해서 다양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서로 협력 체계를 가지고 노인들에게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바꿔갈 계획이고요. 신중년 대상으로는 아직 올해 2년차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여건과 취향을 고려한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집중할 것 같고, 그 이후에 3년차 이후에는 지역과 연계해서 확산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옆의 표는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텐데 문화예술교육을 참여하는 대상들을 유형화 해본 겁니다. 첫 번째 이 축은 문화예술교육을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 축이고요. 여기는 문화에 관심도 없어. 뭔지도 몰라. 이 축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의지 빼고 경제적, 신체적, 지리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은 여기 있습니다. 의지도 있고 상황,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백화점에 있는 문화센터라든지, 평생교육학습관이라든지 문화원에도 이런 분들 계시지 않을까요. 빨간 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경제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찾아가는 방식이거든요. 노인문화예술교육은 중간에 걸쳐 있습니다. 노인 복지관 이런 데를 찾아가게 되는 거고요. 신중년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정도에 걸쳐 있습니다. 문화원이 이런 트랙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 참여 범위를 어떻게 넓힐 것인가는 오늘 중요한 이슈는 아니겠지만 참고로 표를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 제안 드릴 것은 협력을 제안 드리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대해 실질적인 것, 참여자 분들 생각도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설 중심의 지역 연계로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역 유관기업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역할 확장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중앙과 광역에서 예산이 뿌려지면 문화예술단체가 지원받아서 하거나, 아니면 지방 문화원처럼 문화기반 시설이 자기 프로그램을 하거나 다 따로따로예요. 각자 프로그램하고 끝나는 방식입니다. 전형적인 중앙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에 따른 공급 방식인데요. 향후에는 이런 식으로 지역 안에서 이런 관련자들이 관계망을 구축해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서 필요로 한다고 할 때 문화원이 중심이 되어서 필요한 것을 서로서로 공급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들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시설 중심에서 지역 사회로 역할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어르신에서 지역주민으로입니다. 사실 오늘은 어르신 문화예술교육, 신중

년이라는 주제로 얘기하고 있지만 앞에 1섹션 기초 발제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지방 문화원 혹은 지역에 있는 시설들한테 요구되는 것들은 특정한 기능들보다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문화 공간으로서 다양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역할을 확장해야 하지 않는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문화예술교육 안에서도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내년부터 하게 될 게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지원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게 될 예정이에요. 과거에 기초 센터라는 걸 지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내년에 시범으로 하게 됩니다.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이라 함은 우리 공간, 청소년 수련관 여기서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남양주 전체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하고 확장할지를 고민하고 주축으로 움직이는 기관을 저희가 내년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밑에 있는 게 뭐냐면 올해 이런 논의들이 지역별로 많이 벌어졌어요. 인천에서는 인천 문화 재단이 모든 구 단위를 돌면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했었고, 전남에서도 전남재단이 이런 자리를 진행했습니다. 동작에서는 동작구문화재단이 이런 논의를 진행했었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각의 우리 기관들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논의들도 진행이 될 것이고 내년에 실제 시범사업도 진행을 할 것이니까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고민하고 있는 문화원이 계시다면 내년 그 사업도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특화라는 건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지역별 인구 규모, 밀도도 다르죠. 지역별 재정 여건도 다릅니다. 지역별 문화기반 시설수도 다 다르죠. 작년에 나왔던 지역문화 실태조사 문화원에서 했던 것인데 문화 정책에 대한 수준도, 지역 문화 자원 활동, 향유에 대한 정도가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중앙에서 어떤 사업 하나로 내린다고 해서 지역이 다 수용할 수 없어요. 아까 신중년 사업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9월 달에 신중년 사업을 소개해달라고 해서 갔었어요. 전라북도 완주군이었습니다. 거기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완주군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신중년이 신중년이 아닌 거죠. 한창 일하는 청년 세대들인 거예요. 50세에서 64세라고 하면 가장 열심히 일하는 분들인데 신중년이라고 하니깐 공감대가 안 되거든요. 사실 자료집에 썼지만 신중년이라는 프레임은 도심권, 사무직들에 대한 프레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은퇴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경기도도 지역별로 아마 다를 겁니다. 우리 지역에 50세~64세가 많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신중년이 아닐 수 있다. 결국 저는 우리 지역 대상들의 수요는 우리 지역이 제일 잘 알고 있고, 그거에 맞게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특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우리가 조사해서 기획해서 갈 수 있는 방식으로 문화원이 이런 것도 같이 기획하고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 신중년이라는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도 익혀야겠지만 지역에 대한 사업들은 지역에서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마지막에 협력 제안이라고 드린 것들은 제가 오늘 가면서 제안을 드려보는 건데, 현실적으로 어떠한지는 이따 한 번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박정근 /

문화원에서 오신 분들이 문화원을 중심에 두고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비교해 들으시니까 느낌이 어떠신지 이따가 다시 한 번 얘기 나눠보겠지만 지금 들으면서 궁금하신 거라던가 우리하고 다르거나 맞는 부분들 메모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순 본부장님께서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변하고 있다는 부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신중년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과 더불어서 그에 맞는 교육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 설명해주셨구요.

그 다음 문화원이 앞으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제안도 주셨는데 그 부분과 맞물려서 지금까지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어르신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그 사업 전체를 계속 지켜봐 오신 산 증인이시죠. 한국문화원연합회 송은옥 차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해서 나중에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옥 차장님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문화프로그램과 신중년, 그리고 지방문화원

송은옥(한국문화원연합회 차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문화원연합회 송은옥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르신 사업에 관심이 많지 않은 가봐요. 전체 인원수에 비해서 많지 않아서 약간 서운하지만 어쨌든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앞으로 어떻게 어르신 프로그램이 지속 발전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06년도에 한국문화원연합회에 입사했습니다. 지금 한 14년 됐죠. 그리고 처음 접했던 대표적인 사업이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입니다.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이 2005년에 시작됐으니까 저보다 빨리 들어왔어요. 선배예요. 그 때 이 사업을 담당했던 계약직 직원이 혼자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때가 생각이 나고요. 사업 이외에 제가 처음 연합회에 들어온 건 연구직으로 들어왔어요. 대한민국 문화비전 선언문이라던지, 문화원의 날, 대한민국 문화원상 이런 것들을 초반에 돈 안 드는 일로 했고요. 그리고 어르신 사업을 비롯해서 지역문화 관련 일을 쭉 해오다가 교양지원팀도 운영을 하고 전반적으로 연합회 사업을 쭉 해왔지만 사실은 변화하는 과정에서 저희 연합회가 민감하게 같이 반응하지 못하는 아쉬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는 한데요. 오늘 제가 받은 주제는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성과, 어떻게 사업을 해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만 집중적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순 본부장님이 신중년이라든지 기본적인 개념을 거의 이야기해서 중복되는 것은

생략을 하고 진행하겠고요. 김재순 본부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깐 우리 실무자도 왔어요. 민경에 담당 직원인데 MOU를 맺으면 어떨까, 내년에. 어떻게 지역으로 사업 자체가 되고 중앙에서 바로 지원하는 형태가 아닐 것은 분명하고 어쨌든 사업은 포괄적으로 예산이 내려가게 되면 지역에서 역량에 맞춰서 살아남아야 하는데 원장님들이 저한테 많이 여쭙 보세요. 어떻게 이 상황을 탈출해 나가면 좋을 거냐. 흐름을 이해해야 됩니다. 살아남는데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 라는 것. 일로 승부하거나 지역민들에게 호응을 받는 사업이면 당연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는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한 번 보면서 마지막에 제안드릴 수 있는 부분은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부분에 대한 정리는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5번에 보면 조금 더 세분화되어서 연소노인, 고령노인, 초고령 노인 지금 이미 고령 사회가 되었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맞물려 있는데 이쪽에 올 일이 별로 없다보니까 지하철 경의중앙선을 타고 왔습니다. 거의 다 신중년이 앉아 있더라고요. 나이가 지긋한 분들도 있는데 확실히 고령화되고 있다,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어디 속할까, 향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그런 고민들도 같이 하고 왔습니다. 지금 단순히 65세 이상은 노인이다 통치고 지나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좀더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되어 말씀 드리는 걸 생략하려고 했는데 사업 자체가 요즘에는 아까 세분화도 했잖아요. 신중년이라는 얘기도 뒤에 많이 나왔었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각각 너무 다릅니다. 중앙연합회에서 했던 사업들 중에 가장 고민이 뭐냐면 일관성 있게 정책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다 지역마다 요구사항이 달라요. 이렇게 하세요 하면 이것도 반영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산으로 갑니다. 사업이 정확하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명확해야 하는데 너무 지역 여건이 다르다보니까 그 얘기를 다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그런 게 기억이 나고요. 지금 연령대만 보더라도 50대, 신중년 세대, 60대, 70대 각각 상황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지금하곤 다르게 조금 세분화되고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문제 제기를 해보고 본격적으로 어르신 사업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저희가 땡땡땡 실버문화학교라는 시범 사업으로 2억 4천 만 원을 처음 받았어요. 2억4천만 원이 그때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저희 연합회에 어르신 사업이라는 대상을 가지고 예산을 받은 건 처음이고, 이 예산이 지금처럼 문체부에서 받은 그

런 예산이 아니라 복권기금으로 어르신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복지예산으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2억4천만 원의 예산을 10개를 지원했습니다. 예산이 각 문화원 한 사업에 2천4백 정도, 지금 예산의 두 배정도 많이 나갔죠. 그때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상화해서 사업을 만들어 갈까에 대한 고민을 한 거죠. 15년 전에는, 그리고 나서 2~3년 후 2008년에 어르신들이 땡땡땡이 맘에 안 드신대요. 무슨 애들 취급하나. 땡땡땡 싫다 해서 지방 문화원 어르신 문화학교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때 예산이 15억. 굉장히 파격적으로 일어났죠. 100개가 되었고 2009년도에는 복권기금이 일몰제 형태로 되어서 지급을 하면 예산이 없어지는 위기에 있어서 문체부도 관심이 그때는 없었어요. 지방 문화원 원장님들도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중앙 예산의 연합회하고 지역의 관계되는 원장님들하고 열심히 힘을 합쳐서 본예산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한 게 2009년부터 본격적인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이 지금 복권기금에서 국가보조금으로 가면서 19억, 2010년에 24억까지 늘었는데요. 이게 사업이 잘 되어서도 있었지만 이때는 지방 문화원 사업이었어요. 공개된 사업이 아니라 지방 문화원에만 주는 사업. 그래서 제목이 지방 문화원 어르신 문화 학교였죠. 그렇게 지나오다가 지방 문화원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이 언제서부터 조금 변화가 되었냐면 2014년에 국회에서 지적을 받습니다. 지방 문화원 사업은 지역에 이양된 사업이에요. 지방문화원 사업을 중앙에서 직접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원연합회를 통해서 지방 문화원에 지원하고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시정을 하라는 국회의원의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체부가 급하게 이거 어떡하면 좋냐 논의를 했죠. 그래서 여러 사업 중에 동아리 사업이 있었어요. 동아리 사업만 문화의 집이라든지 노인복지센터에 개방을 하자. 그 후 지원 대상이 모든 세부 프로그램에 오픈이 되고요. 일부 개방에서 지원 사업 전부가 개방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2015년에 보면 엄청나게 예산도 증액되어 38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사업도 잘 해야 되겠죠. 갑자기 국회에서 어르신들이 우리나라에 이까지 살게 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중앙정부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대표적인 어르신 사업인데. 늘려야 된다. 그 한 마디에 바로 예산이 올라갔어요. 시대적인 흐름도 탔던 것 같아요. 38억 정도의 예산으로 435개. 예산이 늘어나니까 관심도 없던 중앙부처가 열심히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예산이 지원대비 몇 사람을 지원 되느냐. 얼마의 수혜를 받았느냐 체크하기 시작하니까 돈이 드는 만큼 수혜자가 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15년에 435개로 늘어났고요. 늘어났으면 좋아야죠. 많이 지

원했으니까. 근데 또 어떤 사업 기재부 평가자는 이거 너무 많이 지원 한 것 같은데 성과가 있겠습니까. 사업 지원해서, 2015년쯤 되면 10년차가 돼요.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진행이.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니고 반복해서 동일한 사람이 수업을 듣다 보니까 나가질 않아요.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연차 간의 갈등들이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을 좀 더 어떻게 만족도를 높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내부에서, 3년차 배운 사람도 있고, 1년차 배운 사람도 있고, 5년차 배운 사람도 있고 10년차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변화도 같이 일어납니다.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할 때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액다건에 대한 지적을 기재부에서 받고요, 2016년부터는 조금 예산을 늘립니다. 2017년경에 어르신이라는 이름이 싫다, 문제 있다는 토로도 많이 했습니다. 어르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브랜드 네이밍으로 문화로 청춘이라는 네이밍을 만들어내면서 오른쪽에 보면 약간 소액다건 아래에 삭감이 조금씩 일어나서 2016년부터 18년까지는 10%고, 작년부터는 20% 삭감, 내년에도 20% 삭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중앙에서 할만큼 했습니다. 지역으로 포괄 예산으로 내려갔다고 했는데 지역에서 지역에 맞는 어르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 차별화된 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중앙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차별화, 특별화된 정책적 사업이 아니라면 중앙에서 일괄로 프로그램이 기획되어서 내려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 때문에 점차적으로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재부가 결정하는 것 같고요. 중앙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지역이 차별성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모든 정책 흐름하고 맞지 않습니다. 기조가, 흐름이 바뀌었으니 이 사업 정책 흐름도 그렇게. 사업을 못해서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정책적 흐름하고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표를 보시면 2005년부터 15년차 운영이 되고 있고요. 쪽 올라가서 2005년도부터 10개 사업에서 지금 2014년도에 415개, 2018년에 297개. 약간의 몇 개 차이는 있을 겁니다. 이 자료에서 보면 2018년까지 나와 있죠. 이미 설명할 부분을 표로 정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책자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 예산 추이도 조금 전에 설명해드렸죠. 2천4백만 원 2005년도에 지원을 했는데 점점 2015년까지 계속 내려가죠. 계속해서 평가 대상이 수요로 하다 보니 성과를 내기도 했고요. 또 초반에 기반을 마련했던 게 동아리 형태로 운영되면 동아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운영하는데 크게 필요하지 않아서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는 여건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사업 예산이 점차 줄어들고 2016년부터는 천만 원 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이 흐름표가 왜 다

시 찾아 올렸다면 2005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어르신 사업이 노래교실도 하고 이런 의미로 시작했다면 도입 과정에서 보면 가장 많이 했던 게 문화예술교육이에요. 어르신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 문화학교 주축으로 이루었고요. 2단계에서는 1년차, 2년차 지나면 교육을 받고 나면 스스로 관심 있는 분야의 동아리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고, 몇 년 차 지나면 동아리 활동만 하면 지겹습니다. 어디 가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문화단 봉사단, 문화로 청춘이랑 비슷해요. 이름만 다르지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어르신 문화 봉사단 형태로 양로원이나 고아원 이런 데 가서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혜만 받다보면 한계가 있으니 의미 있는 사업을 하자고 해서 전문적 사회 활동이라고 3단계 프로그램으로 동아리나 어르신 봉사단이 한참 일자리 창출 사업의 붐이 있었어요. 문체부에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사업하고 연계해서 성과를 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 때문에 이런 저런 사업들, 대표적으로 평택 문화원에서 어르신 일자리 사업, 사회적 기업을 만듭니다. 그게 웃다리 문화촌이라고 해서 폐교를 이용한 문화예술교육, 어르신들 사회적 기업 형태가 가장 대표적이었는데 가장 활발했죠. 지금 와계시는 국장님, 그 이전 국장님도 하셨고 그 숫대 만드는 자체가 학교에 파견이 되어서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거기서 사례비, 교육비를 받는 형태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사회적 기업까지 발전했던 단계이고요. 4단계는 자생적, 자발적 활동이라고, 지금 명칭을 쭉 보면 내용에 들어가서 차이가 있다기보다 표현, 시대 변화에 맞춰서 약간씩 명칭이 바뀌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2014년 기준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도 단계적으로 보여지는 스텝바이 스텝 해서 사업 계획서에다가 새로운 사업을 했을 때 기존에 있던 교육생 몇 퍼센트 이상은 참가하면 안 된다는 공모 조건을 걸기도 했습니다. 2014년도 세부 사업에 어르신 문화 학교 봉사단 동아리 그분이 전반적으로 축의 핵심이고요. 사업 개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때는 2005년부터 14년까지 10년 간의 사업들이 조금 세분화되다 보니까 사업 분야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사업 종류 내용이 많았던 것 정도만 참고하십시오.

2015년도에는 어르신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문체부에서 관심 있던 사업이라 어르신 문화 일자리 창출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성과로 계속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많이 집중했었고요. 어르신 문화 콘텐츠. 쉽게 말하면 한 분의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지역 역사가 사라진다고 할 정도의 다양한 어르신 문화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2016년도에 그때 청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청년의 활용을 어떻게 할까 해서 처음으로 2016년도에 어르신, 청

년 협력 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새롭게 등장했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거의 유사한 사업들입니다. 2017년도에도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예술 공연도 찾아가는 문화 봉사단과 내용상 크게 달라지지 않고 제목만 약간 바뀐 형태이고요. 문화예술 교육도 어르신 문화 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교육, 동아리를 통합해서 했습니다. 이때는 문화예술 교육을 할 때 동아리 형태로 해도 되고 교육 형태로 해도 되고, 뭐 형태로 해도 되니까 안에서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업 통합을 했고요. 사업 내용이 너무 많다보니 힘들어했습니다. 심플하게 조정된 내용이고, 2018년도에는 어르신 문화예술교육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으로 났고요. 아래 보면 동아리 사업으로 분리가 났죠. 2017년하고 차이가 있고요. 어르신 청년 협력 프로젝트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여기도 조금 새롭게 보이는 게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 동네방네 문화예술 이런 사업들 많이 들어보셨죠? 명칭들이 바뀌면서 약간씩 변화도 있었고 사업도 규모도 전체적으로 변화가 있었다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세부사항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아서 참고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르신 청년 협력 프로젝트는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이기는 한데 성과에 대해서는 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루어지는 게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할 때 한 번 더 심도 있게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년에 대한 이해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년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 찾아보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50 플러스 서울시 문화재단 사업과 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어르신들이 50대에 제일 하고 싶은 게 일자리더라고요. 일자리가 1위예요. 제가 얼마 전에 지인한테 50플러스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거기는 주로 일자리 창출의 중간매개 역할은 많이 하지 않냐, 물론 문화적인 소통도 하겠지만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50대에 놀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취업에 대한 욕구는 가장 큰데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설문조사에 의하면 5위가 여가 활동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문화 공급도 공해다 라고. 문화 공급을 받기 싫은데 막 주니까 나는 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너도 나도 하자 하면 그 자체가 공해라고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수혜자라면 미치게 그 사업을 프로그램을 듣고 싶지 않는 이상은 문화의 집이든 뭐든 가까운 데가 나올 것 같아요. 문화도시 평가 기회가 있어서 도시 평가를 가보면 잘 모르세요. 대부분 문화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먹고 살고 여유 있으신 분들, 대부분 생업에 계시는 분이 고 돈을 벌러 가실 분들이예요.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중앙에서 돈을 내려

줬어요. 사람 모집도 안 돼요. 의욕은 넘치는데 현장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역 중심의 사업을 만들자는 거죠. 다섯 명이 모여서 할 수도 있고, 백 명이 모여서 할 수도 있고. 지역에서 만들어내는 건데 이렇게 네트워크, 유사단체간의 서로 협력이 잘 이루어지면 훨씬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왔던 겁니다.

신중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신중년을 핵심적인 대상으로 사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50플러스 재단이 마포에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 50플러스 캠퍼스가 2020년까지 6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50에서 60세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생애전환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60 넘어가서 뭐 하려면 늦어요. 그래서 50대부터 미리 준비하자, 여러 가지 그거를 각 센터를 두고 중간 역할을 해주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50플러스재단에 대한 신중년 사업, 그리고 스토리 공모전, 서울 오십축제, 단체지원 공모전. 내용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과 차별성이 있어보이지 않아요. 약간 추진 과정정도만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순 본부장님이 얘기했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들 있죠. 저는 이런 것 저런 것 했다가 대표적으로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사업을 다섯 개 지역 거점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서 청춘 문화 VJ, 청춘 사진관 등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사업은 어느 정도 영상, 사진 관련하여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연말에 전시회를 통해서 성과 발표회를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사업의 방향도 비슷합니다. 각각 개별적으로 지원해서 운영되는 것은 정책적으로 흐름에 맞지 않아요. 통합적으로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가 되었고요. 지역 중심 형태의 지역에서 만들어진 사업이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사업이 됐습니다. 지역 특성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성화도 거의 맥락이 같아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역에 가면 특성이 없습니다. 특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다 똑같습니다. 그만큼 중앙에서 교육을 시킨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훈련을 해서 우리 지역의 다른 점은 우리 스스로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전문화 과정 부분도 우리가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으로 갖고 있는 성과가 굉장히 커요. 많아요. 전시회나 이런 내용들도 보면 어르신 사업의 노하우가 축적된 내용들이 결과물로 많이 보여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은 어느 단체에 비해 가장 우선되고 역량이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좀 더 발굴해내고

외부적으로 홍보하는 것들이 필요할지 그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플로어에서 많이 고민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마무리에 거의 있거든요. 사실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때는 문화원의 생기가 많이 넘쳤어요.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건 아납니다. 2003년도에 저희가 지방 문화원 공채제도가 있었는데 그때 혹시 들어오신 국장님 여기 계세요? 경기도도 굉장히 많이 바뀌긴 했는데 경기도는 인프라, 인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방의 진도, 해남이라든지 산청 이런 데 가면 문화원에 사람이 없어요. 문화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너 200만원 줄게, 여기 있을래, 서울 가서 100만원 받을래? 하면 서울 갑니다. 그만큼 갭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광역권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인력이 굉장히 많고 문화원도 경기도 분들 교육 시키면 똑똑하고 좋은 사람들을 받아가시거든요. 갭 차이가 많은데 2003년도에 사무국장 공채 제도는 너무 국장님들이 정년퇴임하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고,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셔서 중앙부처 차원에서 공채 제도를 만들었고요. 이때 시범 사업과 맞물려서 컨설팅, 지금 전문가들하고 굉장히 협력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노인 사업을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 만들어냈고요. 사업규모가 15년차 쪽 변화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아요. 지원하고 관리하는 정도에 머무는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하거나 민감하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어르신 사업에 대한 축적 노하우 인정합니다. 보여지는 것보다 막상 들어가면 굉장히 안정적이게 운영을 잘 하는데 지금처럼 50플러스, 신중년, 세분화된 연령대 정책, 남성 어르신들의 정책, 여성 어르신들의 정책, 연령대별 정책 이렇게까지 다 세분화할 필요는 없지만 지역의 어르신들 요구에 민감하게 더 반응하면서 다른 단체에서도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고령화 사회, 대상이 어르신들이 주가 되다 보니까, 노하우가 아무리 있더라도 문화원이 잠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에서는 예산이 점점 줄어든 거예요. 공모에서 사업을 따가잖아요. 지역에서도 경쟁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아남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기존의 노하우와 네트워크 만들어내면서 지역민들이 가장 필요한 사업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더 하셔야 되고요. 지금 지역문화 환경도 기초발제에서 들었겠지만 지방문화원 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방문화 단체 중의 하나예요. 재단들이 만들어지면서 경쟁이 심화가 됐죠. 지금 조금 고민해줘야 하는 것은 강릉 문화원이 잘 한다고 들으셨을 거예요. 강릉 문화원은 재단보다 더 많은 예산을 얻고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국장한테 신임 원장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경쟁에서 살아남느냐. 첫 째, 둘 째, 셋 째, 넷 째 네 가지가 거의 다 비슷한 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체장이 바뀌면 재단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도 후딱후딱 바뀔대요. 굉장히 흐름을 많이 타죠. 지역민들이 응원하고 공감하는 사업 개발을 하고 그거를 성과를 내지 않으면, 왜? 지역민이 응원하고 문화원이 잘하는데 그 사업을 빼가지 않는대요. 지속적으로 축적해서 누구도 가져가지 못하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는 사업은 마음만 바뀌면 단체장이 누구한테 줘도 상관없는 거죠. 가져가면 그만이죠. 단발적인 것 보다는 확실하게 지역민이 응원하는, 단체장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업 추진. 지속적인 역량을 축적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문화원이 가장 고민하는 투명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들도 몇 분 계시지만 약간 부정적인 예라고 적어놨어요. 문화원이 사회 조직화 된 느낌이 있다. 지방 토호세력이나 지방 유지들이 공직 퇴임 후의 양로원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는 솔직하게 외부단체에서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지역 문화는 기득권들의 견고한 폐쇄성으로 젊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다. 이건 이미지이지 실제로 그렇다는 것과는 다르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영 투명성에 대한 고민은 종합적으로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향토자료 활용 가치 극대화 노력 이거는 두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향토자료는 어떤 자료 비교해서도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활용에 대한 고민은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인력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방 문화원이 230개 있는데 원장님, 국장님 일 잘하면 끝입니다. 거기가 확 바뀌어요. 사업이 없는 예산도 따와서 합니다. 푼푼한 직원 한 명 있으면, 사람의 전문성 역량을 갖는 인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중앙 예산이, 중앙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법 제도라든지 전문적인 사업 개발들 이런 것들을 지원해줄 수는 있지만 직접 사업을 따서 지원해줄 수는 없어요. 내려간 예산을 경쟁력 있게 가져가서 문화원이 키우는 방법이 가장 설득력 있는 현재 이치인 것 같습니다. 사업으로 승부하라는 것이 마지막의 제가 할 말인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죄송하고요. 문화원 식구들이 있다 보니까 문화원에 대한 얘기를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박정근 /

송은옥 선생님께서 그동안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진행해온 어르신 문화 사업에 대해

서 쪽 정리해준 시간을 가졌고요. 물론 직접 와닿으신 부분도 있겠지만 전혀 낯설게 다가오신 부분도 분명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르신 문화 사업이 문화원 자체가 어르신 중심이다, 아니면 노화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의 주력 사업이 어르신 사업이어야 되냐라는 의문은 항상 갖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초창기의 어르신 문화 사업이 시작할 당시에는 덜했지만 지금은 지역의 노인복지관이나 노인과 관련된 전문 기관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의 경쟁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문화원에서 보통 직원이 3~4명, 많은 곳은 5~6명 있겠지만 보통 노인복지관의 직원이 17~20명, 25명, 30명 그렇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부분을 공략해서 어르신 사업을 끌고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또 한 번 해봐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전반적인 부분에 전체적인 어르신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거기에 또 하나 우리가 신중년이라고 이야기하는 50대 중반, 후반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어떠한 대처 방안으로 문화원으로 끌어안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는 자리, 단순히 어르신 사업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분들에 대해서 문화원이 어떻게 안고갈 수 있을 것이냐, 그분들을 문화원이 끌어안음으로 인해서 문화원의 강점이 될 것이냐, 약점이 될 것이냐, 약점이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서 강점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 넓게 고민해보자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해보시고 두 분께서 발표해주셨는데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흐름과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갈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하는 시간인데 한 챕터로 나뉘어서 할 부분이 아니라 이 주제만 갖고도 전체 회의가 토론했으면 좋았을 텐데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해서 그 의견을 다 담을 수 없지만 이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걸 최대한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굉장히 대표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오민영 국장님께서 토론해주실 건데 한 번 그 얘기를 들어보고 그 얘기까지 포함해서 자리해주신 모든 분들 의견을 모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오민영 평택문화원 사무국장 /

두 분이 정책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다는 현실적인 부분을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니다. 2천 년 이후 지속적으로 언급된 사회적 이슈는 노인과 관련된 것이죠. 초고령화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빈곤, 사회참여 위축, 지위 역할의 축소, 삶의 의미 상실, 은퇴 후 오는 허탈감, 경제적, 사회적 관점에서 논의되고 최근에는 빈곤률, 자살률이 OECD 최대를 기록하면서 우리 사회 당면한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독립적으로 정책으로서 노인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이 시작된 것은 2005년 한국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개원되고 그다음해인 200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는 지방 문화원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이 2005년 시범 사업으로 시작되었고요. 그 이전에는 노인에 대한 문화 정책이 거의 없었습니다. 1998년 국민 연금, 그리고 1991년 노령 수당, 2005년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소득 보장 정책 중심으로 약간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시행되는 정도의 열악한 가운데 노인을 위한 별도의 문화 프로그램이나 문화 정책은 부재했던 상태였습니다. 노인 문화예술교육은 노인 세대에 대한 관심이 아닌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교육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 전반으로 아우르는 총체적 관점의 노인 세대에 접근하기 보다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노인에 대한 수혜적 관점에서 대상화한 경향이 큼니다. 때문에 노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함에 있어 노인의 세대적, 생애적 관심으로부터 문화예술교육을 구상하기보다는 단순히 예술 기량 교육 내용에 머물거나 체험형 통합 문화예술 교육 등 방법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또 보면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추진한 어르신 프로그램이나 2018년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사회적 약자로 접근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보다는 노년 세대에 대한 확장된 인식으로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두 곳에서는 정책을 마련한 입장이고 저희 문화원에서는 정책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보면요. 활성화를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로 생각해본 것이 있습니다. 여섯 가지 정도 생각해봤는데요.

첫째, 활성화 위해서는 노인 문화예술교육이 다양하게 세분화가 필요합니다.

기관과 노인 학습자, 모두 현재보다 더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나 프로그램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현장 노인들의 적극적인 요구를 수용하고 지원 분야를 다양화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둘째는 세부 교육 내용 및 난이도에 대한 조정과 학습 집단이 세분화되어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은 노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자신의 능력 부족, 개인적 특성에 따라 이전에 문화예술 프로그램 경험한 정

도가 있습니다. 문화 예술 교육 경험 유무와 개인적 특성, 그리고 기본적인 노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수준에 따라 집단학습보다는 세분화하여 학습자의 수준에 맞춰 상충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셋째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 및 강사 지원 뿐 아니라 재료와 시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예산의 대부분이 전문 강사에 대한 지원인 것이 사실이고요. 노인 문화예술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장기적으로 예산과 강사에 대한 지원 외에는 시설이나 장비, 도구 이런 게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확충되어야 프로그램이 좀 더 내실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는 노인들의 일상 속에서 문화 예술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는 자율적인 동아리 형태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문화예술을 통한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업시간에만 한정된 문화 예술교육을 넘어 일상의 삶 속에서 문화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느 수준 이상의 교육이 이루어진 후에는 자율적인 동아리 형태로 해야 하고요. 노인들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동아리 단계에서는 강사 없이 학습자들끼리 자율적으로 동아리를 운영하고 또 나아가서는 이분들이 자원봉사활동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인데요. 사전 계획 단계부터 사업 수입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보다 효과적인 노인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는 일방적인 강사 프로그램, 강사 파견, 프로그램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운영 계획, 강사 교육 계획, 프로그램 자문, 사업 평가 등에 있어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사업 기관들과 협의해 나감으로써 현장에 더 적합한 교육이 만들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노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성과 중심의 평가가 요구됩니다. 평가 기준이 이렇습니다. 예산 지출, 사업진행, 모집률, 출석률, 교육 만족도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성과에 중심을 둔 평가를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노년기 삶의 질 및 사회 참여 증대 등을 성과의 평가로 함으로써 노인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 및 필요성 확산 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확대보다는 세대 통합적 문화예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예술은 다른 영역에 비해 세대를 벗어나고 공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분야입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아동, 청소년, 성인, 다양한 세대들이 노인과 함께 세대통합, 세대 공감의 문화 예술교육을 확대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질문을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Q. 먼저 송은옥 차장님께, 노인문화예술교육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여초 현상입니다. 모두 가보면 여성분들이 대부분이신 거예요. 남성분들은 거의 없어요. 남성분들이 없는 게 아니라 많이 계세요. 가족도 계시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여가 어려워요. 대부분 사업들 진행해오셨고 지방 문화원의 이야기를 잘 하셨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러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고요.

Q. 김재순 본부장님께는, 지금 문화예술교육 자체가 특정 노년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계층에 대한 지원으로도 개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보고 싶고요. 지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지원되는 형태가 지방 문화원이나 또는 지방하고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지방 분권 시대에 맞춰져서 예산 지원을 지자체로 줘서 지자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것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은 어떨까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송은옥 /

이건 고민입니다. 어딜 가나 여초 현상이 있죠. 저희가 공모 나갈 때 남성분들을 가능하면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해요. 설명하지만 현장에서 잘 안 이루어져요. 현장에서 막상 모집하려고 하면 남자 분들은 이런 교육 받기가 쑥스러우신 가봐요. 저희 아버지가 85세이신데 문화센터에서 댄스, 춤을 배우시는데 남자 분들은 조금 더 활기차게 문화원 보다는 다른 더 넓은 많은 계층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해결 방법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문화원연합회에서 공모할 때 그 문제가 계속 대두되어 있는 문제인데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문화원에서 무언가를 모집하기 전에 공을 많이 들여야 모집이 가능하지 제가 개별적으로 답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살아계셔서 오래 사시는 분도 어르신 중에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커뮤니티, 소통을 좋아하시는 성향도 아무래도 여성들이 많다보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

고요. 노하우는 답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현장에서 도리어 플로어에서 역으로 답이 있으시면 들어보고 옮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재순 /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얘기를 다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취약 계층 중심에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확대하는 부분. 이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국고로만 하면 1200억, 지방비까지 하면 1800억이 연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학교 공교육에 들어가는 것과, 취약 계층 사업이 99%. 문화예술 교육 지원법에는 전국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했지만 제가 맨날 얘기해요. 저희 가족도 제가 10년 다니는데 누릴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어 있어요. 제 친구들도. 물어봐도 들을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이거는 정책 안에서 다 느끼고 있어요. 언제까지 퍼주기 식으로 갈 거냐.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보편적인 문화예술 교육을 확대한다. 보편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원하는 사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든다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게 아까 나왔던 것처럼 기초생활권 중심으로의 전환, 그리고 그게 두 번째 질문과 딱 연결이 돼요. 지금 예산을 중앙에서 프로그램 단위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 하나 선정되면 1300만원씩 딱딱 떨어뜨려주는 구조예요. 그러면 그게 문화원이든 단체든 1300만원 갖고 강사비랑 재료비만 딱 쓰면 끝나거든요. 그 지원 끝나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아까 제안하신 것 중에 좋은 게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설이나 장비나 인력을 지원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고민이 같이 가야 하는데 중앙 단위 프로그램 공급형을 지자체가 매칭해서 자기 사업을 만들어가는 구조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도 이 과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서 걱정되는 건 자치분권, 지방분권시대로 전환되면서 예산 이양, 권한들이 지자체로 가야 하는데 여기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산의 지방 이양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국고 지원이 다음 단계로 가면 지역 이관으로 가면 국고의 지방 대응 매칭 구조로 가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원 설립이라든지 문화교실 사업이 다 2004년에 지방 이양이 되면서 더 이상 중앙에서 지원할 수 없게 됐고 문화원은 그래도 정말 대단한 건 계룡인가 한 군데 빼고 다 생겼잖아요. 문화의 집 보시죠. 딱 100개까지 만들어지고 지방 이양사업 되면서 자취를 감췄어요. 지금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건 문화예술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정책에서 예산에 대한 고민

중의 하나는 지방 이양으로 됐을 때 과연 이것이 지자체에서 활성화될 수 있겠느냐. 되게 조심스러워요. 저희는 과제에 예산을 지역화 하는 걸 빼고 있는 게 기재부나 국회에서 국고를 빼버리고 결국 지자체 몫으로 남는데 과연 지자체가 문화예술에 관련된 예산을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 이걸 정말 냉정히 봐야 돼요. 지역에 자율권을 주는 문제와 예산이 결부될 수밖에 없지만 예산에 자율권을 주는 순간 중앙이 손을 떼버린다. 그럼 그게 문화원이든 재단이든 지자체든 정말 어려운 구조더라고요. 저희도 내년 과제로 고민하는 건 중앙 지역 간의 계획, 계약, 평사업이란 걸 고민하고 있어요. 이름은 정확히 안 나왔는데 아까 제안 주신 것처럼 중앙은 큰 포지션의 예산만 상정해놓고 예를 들어 평택 지자체에서 이런 계획으로 이런 사람들과 이런 사업 하겠으니 3년 협약을 맺읍시다 그게 오케이 되면 3년간은 그 지역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이양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고민은 예산이 이양되는 건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서 지역이 자기 권한을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사업이나 정책에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건 오히려 질문이면서 제약이어서 저희가 더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민영 /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지원 구조가 취약계층 위주로 하잖아요. 사실 근데 보면 취약 계층 사업을 많이 해봤는데 특히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취약 계층의 특징은 뭐냐면 다원 구조로 지원을 받고 있어요. 꼭 문화예술 쪽이 아니라 복지 쪽에서도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있고 학습 프로그램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여가부에서도 해주는 게 있고 다중 구조로 받다 보니까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받는 것은 별것도 아닌 거예요. 다른 데 가면 밥도 주고, 간식도 주고, 프로그램 운영하면 영화관 티켓도 주는데 여기서는 와가지고 그것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 취약 계층 모집도 어렵고 관리도 어렵거든요. 저는 말씀드렸던 게 오히려 일반 계층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취약 계층은 한 군데에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화예술 교육쪽에는 취약 계층부분보다는 다양하게 접근을 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더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좌장 박정근 /

저희가 밑에 내려가기 전에 함께 해주신 분들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신중

년 사업하고 문화원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는 어르신 문화 사업과 문화원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아무 의견 상관없습니다. 오늘 주제에 맞는 질문도 괜찮으시고, 개인 생각도 괜찮습니다. 혹시 의견 주실 분 있으신가요?

플로어 토론

고양문화원 000 /

제가 문화원에 처음 입사해서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을 담당을 하게 됐고요. 많은 프로그램 공모 사업을 통해서 처음부터 쪽 했던 부분이 어르신들 문화 사업의 양성과정부터 시작해서 동아리 활동, 일자리 사업까지 다 진행을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 양성과정에 있어서 나이 제한을 어르신들로 하다 보니 참여율이 저조해요. 오신 분들도 연령대가 60대 이상이어도 70대로 오신 분도 시간이 지날수록 연세가 있으시니까 참여율이 점점 가정사도 있고 손주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못 나오시고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시고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계속 참여를 하셨는데, 어르신, 청년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참여를 하고자 하는데 청년들이 일을 해야 돼서 시간을 못 낸다 하더라고요.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그렇다고 청년들한테 어떠한 페이를 줄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그래서 그 날짜를 토요일로 잡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애경사 때문에 토요일은 또 시간이 안 된대요. 그런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동아리 활동을 올해 진행했었는데 이거 말고도 경기문화재단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경기전통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연령 제한이 없는 사업이었거든요. 거기서 어린이 국악 합창단을 작년하고 올해 연속 사업으로 받아서 진행을 했었어요. 오히려 그런 프로그램들이 훨씬 더 호응이 좋고 교육 쪽으로는 기획자 입장에서 훨씬 반응도 좋고 사업에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원이 공모사업만 가지고 자생적으로 나온 기관은 아니잖아요. 저희도 고양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면 지금은 그걸 통합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란 걸 단체별로 지급했는데 이걸 문화원으로 다 통합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 사업이 더 많아졌어요. 여기서 토론하고 있는 공모사업이 어떻게 보면 문화원의 어떤 사업처럼 비춰지지만 사실은 문화원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공모사업은 어떻게 보면 서비스 차원에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나 취미나 이런 걸 위해 건물이 있고 자리가 있으니까 그런 위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사실 문화원에서 중요 사업은 아니거든요. 아까 강릉 문화원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강

릉문화원 견학을 갔었는데 강릉 단오제라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문화재청에서 10억 단위가 넘는 보조금을 받거든요. 그러다보니 그런 문화원이 진행하고 있는 거하고 경기도 내에서는 경기 북부지역은 열악한 지방도 있지만 이런 전체적인 사업이 문화원의 전체적인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저는 오히려 신중년 사업이 더 꽃혀진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나이가 저도 신중년인데 제가 이런 공모사업 프로그램을 이해하면서 했던 게 그런거였거든요. 제가 은퇴했을 때에 나의 일자리를 내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만든다는 생각으로 양성과정도 했고 일자리 사업도 했고 동아리 활동도 했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르신이라는 문화로 청춘도 있지만 오히려 신중년에 대한 그런 고민이 더 크지 않을까. 제 나이로 보고 제가 문화원의 기획자로 있는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송은옥 /

답변하면서 제가 얘기를 놓친 부분이 있는데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의 30%에 50대가 포함될 수 있는 건 아시죠? 신중년이라는 개념을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서 사업 공모할 수 있도록 한 상태이고요. 제목만 다르지 들여다보면 정책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30%라고 하면 이미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경력자들, 지금 어르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자체로 해서 부가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바꾸려면 대상을 바꿔야 하는. 제목을 바꾸면 전체 포맷이 바뀌어져야 되고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현재 어르신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정책을 만들어내려면 신중년이라는 개념을 좀 더 깊이 있게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사업에 50대가 들어가 있는 신중년이라는 타이틀을 조금 더 부각해서 사업을 정착시킬 수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이 변화를 많이 해오긴 했지만 환경이 변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고양 상황 다르고 강릉 상황 다르고 230개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정답이 있는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실태 조사를 하더라도 중앙 부처에서는 예산을 가장 많이 주니까 문화원은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라는 고정관념이 되어 있는데 실태 조사를 해보면 진짜 일부에 속하거든요. 전체 예산 중에, 그런 고정관념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것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역에서 청소년들, 젊은 다양한 계층의 사업들이 문턱이 낮도록 올 수 있는 기획들을 충분히 해나간다면 일방적으로 오해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돌아봐야 되는 것 중에 이미지라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제가 다른 단체들에게 가끔 화를 냈

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만 한다. 제대로 문화원에 대해 이해해봤나. 이미지만 보고 그렇다, 저렇다 뭐라 하지 말고 소통을 충분히 하다 보면 서로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인력들이 있으면 문화원으로 많이 끌어들이십시오. 끌어들여서 어떤 사업이든지 같이 기획하고 협력하고 나누면 다 우리 편이 됩니다. 이해를 하면 서로 교감이 되잖아요.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230개의 색깔이 다 다르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사람들을 끌어 모아서 일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단체, 사람, 이런 네트워크 구조를 잘 만들어내지 않으면 뭐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여기 진흥원도 있지만 이양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는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데 고민을 더 해야 하지 이양하는데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

좌장 박정근 /

제가 전체 진행을 맡아서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그런데 저도 마지막으로 문화원 사무국장으로서 저도 한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송은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방 문화원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죠. 근데 중앙 연합회에서는 그 속도를 못 맞춰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방 문화원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고 그 속에서 맞춰서 살아남으려고 변화를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는 그 속도를 못 맞추고선 아직도 느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거꾸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이미지가 문화원이 그렇게 늙지 않았고요. 문화원이 어르신 사업을 대처하지 않는 그것이 중요 부분은 아니라는 선생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어르신 사업이 왜 이 자리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안 왔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별로 관심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 있으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신중년이라는 부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데 신중년을 어르신 사업에 포함시키는 순간 굉장한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저도 2~3년만 있으면 신중년이거든요. 제가 과연 어르신 사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끌어안을 때 우리가 어르신 사업에서 끌어안을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고민은 정말 심도 있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서

서 좀 더 고민해주시고 우리 문화원에서도 이 사업을, 오늘 두 분께서도 평택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각 지역의 문화원에 맞는 색깔에 우리가 접근 방법을 다시 한 번 정립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진 못했지만 그런 고민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춰봤다는 부분에 대해 들어가시면 또 그 이야기를 나눠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 백

제 4 섹션

지방문화원의 현재 분석을 통한 미래비전 모색

본 섹션은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마다 설립되어 있는 강력한 네트워크 조직인
지방문화원의 조직 및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좌장 : 박용철(동두천문화원 사무국장)

• 취지

안녕하세요. 4섹션을 맡은 동두천 문화국장 박용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보다 유명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우리 경기도 문화원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오신 것 같아요. 본 섹션에 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편의상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제가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또 범위가 넓고요. 아까 연합회장님이 말씀하시고 차재근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문화원이 처한 현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걸 이 자리에서 모두 다루긴 어렵고 주최 측에서 두 분의 발표자를 섭외했고 지정 해주셨습니다. 전부 다 다루긴 어렵지만 주제에 대해서 토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마다 설립되어있는 강력한 네트워크로 형성된 조직인 지방문화원의 발전을 위해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지역에서는 지역 현실에 따라 서로 다르지만 230개의 지방 문화원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이 같은 활동은 근 60여 년간 이어져 오다가 현재는 문화 다양성과 문화의 자치활동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문화 활동을 하는 곳이 문화원이 아닌 여러 복합적인 공식 처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문화원을 둘러싼 외연적인 요소들이 변화무쌍하게 변화하는데 문화원이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까 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

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분들을 제가 잠깐 소개하게 되면 제1주제는 ‘지방 분권과 문화 자치’를 주제로 전고필 지역문화진흥원 이사님이 발표해주시겠습니다. 다음 제2주제는 이동준 이천 문화원 사무국장님이 ‘지역서기 2049년, 우리 지역은 그때까지 남아있을까’라는 주제로 발표해주시겠습니다. 두 분이 한 20분간 발표해주실 거고 또 그에 맞춰 토론자로 박희정 화성문화원 사무국장, 한용삼 광명문화원 사무국장님이 지정 토론자로 발표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지방 분권과 문화 자치’ 전고필 지역문화원 진흥원 이사님이 약 20분간 발표해주시겠습니다.

지역분권과 문화자치

전고필(지역문화진흥원 이사)

반갑습니다. 저에게 제일 어려운 숙제를 주시더라고요. 늘상 제 입장에서는 문화원에 대한 애정이 깊습니다. 제가 대학원 논문 쓸 때도 문화원의 자료를 가지고 썼었고, 고향이 대나무로 유명한 전라도 담양이고, 지역에서 서점을 하고 있습니다. 서점도 향토사 전문 책방입니다. 그걸 낸 이유는 대한민국에 향토사 전문 도서관 하나 없냐는 문화부에 대한, 정부에 대한 항의 비슷한 것을 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한국문화원연합회 자문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현 정권이 아니었을 때는 문화원이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었고요. 정권이 바뀌고 나서 좀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고 싶었는데 도와드리려고 응답을 했습니다. 아까 차재근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내일 지역문화 진흥 5개년 종합계획 토론이 한글박물관에서 있습니다. 그 지역문화 진흥에 관련된 계획안에 문화원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할까? 저도 그 추진위원회의 한 명입니다. 몇 번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력히 등장하게 주장을 했고 그렇게 발표를 했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야 하는데 지역문화진흥계획을 세우고 있는 곳이 지역문화 정책과입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지역문화원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지역문화정책과입니다. 요즘 보면 지역문화 정책과가 문화원의 재원의 도달점이고 정책의 수립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에 대해 과거만큼의 애정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외적 환경은 이제 지방자치 시대

에 들어와서 자치단체장과 지역 주민들이 합심해서 문화 자치를 이루라는 뜻에서 관여를 안 한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문화원이 스스로가 변화하려는 의지를 한 번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피로감이 든 것 아닌가? 이것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즉, 지역문화진흥법이 발의될 때도 그 발의 자체가 지역문화의 권력체계인 문화원을 흔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한문연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를 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 지역문화진흥법이 통과했고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에 문화재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전부터 생겨나긴 했지만 이렇게 되면서 과거의 문화자치에 대한 독점적 사업들을 행한 문화원의 위상에 심대한 타격들이 가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 문화재단만 해도 60여 개 정도고 다 아시지만 각 지역마다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각 자치단체장의 선거에 활동했던 참모들에게 주는 선물일지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던 간에 문화원의 입장에서가는 가지고 있던 파이를 나눠야 하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파이 자체가 이전보다 커집니다. 과거에는 중앙 정부가 연합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직접 사업을 통해서 문화원에 공급했던 재원들이 전부 다 자치단체로 자치회계라 해서 가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했던 2004년에 전국에 지방문화원에서도 같이 운영했던 문화의 집이 전국에 160개가 있는데, 그 문화의 집 사업을 그때 당시 지방정부로 아예 이양을 해버렸습니다. 사업 자체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순간 지방정부에서 문화의 집에 재원공급을 제대로 한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화의 집은 존재감이 거의 소멸되고 그리고 그때 당시 한국문화원연합회를 통해서 생활 친화적 문화 공간 조성 사업을 별도로 추진했습니다. 그것도 100여 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정권이 바뀌니까 생활 친화적 문화 공간 조성 사업은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또 만들어진 게 생활문화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세 가지가 다 문화의 집의 아류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문화 공간이 근린 생활권에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재원들이 투여 안 되는 것은 투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에서는 재원을 내려주고 있는데 지방 정권에서는 그 재원을 다른 곳에 쓰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과연 우리가 지역에서 문화분권을 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자치단체는 진짜 문화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가? 물론 각자는 다 신경 쓰는 것처럼 보이고 문화원에 계셨을 때는 자치단체장들이 우리가 만나면 다들 신경 쓰겠다고 하고 예전처럼 숙제도 계속하고 있고 민속 예술제, 무형문화제 발

굴 이런 것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저 많은 돈들은 오히려 하드웨어 산업에 쓰이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굉장히 낙관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정치적 부분에 대한 무관심들 혹은 나하고 가까우니까 잘 되겠지 하는 그런 인적 조각들로 인한 편견들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분권은 어려운 일이고 공동체 사회가 붕괴되었는데 우리 생태계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인데, 이 안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살고 있는 담양군에 인구가 4만 6천 명 정도이고 그중에 12개 면이 있는데 그중에 읍에 한 14,000명이 있고 나머지는 소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장이나 모든 행정력의 중심은 읍으로 쏠아지고 있습니다. 담양읍에 잘 아시다시피 죽녹원이 있고 메타세쿼이아 길이 있고 담방 대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길이 있는데 군수나 행정의 수장들이 전부 거기에 재원을 박아가지고 거기에서 무언가 관광의 성과를 통해서 지역이 발전된 것을 계속 보여주게 할 뿐이지 조선 최고의 민간 정원이라고 하는 소쇄원이 있는데 이 소쇄원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원이라 하는데도 신경을 안 씁니다. 왜? 그 쪽에는 표를 가진 유권자가 몇 천 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고 나서 공동체 사회가 붕괴되는데 이 붕괴되는 가운데에서 자치단체가 국회의원이 되었건 누가 되었건 표만 구하는데 주민들은 무관심합니다. 표를 향한 정치인들의 구애만 있을 뿐이고 그거에 현혹되어가지고 저거 괜찮더라. 복지시설 잘해주고 이러면 거기에다가 표를 주는 거지 문화 쪽에다 표를 주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권은 굉장히 요원하게 보이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화성 국장님이 계시는데 화성에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화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화성 시티 투어를 13년째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군 단위나 시 단위의 시티 투어는 지역에 있는 여행사나 전세버스 업체가 합니다. 하지만 화성에서는 시민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문화부의 관광정책과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문화부 장관상을 받은 대통령 훈장 상을 받은 시티투어를 가장 잘하는 곳은 경기도 화성인데 그 경기도 화성은 관광으로 출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어디에다가 말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을 못 준 거다. 찾아서라도 상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 하기도 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전국에 시티 투어 버스 한번 출발할 때 평균 10명 이하입니다. 그런데 화성은 45인승에 38명이 탑니다. 그것도 1년에 350회 운항합니다.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운항하는 시티투어는 60회 정도 운항합니다. 이런 게 뭐냐면 동탄에 있는 사

람을, 화성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화성의 구시가지와 옛날에 있었던 유적과 대양리가 되었든, 아니면 염전이 되었든, 북화도가 되었든, 제부도가 되었든, 모시고 가서 화성에 대한 끈끈한 애정들을, 향토애를 불어넣는 시티투어를 하는데 이런 자치력들이 기반이 되었을 때 문화력도 증진되고 같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문화원에서는 지금 각 문화원에서 향토사 탐방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교류한다고 그래요. 잘하신다고 합니다. 물론 끈끈하게 잘하죠. 그런데 예컨대 충남 금산에서 향토사 교류를 위해서 탐방을 한다고 한다면 제가 만약 금산의 문화원장이라면 제일 먼저 가고 싶어 하는 곳 중 하나가 호남의 의병 6천 명이 봉기해서 금산까지 와가지고 한꺼번에 다 죽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호남 의병이 봉기했던 원인을 찾아가는 그런 여행부터 제일 먼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남 담양의 문화원장이라면 경북 칠곡에 담양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에 쌓은 담장인데요. 담양사람 20명이 가서 그때 당시 칠곡 부사가 담양에서 근무할 당시, 너무 선정을 베풀어줘서 고맙다고 주민들이 뭔가 주니까 절대 안 받고 가버리니까 그분 쫓아가서 그분 집에 가서 담을 쌓아주었다고 합니다. 그 담을 담양 사람들이 쌓아준 담이라고 해서 ‘담양담’이라고 하고, 지금은 담양 사람들이 잊어버린 전통이 오히려 칠곡에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곳을 찾아가는 교류를 하면서 힘들을 키워나가고 그런 강화된 힘들을 토대로 해서 문화원 연합회의 힘, 지방 문화원의 힘들을 같이 키워줘야 하는데 그러면서 주민의 문화력들도 같이 키워줘야 하는데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역 내 문화 자치라는 것은 아직은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연방제 정도의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힘들은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 문화원에 계신 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들은 한편으로는 너무 고되고 원장님들은 무보수 명예직이고 사무국장님들 급여해 봤자 정말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00문화원의 사무국장님이 20년 근무했는데 지금 급여가 220만 원입니다. 제가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동네일은 다 하고 있는데 그분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00군에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그 문화재단의 직원의 초봉은 230만 원입니다. 문화 재단을 홍보는게 아니라 이 재단에 있는 한 친구가 아침에 8시 반에 와있어서 거기 본부장이 너무 좋아서 “와 일찍 왔다. 우리 먼저 뭣 좀 할까?”하니까 “왜 제가 해야 되는데요. 아직 9시 안됐는데 왜 제가 일을 해야 해요?”하는 직원들이 230만 원을 받고, 20년 동안 지역의 잔심부

를 하면서 뼈대가 굵어온 문화원 사무국장은 20년 일하면서 220만 원 받고 이런 현실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방심했다는 것입니다. 지방문화원 진흥법이라는 특별법 하나 있다고, 그거에 너무 의지했던 겁니다. 그리고 문화원장님들이 힘 좀 있다고 국회 의원 몇 명 만나면 뭔가 되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여태까지 60년 동안 그 정치를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230개 되는 문화원 사무국장님 중에 스타 사무국장님이 한 명이 없어요. 다른 데는 지역문화 브랜드 해가지고 대통령상 받으러 가고 장관상 받으러 가고 국무 총리상 받으러 가고 있는데 문화원 연합체에서 원장님들이 갈아서 주는 상 그거 몇 개 받는데 로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있으니 문화자치 신경 쓰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화자치 누가 주도하느냐? 결국 지역민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지역민들하고 가장 프렌들리하고 가깝게 지내던 분들이 문화원에 계시는 분들 아닌가? 다시 재출발을 해야 하는데 재출발하기 전에 각성부터 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다시 한 번 해보자, 우리 스스로 돌아보자. 우리는 우리 안에서 너무 자만감에, 자족감에, 자신감에 빠져있는 것 아닌가? 이 세 가지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저는 문화 자치 시대에, 지방자치 시대에 문화원이 끼어들 틈은 없다. 이대로 고사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는 지난번 문화원 연합회에 의뢰를 받아 인문사회연구소에서 문화원의 현황하고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문화원별로 그동안 발간했던 책을 보니까 각 62권의 책을 발간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광주전남지역 문화 관광 자원의 상품화 방안이라고 하는 관광을 연구했습니다. 그 논문 쓸 때 저희 지역에 있는 문화원을 다 돌아보면서 거기서 책을 얻어 가지고 썼습니다. 그 정도로 학술 논문을 쓰는데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평균 62권이라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 62권 각 문화원별 발행해가지고 문화원 연합체에 보여줄 겁니다. 문화원 연합체에 그러면 서고가 있냐? 창고에, 컨테이너 박스에 박혀있습니다. 그동안 60년 동안 문화원에서 발간해가지고 발행해가지고 문화원 연합체에 보내줬는데 문화원 연합체 사무실에 서고가 없으니까 컨테이너 박스에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는 원장님들이 책 발간 많이 했다고 흐뭇해 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정적 우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콘텐츠는 창고에 쌓여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책을 재미나게 읽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민속학을 했는데 그때 어느 지역의 말 무덤, 장군이 뒹던 말 무덤을 조사를 해서 말 무덤이라고 했는데 그사이 마을 주민들이 옛날 장군의 말 무덤이 되지만 나쁜 말도 물어버리는 언어의 무덤이라는 말도 생겨나

버린 겁니다. 말씀의 무덤은 안동에만 있는 것으로 됐는데 그래서 안내판을 쓰려는데 두 가지를 같이 써야 하나 하나만 써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제 지도교수님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두 가지를 써라.”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왜요?” 하니까, “민속은 살아있는 것이다. 지금 당대에 말하는 것 이것 또한 민속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속학만 50년 공부하신 분이 아주 대놓고 그냥 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원은 그 콘텐츠를 가지고 그럴 배짱이 없었던 겁니다. 당대의 삶도 민속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이제는 지역문화원이 콘텐츠의 우위성들을 빨리 내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콘텐츠를 다시 재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 재 활용은 굉장히 다양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줄다리기만 하는 문화원끼리 연계해서 줄다리기 가지고 민속 콘텐츠를, 줄다리기 콘텐츠를 하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든 칙으로 줄을 만들고 밀양은 게줄다리를 하고 있습니다. 칙으로 줄다리기는 곳은 대개 산간지역입니다. 그런데 담양은 산간도 아닌데 칙으로 줄다리기는 곳도 있습니다. 왜 칙으로 줄다리하느냐? 벚짚은 아깝기 때문에. 그런 곳도 있고, 안동에 차전놀이가 있듯이 전라도는 고싸움놀이가 있습니다. 이런 전투적 양상의 놀이라고 하는 것들도 다 모아서 보면 엄청납니다. 우리가 월드컵이나 다른 세계 대회의 올림픽이나 이런데 장식용으로 문화를 사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이것들을 가지고 시행해나가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이 가졌던 지방문화원 진흥법이라는 특별법에 대한 의존, 그에 대한 너무나 굳센 믿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보니까 이동준 사무국장님은 앞으로 40년 후, 20년, 30년 후를 쓰신 것 같은데 저는 20년, 30년이 채 못 걸릴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가치 고민들을 해주시고 문화원을 거쳐 간 인력들을 다시 한 번 홈커밍을 하든지 해서 그들을 파트너로 삼아 같이 가시는 동반성장의 기회로 삼으셔야 되고, 지역의 생활문화센터가 되었건 문화의 집이 되었건 문화재단이 생겨났건 이들과 같이 동반자적 관계에서 같이 출발하지 않고, 먼저 자리 잡은 사람이니까 하는 생각만으로 있었다가는 지역에서 문화원의 위상은 갈수록 축소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빨리 모아 쓸 수 있는 게 필요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를 해체적 수준의 발전 방안까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국문화원 연합회에도 이제는 전문성과 젊은 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합체에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에서 지역문화정책과가 사업을 내려 쫓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 문화원에서 원하는 사업이 갖춰지게끔 같이 지역문화정책과를 압박하고 연합회에서 지역의 여론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덧붙여서 마지막 말씀은 지역의 문화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 주민과 한시라도 문화의 자주력, 문화의 힘이라고 하는 것, 지역에서 문화라는 게 어떤 힘을 갖는가 이 부분에서 문화의 정치적 힘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 문화원이 힘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 박용철 /

여러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지방 문화원에 대한 특별법에 대한 의존을 덜 해야 한다. 전국에 230개 사무국장들이 있는데 스타사무국장이 없다. 우리 문화원들도 각성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뜻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자만심, 자족감에 빠져있다. 또 요새 문화의 집, 생활문화센터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고 같이 동반 성장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이셨고 또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콘텐츠 다양하게 개발해야 되고 연합회를 해체적 수준으로, 여러 가지 약간 연합체가 듣기에는 거북스러운 이야기까지 하셨는데 어찌 보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발제는 ‘지역서기 2049년, 우리 지역은 그때까지 남아있을까’에 대해 이동준 이천문화원 사무국장님이 발표해주시겠습니다.

2049년, 우리 지역은 그때까지 남아있을까?

이동준(이천문화원 사무국장)

이천문화원 이동준입니다. 제목을 ‘2049년 우리 지역은 그때까지 남아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뽑았는데요. 이것을 고민하면서 잡은 제목은 우리가 과거와 현재의 합으로서의 지역학을 많이 생각하고 그것을 문화원의 주된 과업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좀 미래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봐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차재근 위원장님 발표 말씀 중에서, 주요한 지역문화진흥법의 과제 중에 하나로 언급하신 것 중 하나가 지역 간 격차 해소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시면 과연 지역 간 격차라는 것이 합당한가? 이것은 둥근 사각형 같은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 간 격차라고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지역 간 문화 격차, 여러 사회 분야에서의 격차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서울도 지역입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두고 볼 때 서울은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중앙과 지역 간 격차라 말해야 옳겠죠. 과연 지역문화진흥법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한다고 하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 말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중심부와 지역 간의 격차, 서울과 지역 간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 자유행 문화원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지역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역 소멸과 지역 정체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만, 과연 정체성의 기본이 무엇인가? 저는 정체성의 기본을 독립이라 생각합니다. 인구 소멸에 대한 말을 할 때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은 소멸에 대한 걱정을 뭘 걱정하느냐 합니다. 지자체나 중앙 정부에서 돈을 내줄 테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근본적인 지역 자치라는 것은 요원하구나 생각합니다. 제가 지역 소멸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그만큼 지역 문화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방 문화원, 지역 문화원이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지방 문화원은 과거와 현재에 대해 고민해야 할까요? 2049년, 39년까지 우리 지역은 남아있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대 트로이를 보시면 9개의 도시 문명 지층이 나옵니다. 제가 올해 이천 문화원에서 트로이 문화 탐방을 갔습니다. 트로이에는 지층이 있습니다. 그 지층들을 1층부터 9층까지 구분을 해놨는데 그 지층들이 놀랍게도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스의 무대가 된 지층은 1층, 2층이 아닌 4층에 해당됩니다. BC3300년부터 AD500년, 600년 로마 시대 이후까지 한 도시가 멸망하고 다른 이민족이 들어와 도시를 세우고 번성하고 멸망하고 그런 층이 겹겹이 쌓여서 9개 층들을 이루고 있는 거죠. 저는 고고학적인 화석의 지층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도시 지층도 있더라고요. 대구에 왔더니 대구의 지층도 있더라고요. 근현대의 지층과 아주 최근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겹겹이 쌓인 콘크리트 층이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도시도 명멸해가는 것이구나. 별들이 태어나서 죽어가는 것처럼 사람이 태어나서 사라지는 것처럼 그와 같이 트로이도 한 도시가 명멸해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문명이라는 말은 civilization이라 하는데 이 말은 civic, civitas라고 하는데 로마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civilization이니까 ~화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문명이라는 것은 도시화 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류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도시화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도시는 과연 독자적으로 독립해서 존재할 수 있는 집단, 인프라인가? 그렇지 못합니다. 도시는 배후지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 도시에 공급할 식량, 도시에 공급할 수원, 도시에 공급할 수많은 필요한 욕구들의 자원들이 없으면 도시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동물의 세계로 표현하자면 육식동물과 같은 것이죠. 최상위에 있는 거대 도시 메트로폴리탄 도시는 일종의 사자와 같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사자는 독자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육식을 해야 하고 약한 동물을 잡아먹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 약한 동물은 무

엇입니까? 바로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일종의 토지와 같은 끊임없이 식량을 생산하거나 수원을 배후에 두고 있는 산간지역이거나 이런 지역을 배후로 삼고 있습니다. 도시가 성장해가는 과정은 어떨까요? 도시는 끊임없이 성장하려고 하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편리를 위해서 도시로 몰려듭니다. 그러면서 자꾸자꾸 일정 수준까지 성장하죠. 하지만 그 도시의 용량을 채우는 한계까지 오게 되면 그 주변의 지역들이 전부 사멸해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도시 문명은 중심으로 주변의 자원을 빨아드리죠. 모여 살면서 끊임없이 빈부격차가 생기고 소외가 생기고 공해가 생기고 오염이 생기고 범죄도 생기고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문화라는 말은 사실은 도시문화라는 말도 쓰이고는 있지만, 근원으로 따지고 들어갈 때 culture라는 말의 근원은 cultivate 라틴어에서 온 말이기도 하지만 한문으로 따지면 무늬 문(文)자를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빗살무늬 토기와 같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집단적으로 살아가면서 삶의 생활 방식을 표현하는, 담아내는 형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문명과 문화를 대비해본다면 문명은 도로와 같고 문화는 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로는 효율성을 추구하죠. 빨리 달리면 됩니다. 속도를 중시합니다. 하지만 도로의 의미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목표가 있죠. 빨리 도달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길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길을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만나면서 마주치는 사람들, 마주치면서 다가오는 여러 풍경들, 걸어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부분들, 과정 과정이 이 길을 통해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화를 생각할 때 인간의 삶을 생각할 수 있고 인간의 삶의 내면화를 통해서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최근에 낙후도시, 쇠퇴도시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낙후도시는 개발에 뒤처졌다는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쇠퇴도시는 개발의 정점에 도달하고 나서 더 이상 개발이 되지 못하고 더 이상 발전이 없어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기반들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에 점점 불편해지는 상황이 초래되는 도시를 쇠퇴도시라고 하겠죠. 이런 도시들, 특별히 산업화를 통해서 또 도시화를 통해서 근대화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간 도시들이 공동화 현상에 마주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세계의 정부가 들고 나오는 정책들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도시 재생 사업들, 문화재생이라는 말까지 요즘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도시는 살아나던가요? 저는 여러 가지 겉포장 된 도시를 눈에 반짝이게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모양새로 많은 사람들을, 예술가들, 또 문화사업 기획자들을 동원해서 하고 있

는 많은 사업들의 근본을, 근간을 살펴보면 그것은 눈속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도시는 살아날까요? 과연 그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도시의 형태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 지역문화 예술 플레너라는 공모사업을 모집하는, 문화 기획자들을 모집하고 양성하는 프로그램들을 마주치게 되는데 과연 지역문화를 얘기할 때 이런 수많은 소용돌이의 와중에서 지역문화는 과연 지역을 살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또 다른 연명 치료가 아닐까? 지역문화진흥법으로 상부에서, 중심부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또 다른 반복되는 되풀이를 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서 과연 바닥부터 의견을 모아서 지역문화 진흥 정책을 세우는 과정을 제대로 밟고 있는 것인가? 또다시 무늬 흉내 내기가 아닌가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문화원이 소외되어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전히 서울은 중심이고 지역은 식민지입니다. 그것은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 때부터 근대의 제국주의에 이르기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솔직히 아주 솔직히 이야기해서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민국이죠. 서울의 관점에서, 중앙의 관점에서, 중심부의 관점에서 지역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고 그들의 관점에서 지역문화진흥법을 수립하고 정책을 수립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책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역문화 정책 수립을 그들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역의 독립선언이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의 탈, 악어의 눈물

양들 무리 속에서 양들은 누구까요? 지역의 무리 속에 스며들어온 사자, 혹은 늑대가 지역문화를 그들이 논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에 스며든 탐욕스러운 도시 지향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근거해서 밥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문화를, 지역을 살리겠다고요?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만이 살길이라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했습니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여사를 올해 만날 기회를 있었고 그분의 저작들을 만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결국 거대 도시만이 살길이 아니라 이렇게 치열한 격화된 세계화에 자본주의에 치달는 세계화의 과정속에서 그다음에 자원이 고갈되어 가는 지구 환경 속에서 앞으로의 대책과 희망을 어디에 걸 수 있을 것인가 그분은 과감하게 로컬만이 살길이다. 로컬의 미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럼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지역이 희망이 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마치 대도시만이 마치 구세주인 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인데요. 구세주가 베들레헴에 났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세주가 대도시 로마나 대도시 서울이나 대도시 뉴욕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시골 한촌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 있는 사건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개천에서 용을 키워낸 것일까? 그리고 그 개천에서 난 용들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것일까? 개천에서 사람을 길러냈지만, 용을 길러냈지만, 그 용들이 또다시 도시 지향의 삶을 살고 있고 끊임없이 중앙부를, 중심부를 향해서 지향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상 지역은 미래가 없다,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지역만이 살길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지역 고유의 문화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이 자족적인 삶의 양식, 생태계를 새롭게 창출해 낼 수 있다면 지역이 희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 속에서 지역문화진흥법이 작동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유사 지역문화 기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감출 수 없습니다.

몇 년 전 돌아가신 신영복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변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변화는 중심이 아니라 변방에서 나온다. 저는 이것을 지역으로 고쳤습니다. 지역에서만이 참다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중심부에서 변화가 일어납니까? 절대 못 일어나죠. 왜? 중심부는 권력이 집중되어있고 권력을 차지하고 있고 이미 모든 기득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변화의 세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고려 말에도 그랬고 조선 후기에도 그랬고 지금의 새로운 변화의 조짐도 결국 변방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은 변방이죠. 지역 문화는 변방 시골 개천을 키워낸 용을 키워낸 개천의 문화죠.

그런데 개천의 용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과연 지역문화를 가장하고 수많은 시간 강사들, 수많은 문화 기획자들, 도시에 근거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문화의 돈벌이에, 지역문화로 인해서 중앙정부와 국제사회에서 수없이 쏟아내는 재원들에 빠져서 이런 부분들을 향해서 주변부를 어슬렁거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지역문화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용들이 개천으로, 지역으로 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의 삶을 배우고 그 사람들이 과거에 가져왔던 지식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먼저 지역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 사람들이 있을 자리를 찾기보다는 먼저 지역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지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지역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 구세주가 났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의미의 구세주가 필요한 것이죠. 그 구세주는 잠시 호적 하러 며칠 묵어가는 구세주가 아니라 그리고 해외 원정 출산을 위해서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잠시 거대 국가, 권력이 집중된 도시에 가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그 한촌인 지역에 평생을 살기 위해서 오직 지역만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향해 가기 위해서 거기서 새롭게 디디고 미래의 희망을 보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이 지역문화진흥법이지 않을까요? 그 외의 다른 의미의 사업들은 소위 껌데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화 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왜 문화가 다양해야 할까요? 하나의 문화, 문화의 독점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의 지역, 지역들을 거점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고유의 문화가 다양하게 어우러져야만 사자가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자만 득실대면 결국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토지가 이미 말라버렸다는 이야기고 사자들끼리 싸우다가 결국 암세포처럼 멸망하게 되지 않을까요? 지구 자원이 고갈되게 된 것은 거대 도시로 치닫는 우리들 삶의 양식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의 양식을 바꾸어내려는 노력을 지역에서 실현해내지 않는 이상 도시는 희망이 없습니다. 도시 구조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다양성을 저는 먼저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더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종 다양성입니다.

문화 다양성을 이야기하기도 힘든데 왜 종 다양성까지 이야기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바로 우리 피부로 와닿는 위기에 닥쳐있기 때문입니다. 그 위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생물 종 다양성이 불가능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기후 변화가 피부에 와닿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운동에 뛰어들었던 2001년, 2002년 당시에는 기후변화는 단순히 환경 보호만이 슬로건으로 내걸려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 2009년부터 점점 우리나라에도 기후변화가 점점 피부로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우리 발등에 와닿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홍적세 있지 않습니까? 현생 인류가 탄생한 홍적세는 넘칠 홍자를 씁니다. 지구의 끊임없는 지각변동 속에서 일종의 홍수와 같은 그런 부분들 속에서 지각변동을 일으켰던 지층이 바로 홍적세라고 볼 수 있죠. 과연 제2의 홍적세가 오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과 조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도시화로 치닫고 도로를 깔고 도시적 삶의 탐욕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많은 기계들과 인프라를 넓혀가는 과정 속에서 배후지역들은 점점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에피소드 6개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맨 먼저 나오는 것은 인구 감소 부분인데요. 인구 감소 부분이 지도로 표현되어 있는데 2016년, 2017년도에 경기도 지역에 태어나는 분이 돌아가시는 분의 1/2도 안 되고 극히 절망적인 상황, 소멸될 위험에 처한 지역을 지도로 표현한 것이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연천, 가평, 양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쯤 보도된 통계청 자료에 여주가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을 에피소드 1로 보면 2039년, 지금으로부터 20년 뒤에 과연 경기도에서 소멸 위험 도시가 몇 개나 있을까요? 거의 10개 이상 되리라 생각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서울의 배후 도시가 경기 아닙니까?

두 번째 부분은 2019년 올해 돼지의 해인데요. 우리 이천에서도 그렇고 연천에서도 그렇고 휴전선 인근 지역의 지자체에서 수많은 돼지들을 살처분했습니다. 수십 마리의 새끼 돼지들과 어미 돼지들이 집단적으로 매몰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되면 올해 우리들도 하반기에 이천 문화원에서 거의 전시 공연 행사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들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 전시와 공연을 문화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부분들은 점점 더하기 어려워지리라 생각합니다.

강원도 6개 도시가 거대 산불로 초토화되는 것을 2039년에도 생각해봤습니다. 점점 산불이 많이 나는 것,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것 걷잡을 수 없이 산불이 일어나는 것 어디에 원인이 있을까요? 다 연동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북극 빙하가 대부분 붕괴되고 전국의 해양도시 지표면에 몇 퍼센트가 점점 침식되면서 수십 년에 걸쳐서 간척을 해온 해안 도시들도 점차 침수될 위기가 닥쳐오겠죠.

에피소드 5는 2029년 12월 10일 양평군, 가평군, 여주시 등 경기도 7개 도시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해서 지속가능성 재판소가 UN에 설치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지속가능성 재판소에 재판하고 서울을 인구 300만 이하로 줄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아무런 대비를 못 했던 서울은 극심한 혼란에 쌓이고 이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서울 배후의 지역 도시들이 살 수 있느냐? 마땅하게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튜베리라는 스웨덴 소녀가 UN에서 몹시 연성을 올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연설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왜 세계지도자들에게 화를 내고 있을까요? “당신들은 저희들을 속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살아가야 할 세대들인데 어떻게 당신들은 이런 위기를 닥쳐서 가만히 태연하게 계속적인 지금의 삶을 연장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인 폰다가 어

린 소녀의 연설을 듣고 며칠 전 기후변화의 투사로 나서는 장면들이 며칠 전 뉴스로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기 없는 육식 통제의 날 이런 부분들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영국 록밴드 콜드플레이가 나왔는데요. 한번 모일 때마다 10만 명 이상들이 모이죠. 한번 모일 때마다 엄청난 사람들이 동원이 됩니다. 이 콜드플레이가 월드 투어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투어를 하면서 끊임없는 뉴욕에서 파리까지 왕복으로 3천 번을 달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발적으로 거슬러 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소소한 지역 사회의 일상 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양식을 바꿔나갈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것. 그것이 지방 문화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전시와 공연에 매몰되어가는 지방 문화원이어서는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시와 공연, 그 밖에 자잘한 문화 사업에만 생각을 하고 10년, 20년 앞으로 더 근무하기를 원하십니까? 절대 그것만으로 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정신 차리지 못하는 우리나라와 문체부와 정책 입안자들에게까지 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좌장 박용철 /

지역만이 살길이다. 변화는 중심이 아니라 지역에서 나온다.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지정 토론 있는데요. 토론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토론

한용삼 광명문화원 사무국장 /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전고필 이사님이나 특히 우리 이동준 사무국장님은 앞으로 PPT를 약간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소문이 나서 스타 사무국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저는 광명 문화원에 작년 2018년도 4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무슨 일을 했냐 하면 저는 상당히 대중문화 쪽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방송 PD로서 일을 했고요 2년정도는 한국 문화 즉 콘텐츠진흥원에서 IT 기기 관리담당자를 했기 때문에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기획과 개발

을 했었는데 그러다보면서 여기 문화원이라는 곳에 와서 엄청난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특히나 IT 기기 자체의 가치가 3천억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단말기가 150억 정도였습니다. 전국에 있는 방송국의, 280여 개의 방송국에 담당자였는데요. 결국에는 뭐냐면 여기 와서 답답했던 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기관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다면 방송국은 사단 법인이에요. 사단 법인이지만 수익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광명문화원, 아니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경기도 문화원, 전국의 문화원을 보면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몇 개나 되나 보면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밖에 못 봤어요. 강원도 강릉하고 동해 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강릉 같은 경우에는 80억 가까이 수익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다보니 엄청난 자생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생력으로 지금 문화원의 기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전에 있는 기관도 그렇고 한 해 천억이 넘는 수익 사업을 하고 있어요. 결국 지금까지 문화원에 이미지라던가 자생력이라던가, 어떤 지역이 확보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생력, 즉 수익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말 안타까운 게 지자체에서 전부 막고 있어요.

우리는 지역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정관에도 나와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경기도지사의 허락을 구하면 됩니다. 허락하에. 정말 단순해요. 그냥 신청하면 된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해요. 수익에 대한 명분만 전달해주면. 근데 제가 문의를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익사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면 오히려 역으로 그러면 보조지원금을 끊겠다고 나옵니다. 심지어 우리 문화원 자체도 시에서 백 프로 지분을 가지는데 거기서 나가라고 합니다. 심각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콘텐츠에 대한 마인드, 문화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게 정말 현실이에요.

차재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아성찰을 해야 합니다. 인적쇄신을 해야 합니다. 우리 전고필 이사님께서도 오늘날 말씀하신게 아니라 전에도 토론할 때마다 매번 말씀하시는 게 이대로 있을 겁니까? 정책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현실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방 문화원은 지자체와의 유대 관계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규모와 환경적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 문화재단은 문화원의 많은 사업과 그 역할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문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광명 문화원에 40억 가까운 사업과 위탁 시설만 해도 4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심지어 오리서원, 즉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업까지 전부 다 문화재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제 문화원은 생존을 위해 시대에 상응하는 다양한 문화와 콘텐츠에 대한 기획력과 경쟁력을 갖추어 자생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익사업을 해야 합니다. 수익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각 문화원마다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저처럼 보조금을 끊겠다는 협박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소할 방법이 없냐? 이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고필 이사님도 말씀하셨다 시피 연합회 차원에서 경기도 도지사의 허가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차원에서 경기도와 이야기해서 공식적인 공문을 왜 각 지자체에 내리지 못하냐 이거예요. 각 문화원에 수익사업 신고하라고 왜 못 합니까? 그게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마케팅을 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자생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문화원과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으로 눈칫밥을 먹고 있고 문화원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4차 산업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멀게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들여다 봐야 합니다. 아까 아카이브 말씀도 하셨지만, 다방면의 아카이브가 필요합니다. 발간으로서의 아카이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부 다 창고로 가게 되는데 결국 제도화할 수 있는 아카이브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결국 4차 산업과 뗄 수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수익사업에 대한 방법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좌장 박용철 /

그래서 광명 국장님의 말씀 요지는 문화원이 많이 있지만 수익 사업을 하고있는 곳이 단 두 군데다. 자생력과 경쟁력을 위해서는 수익 사업을 해야 하는데 거의 못하고 있다. 수익 사업에 대한 방법론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전고필 이사님에게 질의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전고필 /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 사업에 대한 요구들이 간헐적으로 있었어요. 지금처럼 가장 선도적인 강릉문화원은 단오제와 더불어서 같이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 지역에 굉장히 많은 지지와 신임을 받거든요. 그래서 강릉문화재단보다 훨씬

더 힘이 센 게 강릉 문화원입니다. 강릉문화원은 의지를 갖는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연계되어있는 회원 조직이나 이사 조직이 굉장히 짙고 학계에서 지지받고 응원받기 때문에 어떤 걸 하더라도 강릉시가 도울 수 있고 해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를 하기 위해서는 시범 사업으로 먼저 2020년에는 몇 군데에서 시범을 하겠다. 그리고 나서 사업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와 관련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접근할 건지도 각 문화원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전통성과 신뢰에 기반한다면 가령 화성 같은 경우는 염전을 기반으로 한, 화성 쪽 염전은 옛날 옹기 같은 파편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전라도 신안은 장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율을 위해선 장판인데 생태적으로는 옹기를 쓰는 게 맞거든요. 화성 문화원이 공생사업을 벌인다. 이런 생산 증진과 전통 기술들, 그리고 광명의 기형도라고 하는 시인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서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요절한 시인으로서의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얼마든지 콘텐츠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핵심군을 가지고 어느 곳에 전략적으로 투입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시범 사업으로 접근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좌장 박용철 /

문화원별로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 시범 사업으로 차별적으로 해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하면서 광명하고 화성을 예로 들어 설명해주셨습니다.

남양주문화원 000 /

정부 지원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정치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표를 얻기 위해 문화원을 이용하는 게 많은데 사람에 따라서 문화원에 대한 지원이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조광한시장님도 모셨지만 취임하기 전에 문화를 모르는 시장은 시장 감이 안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산이 전보다 깎였어요. 사무국장님도 얘기했는데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남양주문화원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시에서는 겨우 문화원에 있는 직원 급여를 주고 오전에도 얘기한 시범 사업을 따고 나면 자원봉사자들 밥값 주고 하면 문화정책이 어떻고 남양주시 문화정책과가 있는데 복지 예산 퍼주고 이런 건 아주 뒷전이에요. 생색만 우리는 남양주 문화원이 있다고 보여주기가 쉽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남양주 문화원만이 아니라 전국이 똑같다고 봐요. 강릉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그런가보지만 뭘 하려면 시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시에서는 너네 떠들어라 시의원이고 도의원이고 똑같아요. 이런 행정관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의 의식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문화원은 겉핥기식밖에 안되고 전시행정이라고 봐야 해요. 아까도 제가 대놓고 그랬어요. 우리 남양주가 예산이 적어요. 다른 곳은 어떤지 모르지만 다른 문화원은 어떤지 듣고 싶어서 제가 여길 왔어요.

좌장 박용철 /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사실은 아주 핵심을 찌르시는 말씀입니다. 시장님의 문화예술에 대한 마인드가 어떻게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문화원의 예산이 어떻게 수여 되느냐 많고 적고가 정해지는 것 같아요. 저희 동두천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고필 /

논의의 핵심 중 하나가 문화자치거든요. 90년대 후반에 광주광역시에 주민참여예산을 시작으로 예산심의과정에서 주민들이 라운드테이블에서 어느 쪽으로 예산을 줍시다하고 예산 한도를 어느 때는 10군데에서 나눠 가지든 어느 때는 한 곳에 밀어주고 주민들이 참여한 수기가 있습니다. 이걸 문화원에서 키워내야 합니다.

아까 이 책자 보면서 여기에 인사말 다듬으시느라고 공을 많이 들였다. 국회의원들 세 명 갑, 을, 병 세 분이 서로 안서운하면서 비빌 언덕이 되어주려고 노력하셨는데 그런 주민참여예산하고 두 번째는 다산 카르텔이라든지 다산에 네트워크를 맺어 강진하고 여기하고 또 다른 곳 다산이 거쳤던 화성이라든지 카르텔을 맺어서 국가적 사업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사업들을 문화원이 끌고 가는 콘텐츠 기획 능력이 있으면서 양단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식, 그리고 콘텐츠 기획.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똑같은 거니까.

좌장 박용철 /

다음은 화성문화원 박희정 사무국장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박희정 화성문화원 사무국장 /

지금 토론자로 왔습니다만 지금 토론할 거리가 없어요. 지속발전가능한 문화원 만들기 액션 토크인데 사실 토크액션인데 액션 토크가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다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감추고 싶은 부분을 너무 감추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현재진행형에 문화원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해주셨고 이동준 국장님께서서는 앞으로 30년을 바라보고 문화원이 어떻게 발전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주셨는데 사실 토론 거리가 없어요, 다들 맞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각 문화원에서 찾아가야 하는데 항상 국장들 모임에서 모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똑같은 이야기에요. 제가 2002년도인가요 처음으로 사무국장으로 갔을 때 근무하다가 10여 년 전에 그만두고 다른 일 하다가 화성문화원에 온 지가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화성 문화원이 옛날 제가 수원 문화원 처음 갔을 때랑 지금 상황이 똑같아요. 다만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 당시엔 예산이 전혀 없었고 이제 화성 와서 보니 작년 예산이 3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맡고 있던 기관들이 빠져나가니까 예산이 8억 정도 줄었어요. 계속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재단으로 귀속되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기감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셨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지역문화원에서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는 설립 근거가 지방문화원진흥법인데 재단은 설립 근거가 시의원들이 만든 조례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크건 적건 내려오지만 그래 봐야 시하고 관계가 좋아서 많이 줘봐야 10억 단위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재단이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100억 이상 내려오거든요. 화성 문화 재단이 360억인가 그렇습니다. 직원 160명에 아직도 계속 뽑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 6명에서 5명으로 줄었습니다. 한 명이 인턴 비슷하게 200만 원 주고 들어왔었는데 계약이 끝나서 나갔어요. 그 TO를 살리지 못했어요. 살리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현 상황을 사표 내놓고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여기까지 발전한 것도 지금까지 문화원에 애정을 가지고 힘을 보태주신 이사님들이나 원장님들 이런 분들이지만 실질적으로 또 그분들이 문화원을 망쳐두기도 했어요.

저는 오늘 그런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면 사실은 토론할 거리가 없어요. 다 기본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것이고 시장한테, 국회의원한테 잘 보여서 예산 받아야 되는 거

고 그걸 원장님한테만 떠맡기고 이사들 입장에서 저 사람 뽑아놓으면 돈 좀 끌어올 거야 해서 뽑아놨더니 가서 밥이나 먹고 오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거든요. 실질적으로 문화원장님들이 그 일만 하시냐고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하신다고요.

그렇다고 해도 오늘 발표해주신 두 분의 이야기는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이야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준 국장님 도시의 탄생과 소멸, 문화의 탄생과 소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비교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문화를 확장시킬 것인가. 다 좋은 말씀인데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문화원은 전통적인 것, 옛날 고리타분한 것을 해야 하는 동네, 재단은 생활에 밀접해야 하니 큰 행사 같은 것을 재단에 주는 그런 논리를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 빠뜨리고 있는 게 뭐냐면 문화원처럼 재교육을 받지 않는 단체가 없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직원들 연수를 하긴 하는데 더 자주 있어야 합니다. 문화원 보면 평균적으로 7~8년 근무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7~8년 근무를 하면서 어떤 재교육을 받았는지 묻고 싶어요. 물은 고이면 썩는다고 하듯이 우리는 똑같이 가거든요. 문화의 다양성도 좋고 그동안 해온 것을 아카이빙하는 것 다 좋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내년 1월이면 2만 7천여 점의 지금 가지고 있는 전 자료를 아카이빙해서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서고가 없어서 그냥 쌓아놔요. 자료가 들어오는 족족 PDF 스캔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또 한 가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저작권이에요. 우리가 제 3자에게 저작권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이것을 모든 국민이 쓸 수 있게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저작권 문제도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각 지역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저작권, 지역학 아카이빙을 서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지자체에서 시사, 군사를 만들면 그 자료를 대개 성심여대나 국사편찬위원회나 이런 데에 옛날 사진이나 지도가 저작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작권이 그 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디지털화 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만들어봐도 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국회 도서관이나 이런 데 우리나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접근해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고 대학교수라든지 연구자에게만 접근 권한을 줘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예요. 문화가 국민 누구나가 향유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걸 다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자료 수집한 것 자체가 국민의 피와 땀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왜 그걸 자기들이 독점하느냐 이걸 사실 중앙, 지방의 논리와 귀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앙에서 만들

었으니 같은 관공서 안에서도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은 행정 체계 안에서도.

그러저런 부분에 대해서 이동준 국장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30년 후에는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아서 문화원에서 저 같은 경우는 10년 넘게 근무를 하면서 무언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저도 곧 나가야 할 나이가 돼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중 우리 문화원은 수신도 제가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문화원이 60년이 넘었지만. 그런데 어디나 다 똑같아요. 특이하게 강릉문화원이 잘된 것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시하고 도하고의 관계, 이사회 말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질문 아닌 질문을 드리자면 저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문화원에 근무하는 분들이 느낄 수 있는 방안을 경영진들하고 어떻게 부딪히지 않고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그분들이 배우신 시대와 지금 시대가 다른 겁니다. 이동준 국장님이 얘기했던 3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제가 모시는 분들보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대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크게 생각해봤습니다. 30년 후라는 걸. 현재 원장님과 직원들과의 관계는 30년이 떨어져 있습니다. 세대가 달라요. 두 분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매끄럽게 윗분들하고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부탁드립니다. 토론 보다는.

좌장 박용철 /

이게 우리 말씀하신 토론 주제가 아닌데 우리 문화원의 위기에 대책을 만들어나가는 데 있어서 실무진들과 문화원을 대표하는 원장님과 경영진하고 부딪히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고필 /

제가 사무국장님을 대상으로 대전에서 강연을 할 때 사무국장님이 보이콧을 하고 나왔습니다. 재정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예전에 권력이 하늘을 찌를 때였는데 그 권력을 나눠서 같이 끌고 가자는 걸 듣기도 싫어하시던 시절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었는데 그 기고만장했던 그분들이 지금은 문화재단 앞에서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며칠 전에 대전서 한 친구를 만났는데 분명 예전에 울산 문화원에서 일하던 친구를 만났는데 왜 여기 있냐고, 물어보니 대전문화재단에 취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문화원에 계시는 양질의 분들은 문화재단에서 스카우트해서 헌팅해서 가는 세상인데 옛날 방식으로 대한다는 건 전혀 해결되지 않는 일. 우선 인적 자원 관리부터 잘하셔야 될 것이다.

기왕 인적 자원 관리할 때 키워서 남 준다는 생각을 하는 게 마음 편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인재가 전부 서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엇그제 송파인가 이 근처 문화재단이 하나 생겼거든요. 춘천에 3명, 원주 2명 데려갔습니다. 전부 서울로 빨리고 있다고 봐줘야 되거든요. 지금 인천에도 문화 재단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충청도에서 싹 거뒀 올립니다. 충청도, 제주도는 안타깝게도 문화 일하는 사람이 없는 지경입니다.

저는 원장님들이나 간부님들의 그 회생들, 공로는 인정하지만 전문직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부 문화정책과에도 계속 주장을 해옵니다. 왜냐면 그래야만 문화원이 쇠신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2004년에 문화원 사무국장들이 고령화 되어가지고 원장님 나이만한 사무국장들이 있으니까 50대 미만으로 해가지고 정부가 문화원 사무국장 급여를 줄 테니까 50대 미만으로 채용하면 줄 것이고 아니면 안 줄 것이라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무의미하게 바뀌기도 했지만, 그때 2004년~2006년 사이에 엄청나게 문화원이 쇠신의 기회를 갖고 좋은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나온 『90년대생이 온다』는 책이 있는데 제가 살까 말까 했는데 이 책 사서 보셔야 합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 말씀드리어서 그걸 보고 그 세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문화 창조, 이런 것들을 이들이 다 하기 때문에. 별일 아니지만 며칠 전에 U2라는 그룹이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들의 메시지가 평화와 전도, 소수자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여성에 대한 지위 향상이라든지 이런 쪽의 고민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만나는 정도의 상황입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 이들이 이런 문화의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간부님들이 정확히 숙지하지 않으면 쇠신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야단을 맞은 것 같습니다.

이동준 /

저는 어떻게 보면 화성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12년에 들어와서 매년 국장 연수를 할 때, 문화원이 모일 때, 직원들이 모여서 연수를 할 때 끊임없이 반복되는, 재생산되는 주제들이 있거든요. 법과 제도, 사업을 논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커다란 줄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 말고 지향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원의 혁신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방향을 바라보느냐 인데 항상 실버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원들이 끌어안고 있는 것이 보고임에는 틀림없지만 이것을 현재로 재해석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유산으로 넘겨주느냐에 대한 어떤 가치 부여하는 능력이 모자라거

든요. 그래서 특히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뽑는 거로 그치지 말고 적어도 중앙 단위에서 교육 과정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고 광역 단위나 전국 단위의 의사결정 구조는 원장단 회의잖아요? 총회나 그런 곳에 적어도 2인 정도가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사무국장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사무국장이 좀 참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거 같아요. 의사결정구조의 획일화와 타성에 젖어있는 방식으로서는 혁신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오직 유일한 혁신이라고 하면 예전에 문체부에서 사무국장을 이런 방식으로 뽑으면 지원해준다고 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체적으로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아무리 어떤 밸류를 가치 공유를 하신다 하더라도 쇄신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스스로 마을지를 만들어내지만, 향토지 성격으로 많이 만들잖아요. 저희 이천에서는 향토지 성격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되돌아보고 필요한 자원들을 엮어서 마을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해가거든요. 단순히 마을지가 아니라 마을지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일어서거든요. 마찬가지로 각 지역에서 문화원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과 그 지역에 지역성의 문제들, 미래에 대해서 문화원이 가장 많이 고민하잖아요. 문화원에 관여하고 있는 임원들이, 이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됐건 함께 지역의 앞으로의 5개년을 바라보는 지역문화 진흥 계획을 문화원의 시각에서 만들어보면 스스로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지 무엇을 우리가 바꿔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거든요. 이것을 누군가에게 맡기지 말고 스스로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론을 보강해야겠다, 이렇게 설득해서 예산을 해야겠구나! 무조건 달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테니까 어떤 역할을 할 테니까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야 설득이 되잖아요. 문화원 자체만 보지 말고 지역사회 전체의 지평을 보면서 5년, 10년, 여력이 된다면 20년까지 바라보면서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과거의 문화원에 묶여있다는 이미지를 지우고 과거를 디디고 서야만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걸 확신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플로어 토론

좌장 박용철 /

두 분 토론과 답변 말씀이 있었는데 플로어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에서 추가적

인 질문 사항이라던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참여자 /

광명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방법이 있습니까?

한용삼 /

제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공무원으로서 어떤 수익 사업에 대한 기획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너무 문화에서 벗어난 수익 사업보다는 문화를 통한 어떤 수익 사업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영상 콘텐츠 제작을 하고 싶다면 아카이브 차원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면 여기에 대한 공모 사업이 5억짜리가 있으니 이 5억짜리에 대한 아이디어,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과연 시에서 갈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해요. 이 공모 사업을 5억짜리를 신청했을 때 글로벌 국제 공동 제작을 했을 때 해외 쪽으로 또 보내줘야 해요. 해외 수익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광고 홍보 마케팅을 해서 판매가 되거든요. 이런 수익 사업들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면 이걸 통해서 다양한 캐릭터라든가 브랜드 사업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브랜드 사업들이 현장 답사라든가 박물관에 판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수익 사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화원의 수익이 조금이라도 인건비라도 고려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수익 사업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하겠다는 것을 계획을 제출하고 공문을 보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고필 /

저도 말씀드리면 강릉문화원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강릉단오제를 문화원에서 주체적으로 끌고 갔었어요. 사업성이 있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업이 너무 크다 보니 문화원 사업이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사단 법인을 만들어서 독립을 시킨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쪽을 벤치마킹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문화원들이 231개가 있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염려가 되는 것은 사무국장들이 관계가 가까우면 유적답사도 그쪽으로 자주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일반적으로 잘 안 가요.

예를 들어서 강릉 문화원 같은 경우는 경영진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자료를 받고

얘기를 들어보시면 충분히 가능해요. 거기가 실질적으로 80억인데 75억이 자체 수입이고 시에서 5억 정도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는 문화원에 간섭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줘야 하는 돈, 직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정도만 주고 있어요. 그 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그 사업을 통해서 남은 수익금을 통해서 급여를 처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건 문화원에서 시간을 내서 다녀오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용삼 /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문화원이 나아갈 방향, 미래 비전에 수익 사업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말씀했던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을 정부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박희정 /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감히 말씀드리자면 제 판단에는 돈을 벌기 위한 직원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 회사처럼 영업을 해서 어떤 재화 서비스를 제공해서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그 값어치에 걸맞은 어떤 서비스가 되었건 눈에 보이는 형태가 되었건 보이지 않는 형태가 되었건 돈을 받고 팔아야 하는데 과연 현 상황에서 제가 속해있는 문화원을 화성 문화원을 생각해봤을 때 도지사가 내려준다고 해서 과연 돈벌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책 만들지 않습니까? 또 아카이브 할 수 있죠. 사실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기관지 만 들지 않습니까? 최하로 디자인하는데 한 페이지 디자인하는데 2만 원 주고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주고 쓰죠? 돈이 없으니까 부탁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 자료들이 되어있지 않으면 수익성 있는 사업을 허가를 내준다 치더라도 써먹을 수 없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향해나가야 되는 방향이지만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동준 /

자생력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익사업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더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지자체로부터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받게 되면 어떤 의미로든 종속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회원 회비가 인건비의 70%, 80%였다가 70% 이상은 지원

을 받지 말자. 대부분의 문화원들이 95% 이상을 받습니다. 저희가 올해 70% 도달했거든요. 적어도 회원의 힘으로 30%는 인건비를 충당하도록 하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의미 있는 수익 사업을 개발하고 발굴해서 일정 부분을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사회에 문화원만 바라보지 말고 전체 문화관을 읽어내고 지역 문화를 해나가는 형태력을 발휘해서 외교력으로 자생력을 발휘하는 것은 어떠한가.

좌장 박용철 /

시간이 있으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저희가 한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문화원의 현재 분석을 통한 미래비전 모색을 주제로 제 4 섹션 제1 주제 지역문화진흥원 전고필 이사님이 ‘지역 분권과 문화 자치’, 이동준 이천문화원 사무국장님이 ‘지역서기 2049년, 우리 지역은 그때까지 남아있을까’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었고 그에 따른 화성문화원 박희정 사무국장님 광명문화원 한용삼 사무국장님의 지정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자세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는데 워낙 주제가 광범위해서 폭이 넓었습니다. 이해해주시고요. 마침 이어지는 시간이 지역문화진흥원장님이 지역문화 5개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강연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2시간 동안 같이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표하신 네 분 토론자 발표자께 수고하셨다는 박수 부탁드립니다.

종합 토론

진행 : 이하준(김포문화원장)

• 모두발언

현장에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지방 문화원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아주 강력한 조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문화원의 지역 내 위상은 갈수록 위축되어 가고 있다는 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재단의 설립, 다양한 문화단체들의 난립, 그리고 문화원의 자아발전을 위한 노력 부족,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른 정치적인 이유 등이 우리에게 위기를 느끼게 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누구나 다 위기라고 하는데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모색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위기의 내용과 정도가 다르겠지만 어떤 것이 문제이고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지를 우선순위를 저마다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안 모색을 위해서 합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것은 비영리 독립 법인이라는 자기 위상을 가진 개별 문화원 차원에서는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내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그 문제의 해결만으로도 급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회 차원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데 오늘에서야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염상덕 회장님께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지속발전가능한 문화원 만들기 액션 토크라는 제목의 토론이 되겠습니다.

니다. 지금 이 시간은 각 섹션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해서 함께 공유하고 종합적이고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토론은 총 4개의 섹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경기도민속예술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경기도 민속예술 발전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고 두 번째 섹션은 ‘지역문화원은 청년과 손잡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나이들의 이미지를 넘어서 청년과의 연결과 함께 어떻게 지역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세 번째 섹션은 ‘어르신문화사업과 신중년’이라는 주제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문화원 연합회의 어르신 사업의 추진 방향과 지방문화원과의 접점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한 자리를 마련했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섹션은 ‘지방문화원의 현재 분석을 통한 미래비전 모색’이라는 주제로 현재 문화 정책의 주요 패러다임 안에서 지방 문화원의 향후 어떤 준비를 할지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각 섹션에서 논의된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향후의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앞서서 먼저 주제발표를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고 그 법에 따라서 지역문화진흥계획이 5개년 단위로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데 2020년에는 2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에서 아마도 가장 중심에서 계신 분이 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모신 분이 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원 원장님이신 김영현 원장님을 모시고 현재 그 계획이 어떤 흐름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수립되고 있는지 그 가운데 지방 문화원은 어떤 방식의 접근이 가능할까에 대한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모시면서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현 원장님 단상으로 모십니다.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김영현(지역문화진흥위원장)

에 반갑습니다.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차 수립과정이 있고요.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내일 공개토론회를 합니다. 토론회 하기 전에 발표하면 안 된다고 해서 PPT로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내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니까 현장에 가시면 그 내용을 세세하게 볼 수 있게 될 거 같고요. 이걸 만들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은 특별법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고 지역의 재단들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재단들이 존재하기 시작하기도 했고 그리고 문화원은 중앙에 한국문화원연합회라는 조직이 있고 지역에 내려가면 지회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요. 5개년 계획을 짜면서도 우리나라에 정책적인 조직을 가진 것은 문화원밖에 없는데 문화원이 정책의 중심에서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부터 계획에 노후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사실은 문화원은 빠져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문화원, 문화의 집 이런 곳을 다 리모델링 대상으로 넣어야 된다고 이야기 해서 담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원들이 새로 만들어진 데도 있고 오래된 데도 있기는 한데 문화원이 뭐 하는 공간인가에 대해서 지역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이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곳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요즘 막 들어서고 있는 생활문화센터나 문화의 집이나 문예회관이나 각각의 변별력 속에서 어떤 지역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

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용하고 있지만, 더 많은 지역민들이 충분히 이용하고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화원은 이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제가 이 5개년 계획을 짜면서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연구 작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전국 10개 지역을 수배했었습니다. 전국 10개 지역을 수배하고 나서 이것들에 대해서 방향을 잡고 내용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10개 지역을 수배하면서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광역 재단 중심의 멤버십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들이 많았고요. 예술가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결합되었다고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밑바닥부터 의견이 다 수렴되었는가에 대한 의심이 좀 들고요. 그보다 더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5개년 계획에 담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민간 자발적으로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구술 포럼이라고 해서 담양, 대구, 천안, 충청까지 돌면서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포럼을 했었고 거기서 5개년 계획의 실질적 내부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모아서 5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적는데 2박 3일 동안 워크숍을 하면서 숙박을 하면서 전문 요원들이 이 사업을 완성시켜내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천안에서 마지막 구술 포럼을 1박 2일 하면서 다듬는 작업을 했고요. 그 결과들을 가지고 지난 12월 2일 날 전문가들하고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최종 점검을 한 내용을 가지고 내일 공청회를 하는 겁니다. 공청회가 끝나고 나면 법정 계획으로서 실제 5년 동안 거기에 근거한 사업의 내용들이 만들어지고 시행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부터 시작해서 전산체계에 대한 얘기들이 정리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1차 계획이 올해 종료가 되는데 1차 계획의 이행률을 보면 70%가 좀 안 됩니다. 미이행률이 30% 좀 넘고요. 미이행률 30%라는 것은 아예 손도 안 댔다는 겁니다. 계획을 세웠지만, 이것들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행률 70%는 정말 70%가 완벽하게 진행됐어? 이야기할 때 계획에는 10억짜리 사업을 한다고 해놨는데 1억짜리 사업을 해도 그것을 이행했다는 결과들을 도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70%의 이행률도 완벽하게 이행이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10개 지역을 조사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그러면 5년 동안 이런 계획이 세워졌는데 어떤 것들은 되고 어떤 것들은 안 됐는데 왜 그랬는지에 대한 분석 작업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기 쉽지 않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을 평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하기 위해서 지역문화 프로세스는 그에 근거해서 되었었고요. 반영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차 계획하고 2차 계획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뭘까에 대한 의문이 나옵니다. 1차 계획 같은 경우에는 문화를 바라볼 때 문화를 향유나 소비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한 것이 많습니다. 모두가 문화를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문화적 향유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문화를 향유의 개념, 소비의 개념으로 바라봤던 것에서 1차 계획에서 좀 달라집니다. 문화를 소비나 향유의 개념에서 문화를 통해서 무엇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문화를 통해서 지역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의 작동 원리로서의 문화라는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통 보면 지역 사회가 움직이는 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교제 또는 복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역 사회를 움직이는 데에 가장 핵심적 요소로서 문화가 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문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사회적 가치가 지역의 가치가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계획을 짜게 됩니다. 이제는 문화가 단순한 소비재나 향유재가 아니라 문화를 통해서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하고 방법들을 찾기 시작하는 방식의 계획들이 5개년 계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결과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문화비전 2030에서도 문화를 향유 또는 소비의 개념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분권위가 봤을 때 과연 문화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자율 재정 포괄 예산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 돈을 문화 재정이라는 항목에서 만들어 쓰게 됩니다. 보통 많이 쓰게 되는 게 축제라든지 시설 이쪽에 쓰게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문화에 술연맹에 투여가 안 되더라도 문화재정으로 들어가 상충되어 버리기 시작합니다. 원래 있었던 재정들을 확보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지자체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지역분권 되었을 때 과연 지역 분권에 대한 준비가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들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분권이 되더라도 그냥 지자체장에 의한 자율 재정이 아니라 지원 재정 내지는 대형 협약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지자체에서 문화 재정을 어떻게 쓰겠다는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오면 그것들을 중앙 정부에서 계획 협약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지 문화 재정을 제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들을 계획에 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분권이 모든 사업에 있어서 추구하고 있는 방식인데 항상 문

화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킬 수 없는 이 방법들이 계속 기재부의 방식은 무조건 지역으로 넘겨라 이 방식입니다. 넘겼을 때 과연 이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에서 문화 예술인들이 지역구에서 우선순위에서 항상 그것들을 앞에 세울 수 없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구조적으로 담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하나 있었구요. 두 번째는 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 요소로서 문화가 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차재근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두를 포용하는 문화, 문화를 혁신하는 지역, 문화를 혁신하는 지역에 방점이 찍혀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문화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아마 우리들한테는 문화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례들, 미담들, 굉장히 좋은 사례들, 가치들 이렇게 발견되었을 것들이 이것들이 그냥 미담이랑 가치로만 남고 책으로만 남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서 많은 가치를 만들어냈던 문화 예술이 설득이 안 됐던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것인데요. 설득이 됐던 것들은 그것들을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이어야 하는데 사례를 듣고 나서 흐뭇함을 갖긴 했지만, 그것들을 예산안을 측정하는 데는 항상 인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역의 가치, 우선순위 뒤에 밀리기 시작하니까요. 먹고사는 것들보다 그게 더 급하다는 생각이 안 드니까. 이런 것들을 바꾸고자 하면서 등장한 것들이 뭐냐면 문화가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비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원의 데이터 방식들은 여태껏 너무 잘해왔습니다. 지역의 자원들, 향토 자원들, 사례들 이런 것들을 자원화시키는 것들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이런 것들을 사회적 가치로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를 통해서 지역 사회의 이슈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까라고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아시겠지만 지역에서는 사회 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문화원 내에서 문화 예술 교육 사업 되게 오랫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연맹보다 더 먼저 실버들과 함께하는 문화 예술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창기 이 사업을 할 때에는 다른 부서에서 우리랑 같이하자고 제안을 했었어요. 노인 일자리 사업부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하자고 노동 복지부터 시작해서 같이 하자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랑 협업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노인 복지관들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은 전국에 노인 복지관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노인 복지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시설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만들어지고 사업
 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후발 주자로 등장한 노인 복지관들은 훨씬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먼저 시작한 문화원은 그 예산 확보를 못 하고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나면 그 복지관들이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프로그램들을 거기다가 세팅하
 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만 공급해주는 방식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경
 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 것들을 우리의 가치로 만들어서 조직화시키고 예산을 못
 만들었을까? 우리는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을 했지만 이게 어떤 사회적 가치를 가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증명하는 작업들을 많이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활동을 통
 해서 여러분들의 활동에 의해서 더 지역사회에 있던 노인들이 혼자만 살고 있다가 와
 서 친구들 만나고 친구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 우울증이 사라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증세
 에 관한 것들을 데이터화 시켰어야 하는데, 사회적 가치로 데이터화시켜야 했는데 이렇
 게 못 만들었어요. 계속 우리는 즐겁고 행복했던 사람들 이렇게만 하고 있었지 지역 사
 회에 있는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문화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었는
 지에 대해서 데이터화 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증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
 고 기재부에 들어가서 요구했어야 하는데 그런 방법을 우리가 찾지 않았다고 생각합니
 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충분히 가치 있다는 이야기만 했었지 그들을 움
 직일 수 있는 가치 데이터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떤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사회
 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다른 평가 지표를 가지고 증명해
 나가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지역에 있는 예산을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후순위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도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겠네?”라는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이쪽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고 봅니
 다. 그 공감대가 아니라 이게 문화 예술인들이 주장하는 자기 권리로 주장되었다고 하
 면 여기에 돈을 투입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역사회가 공감하지 않을 것입니다. 몇 사람
 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몇 사람의 일자리를 통해서 몇 사람이 혜택을 받는데? 이렇
 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지역문화진흥원이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사업을 통해서 생
 활문화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만들어 보니까 전국에서 130만 명 정
 도의 직접 생활 문화 환경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130만 명이라고 해봤자 몇 프로 안
 돼요. 2% 정도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특히 문화원에 있을 때 활
 동한 사람 보면 회원들이 많이 늘어나긴 합니다. 천명 단위 2천 명 단위로 늘어나긴 합

니다. 그러면 2천 명이 문화원에 있는 2천 명이 지역사회에 있는 인구의 몇 퍼센트냐고 했을 때 2천 명에 대해서 돈을 썼을 때 이렇게 많은 돈을 써야 돼?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2천 명에 대해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2천 명이 나가서 어떤 활동을 할 건지, 이 활동이 지역 문화 정체성을 만들어 내거나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역할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들이 움직이면서 굉장히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증명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역 사회의 가치를 만들어 내는 역할로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에서 움직이고 문화원들의 역할들이 지역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지역 사회의 지지를 만들어내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여가 친화 기업 인증식을 하고 왔습니다. 여가 친화 기업이라고 해서 44개의 기업들이 이번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장관상도 받고 지역문화진흥원장 상도 받고 그랬는데 이제 기업도 그냥 그 지역과 상관없는 기업이 아니라 지역과 어떻게 소통하고 지역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기업도 이제는 기업이 문화적으로 기업의 문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기업을 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업이 지역을 안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를 많이 들기 시작하는 것들이 이천에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이천하면 늘 얘기하는 게 이천하면 쌀과 도자기였는데 이제는 이천하면 반도체로 바뀌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업의 문화가 지역의 정체성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기업과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요. 기업에 있는 직장인들이 행복하면 직장인들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행복할 것이라는 전제로 가기 시작합니다. 기업이 힘들어지면 지역민들은 앞으로 기업을 살리겠다고 응원하는 이 방식들이 이제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서 이제 와서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단순히 인구가 소멸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무엇을 위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말 아기들이 태어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에 대한 바로미터는 기업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 잘 안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없어서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문화적인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오랫동안 관계를 만들었고 문화를 만들었던 문화원들은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국에 문화재단들이 100여 개 정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모든 지역에 재단들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문화원들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그 역할을 잘 맡아야 되기 시작하는데 문화원들이 어디까지 자기 역할로 삼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시점에서 사회적 인식, 이런 얘기 정말 싫은데요. 나이 든 사람들의 집합소 이런 얘기들이 안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소가 어디냐면 전라남도 장흥입니다. 전라남도 장흥이 제 주소예요. 인구가 4만 명 밖에 안 됩니다. 4만 명 밖에 안 되는데 요즘은 문화원들이 나서서요,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문화 제도를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문화 공동 사업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스스로가 지역사 예술 지원 센터를 만들게 되고 민간에서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견인하는 게 문화원에 있는 이사님들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문화원 자체에서 혼자서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것에 있어서 문화원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가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화원들이 아까 얘기했던 5개년 계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역할들을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담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 고민이 있었습니다. 5개년 계획을 짤 때 5년 뒤를 상상할 수 없는데요. 지금의 사회 구조와 지금의 예산 구조에서 5개년 계획을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5년 뒤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있는데 지금의 사업 구조와 예산 구조에서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관성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의 차원에서의 계획일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해체하고 5년 뒤에 어떻게에 대한 상상으로부터 시작하는 계획을 좀 더 잡자라고 해서 미래 전략에 대한 고민까지도 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영역에서 아마 문화원들도 토론의 내용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의 모습들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습에 대한 상상들을 나보다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속발전가능한 문화원 만들기 액션토크라 했던 이 방식들은 결국은 어떻게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얘기를 지역학적으로 봤을 때, 응원 받을 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역의 가치로 등장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문화가 지역 사회를 작동시키는 제일 중요한 원리로서 문화가 등장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보면 전통문화 얘기를 할 때 과거에 머무르는 전통문화가 아니라 생활문화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태까지 축적되어 있는 전통문화와 현재 살고 있는 지금 삶의 문화가 모여서 미래의 문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전통적 자원과 현재의 문화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데요. 현재의 문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신랄하게 고민해야 될 점이지 않을까

까? 결국은 우리가 과거의 자원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원이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전통과 상관없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현재의 문화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잘 들여다보고 이것들이 미래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들이 문화원들이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쪽 토론 주제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화원 분이 혹시 사업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예산이 있는 만큼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예산이 오면 사업을 하고 예산이 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지 않을까? 정말 지역에 내려가 보면 분매의 역할들만 하기 바빠 가지고 공모 사업에 아예 신청도 안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냥 업무의 영역 외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접근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하겠다고 맘을 먹으면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화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 있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장흥에서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 단장을 맡고 있고요.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마을 공급책 지원 센터까지 같이 맡고 있는데 이 두 개 조직을 합쳤습니다. 너무 작은 동네라서 신활력 플러스 사업 70억대 사업하고 마을 공급책 지원 센터를 분리해서 인원을 가동할 수 없어 두 개 조직을 합쳤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도시 재생산업이라고 해서 150억이 동네에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만들어야 합니다. 조직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적 사적 조직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조직에 57년생 사무국장님을, 문화원 이사님을 초빙했습니다. 사무국장님을 초빙해가지고 조직 형태를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이분이 지역에서 가장 신망 받고 지역에서 관계망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세요. 농협 상무 출신이신데요. 그래서 이분이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아우러지는 게 있어요. 그렇게 지역에 관계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새로운 조직들과 결합하여 여기에 사무원들은 22살, 23살, 24-5살짜리 젊은 청년 세 명하고 30대 중반하고 50대 초반의 팀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0대부터 50대, 30대, 20대까지 다 아우르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나니까 세대들과 만나는 자리가 잘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화원들도 사실은 그렇게 조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문화원 본연의 역할들을 넘어서서 정말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그 역할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역할을 만들어서 지역사회로 투입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원 안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설

계과정들을 충분히 만들어 가기 시작하면 정말 지속가능한 문화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의 당부는 이제 우리가 문화를 소비재가 아닌 향유재가 아닌 지역 사회의 가치재로서 만들어보겠다. 지역사회의 굉장히 많은 이슈형 문제들을 해결해보겠다는 관점의 변화만 갖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새로운 역할들 그리고 지속가능성들이 담보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합토론

진행 이하준 /

저희가 조금 기대했던 5개년 계획에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말씀을 더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을 빼놓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에게 참고될 말씀 해주신 김영현 지역문화진흥원장님께 감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발제 내용을 포함한 섹션 토론 결과를 1섹션부터 4섹션까지 발표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발표하시는 분들에게 시간을 많이 부여할 수 없습니다. 10분 이내로 줄여서 말씀해주시고 플로어에서 몇 분 선정해서 질문을 받는 순서를 받겠습니다. 1섹션부터 먼저 시간을 잘 지켜서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포 문화원 사무국장 정현재 국장께서 1섹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제1섹션 정현재 /

김포문화원 사무국장 정현재입니다. 1섹션에서는 경기도 민속예술 발전을 위한 실천적 대안 모색으로 용인문화원 김장환 사무국장님이 발제를 올리셨고 경기도 무형 문화재 총연합회의 임웅수 이사장님이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발제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환 사무국장님은 지금까지 경기도 민속 예술 발전을 위한 실천적 대안 모색에서 두 분 다 현재의 민속 예술제로 국한을 해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 민속 예술제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민속 예술제가 지금까지 25년간 진행을 해왔는데 진행을 해 오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사라져가는 민속 고유의 민속 예술을 발굴, 보존, 전승하고 있고 민족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각 지역의 대표적인 민속을 한 자리에 볼 수 있었다. 지역민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고양시킬 수 있었다는 점을 장점으로 뽑았고

요. 단점으로는 전통 민속의 본래 모습을 변형하여 양산했다는 점, 두 번째로는 수상을 위한 지나친 경쟁의식이 있었다는 점, 세 번째로는 대중들에게 축제의 진정한 주제로 나서지 못했다는 점을 김장환 사무국장님께서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입니다. 원형을 30분 안에 어떻게 다 재현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점과 공간의 문제점, 체육관이나 운동장에서 각 지역의 민속 예술을 표현을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고민한 점을 발표해주셨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여러 가지 장점은 많았지만 앞으로 철저히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고증 문제를 그 지역을 잘 알고 연구하는 그런 기준을 제시해주셨고요. 심사위원은 주최 측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연구기관에서 선정을 해주면 오히려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이런 점을 말씀해 주셨고요. 발제자 두 분 다 공통점은 뭐였냐면 전승 지원금이 대부분 350만 원 인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50만 원을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보존하고 계속 이어서 갈 것인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임웅수 이사장님께서서는 다른 부분은 비슷한데 거시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시대에 맞게 연출하는 것은 인정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고 시대에 맞는 문화로 계속 발돋움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민속 예술이 끊임없이 시대와 시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한다. 경기도에서 민속 예술 경연대회를 통해서 그동안에 각 지역에서 사라져가는 예술을 발굴하고 만들어가고 재현하고 이러한 것은 큰 성과로 이루어졌지만 갈수록 예산을 삭감을 시키고 경기도에서 지자체로 부담을 증가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 실제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발굴하고 재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여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공통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민속예술제가 앞으로 시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에게 어떻게 호응을 얻고 지속적으로 보존, 전승, 계승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고민이지만 그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오히려 더 고민을 해서 이것을 문화의 전승과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입안을 해주셔야 한다. 이런 공통적인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진행 이하준 /

다음은 두 번째 섹션으로 ‘지역문화원은 청년과 손잡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나이의 이미지를 넘어서 청년과 함께 어떻게 지역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가

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파주 문화원의 서교송 사무국장님께서 요약해서 발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섹션 서교송 /

‘지역문화원은 청년과 손잡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발제해주셨습니다. 먼저 최지호 동두천 문화체육과 주무관께서 ‘청년들은 문화원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해주셨는데요. 생활문화센터나 문화원 위탁사업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외부에서 지켜본 청년들과 문화원의 만남에 대한 가감 없는 솔직한 의견들을 잘 비춰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네형들의 박도빈 대표께서 ‘지역 청년들의 일상과 자립’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를 해주셨는데요. 문화원과 관계없이 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년 사업의 주체로서 어려움과 다양한 경험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진우 켄치임팩트 대표께서 ‘청년기획자, 지방문화원의 새로운 바람이 되다.’라는 주제로 청년 기획자가 문화원과 협업을 통해서 사업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경험들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발제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 한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문화원에서 청년들을 청년으로 대해야 한다, 청년으로 받아드릴 준비가 되어있는가에 대한 자기반성 이런 부분들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조금 원론적인 부분들을 얘기하자면 문화원에서 청년 사업을 꼭 해야만 하나? 문화원과 청년들이 만나는 것이 꼭 필요한 부분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청년들과 만나기 위해서 문화원이 내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기존의 경직화된 모습을 버리고 청년들을 있는 그대로의 청년으로 만들기 위한 변화를 갖는 것이 우선이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꼭 청년들을 사업에 끼어넣는 식의 소비재로 활용하지 말고 청년들이 자기 청년적인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느슨한 형태의 결합, 기관 대 기관으로서 문화원에 종속되어 있는 청년들이 아니고 청년 스스로가 지역의 청년 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장하고 증원해주는 형태로서의 결합으로도 충분히 문화원의 역할을 다한 게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문화원이 청년들을 이끌어가기보다 문화원의 내부 준비와 청년들을 그 대표로 인식하는 인식의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들이 토론의 중심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행 이하준 /

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섹션으로 ‘어르신문화사업과 신중년’이라는 주제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문화원 연합회의 어르신 사업의 추진 방향과 지방문화원과의 접점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청평 문화원의 오민영 사무국장님께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섹션 오민영 /

저희는 ‘어르신문화사업과 신중년, 그리고 지방문화원’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향토문화예술교육진흥원 김재순 본부장하고 향토문화원연합회 송은옥 차장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셨고요. 구체적인 주제 발표 내용은 사업 속의 의제였습니다. 발표 끝나고 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토론할 시간이 매우 적어서요. 제가 생각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한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온 말이, 이슈가 되어온 것이 노인회관, 어르신 회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국내에서 독립적 정책으로 노인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이 시작된 것은 2005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개원하고 나서 다음 해 2006년부터이고요. 한국문화원 연합회에서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이 200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런 프로그램보다는 1988년 국민연금, 1991년 노령수당, 그리고 2005년에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한 노인 일자리 사업 이렇게 추진이 되고요. 문화정책이라기보다는 복지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이 시작되면서 노인 세대에 대한 관심이 아닌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으로 시작이 되었다 보니까 노인에 대한 세대적, 체계적 관심으로부터 문화예술교육 내용이 구성되기보다는 단순 예술 기량 교육에 머물거나 좀 더 나아간다면 체험형 통합 예술교육으로 시작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서 2018년 생애 전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생겨난 것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느꼈던 부분인데 한 6가지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르신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화 및 세분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세부 교육 내용 및 난이도에 대한 조정과 집단 스쿨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세분화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셋째로는 어르신 문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 및 강사뿐만 아니라 재료 및 시설 지원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로는 어르신 일상생활 속에 실현하고 삶의 질 향상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는 자율

적인 동아리 형태로 활성화 시켜나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전 계획단계부터 사업 수행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로는 어르신 문화 예술 교육에 대한 성과 중심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평가 기준이 예산 지출, 사업 진행, 모집률, 출석률, 교육 만족도가 지표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은연중 삶의 질 및 사회 참여 증대가 확대되었다는 평가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번외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저희가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문화 예술에 대한 지원 구조로 되어있다 보니까 이 사업 주체자로서는 진행자로서는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있었고요. 그리고 또 본인들도 이 취약계층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다보니까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많은 사업의 대부분이 어르신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인데요 올해 37억 원으로 297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사실 지원기관마다 지원된 금액은 천만원 수준입니다. 보통 지방 경기도에 있는 문화원들이 일 년에 소비하는 금액이 사업비가 10억 이상인데요. 어르신 동호회를 저희 문화원에서 진행되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인데 문화원이 꼭 어르신들만 상대하는 기관처럼 느껴진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것은 우리 경기도 문화원이 지향해야 할 바는 꼭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세대 통합적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문화예술은 다른 영역에 비해서 세대를 넘어 공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큰 부분입니다.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청소년, 성인 다양한 세대들이 노인과 함께 세대 통합, 세대 공감 예술 교육으로 확대해야 하지 않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행 이하준 /

다음 네 번째 섹션에서는 ‘지방문화원의 현재 분석을 통한 미래비전 모색’이라는 주제로 현재 문화정책의 주요 패러다임 안에서 지방문화원의 향후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행된 내용을 화성문화원의 박희정 사무국장님께서 요약해서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제4섹션 박희정 /

저희가 네 섹션을 했습니다만 다들 주제가 명확했어요. 민속 예술, 청년, 어르신 문화 사업. 그런데 4 섹션만 현재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분석한다는 주제가 사실 굉장히 주

제가 광범위하고 토론하기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문화진흥원의 전고필 이사님하고 이천문화원 이동준 국장님께서 큰 범위를 포함한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책에 안 나와 있는 전고필 지역문화진흥원 이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지역분권과 문화자치 환경에 대해 지역 문화원이라는 실질적으로 문화원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 문화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아가야만 지금보다 나은 위치를 점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최중요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말씀이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 지금까지 그 법만 믿고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조금 닫혀있는 사고를 열지 않으면 발전이 없을 것이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지방문화원을 지금까지 거쳐 갔던 회원이 되었던 직원이 되었던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야만 지역문화에 좀 더 접근할 수 있고 그러한 조직을 같이 연결함으로써 기존 콘텐츠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부분들 그리고 내적으로는 해체적 수준으로 문화원을 개선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개선을 하느냐, 개혁을 하느냐 두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말씀들은 개선이었는데 해체적 수준까지 나왔을 때는 개혁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는 연방 자치 수준으로의 지자체까지 생각을 하고 국정을 이끌어나가고 있는데 문화원은 아직도 옛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상황을 끌고 나간다는 상황 자체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고 보조 사업도 하향식보다는 거꾸로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개발을 해서 상향식으로 올려서 이것을 같이 해보자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우리 지역 문화력의 성장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보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회원 수가 많다, 없다 이런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맨파워가 회원이 백 명이어도 굉장히 큰 파워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천명이 되어도 꿰어놓지 않으면 구슬이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발제를 해주신 이동준 국장님께서 지역서기 2049년, 앞으로 30년 후에 우리 지역이 남아 있을 수 있을까라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셨어요. 지금 도시의 발전과 문화의 발전을 얘기하실 때 도시의 탄생과 소멸과 같이 가는 문화의 개념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중앙이나 지방이나 따지기 전에 대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대도시들이 그쪽에 모든 자원을 뺏기는, 예를 들어서 서울을 예로 든다고 하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경기도권의 모든 문화 자료나 정치, 경제를 빨아들여서 주변 도시가 초토화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랬을 경우에 앞으로 지역 문화원들은 어떻게 방향성을 설정해서

가지고 갈 것인가에 방점을 찍어주셨습니다. 폼페이 유적까지 예를 들어서 PPT까지 준비해 주셨습니까마는 결국은 주위 도시가 모든 것을 빨아들였을 때 지역 정체성이 사라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문화원이 혁신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방향성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먼저 문화원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사무국장들이 하는 얘기들이 원장단들이 모이는 회의에 전달이 되지 않는 조심스러운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원장님들 회의에 사무국장들이 다 참석할 순 없지만 우리들이 여기서 수렴했던 의견들을 대표성을 갖고 전달을 해서 상호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바꾸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광명 국장님께서 수익 사업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강릉 문화원, 지금 제일 수익 사업을 잘하고 있고 동해 문화원도 수익 사업을 신고하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것을 진행해 나갈 때 무조건 수익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게 수익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의 역량 문제도 있고 주위 환경 문제도 있고 만약 우리가 수익 사업을 했을 때 지자체에서 지원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행 이하준 /

네 분 간단하고 명료하게 시간을 지켜서 해주셨으니까 네 분께 박수 한번 주श्य, 그리고 마지막에 화성 문화원 사무국장님이 건의한 내용은 우리 염상덕 회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들의 의견들도 청취하실 필요도 있고 우리 원장님들도 들으면 손해 보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해 오셨지만, 회장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각 섹션별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섹션별 진행된 얘기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 의견, 또는 주제와 다른 내용이라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질의를 해주시는데 질의를 하실 분들은 몇 번째 섹션에게 이런 질문을 할 건지 말씀을 해주셔야 답변 준비를 하니까 분명히 체크해서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분들보다는 서너 분 정도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분이 없으면 마쳐도 된다는 의미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우리 원장님들이 주제를 발표하신 분들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시고 넘어가셨습니다. 시간 아껴주신 데에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런 자리가 마련될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마는 우리는 항상 문제점, 위기, 개혁 등을 얘기합니다. 지방문화원이 모든 문제의 온상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모든 조직에는 저마다 각각의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숨죽이고 객관적인 제안들을 모색하고 변화하며 발전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지방문화원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공유하고 해결을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자는 취지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경기도 문화원 연합회에서는 정리해주시고 그것을 각 지방 문화원에 공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 드립니다마는 지방 문화원은 강력한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면 진정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에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시각과 대안을 연합회를 중심으로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폐 회

염상덕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

문화원 연합회에서 31개 시군의 원장님들, 사무국장님들 그리고 같이 오신 관계자 여러분과 발제해주시고 토론해주신 분들 모두 함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경기도 문화원 연합회에서는 31개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토론해서 좋은 양식을 얻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오늘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한 지속발전 가능한 문화원만들기 액션토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 조심해서 잘들 가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 백

문화가족 합동연수

제21회 경기도

부록

제21회 경기도 문화가족 합동연수

□ 사업목적

- 경기도내 문화관계자(시·군문화원 직원 및 회원)들이 하나가 되어 한해를 뒤돌아보며 유종의 미를 거두는 기회 마련
- 경기도 지역의 문화, 예술사업에 대한 네트워크 공유
- 지역문화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지역 문화활동가로서의 역량강화 방안제시
- 지속발전 가능한 문화원을 만들기 위한 방향 모색

□ 사업개요

- 일 시 : 2019년 12월 10일(화) 11시~18시
- 장 소 : 경기도 남양주 서경청소년수련원
- 대 상 : 경기도 내 31개 시, 군문화원 및 관계자, 전국 230개 지방문화원, 문화가족
- 주 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주 관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남양주문화원
- 후 원 : 경기도, 경기도의회, 한국문화원연합회, 남양주시, 남양주시의회

□ 주요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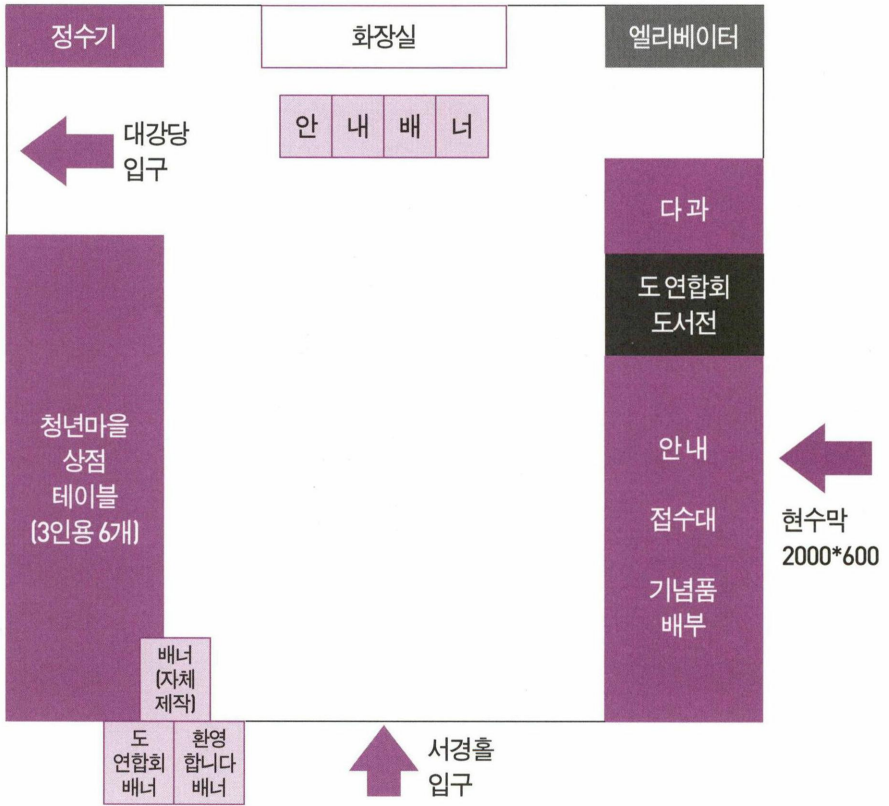
- 1부: 제21회 경기도 문화가족 합동연수 및 지방문화원 어워드
- 2부: 지속발전가능한 문화원 만들기 액션토크

□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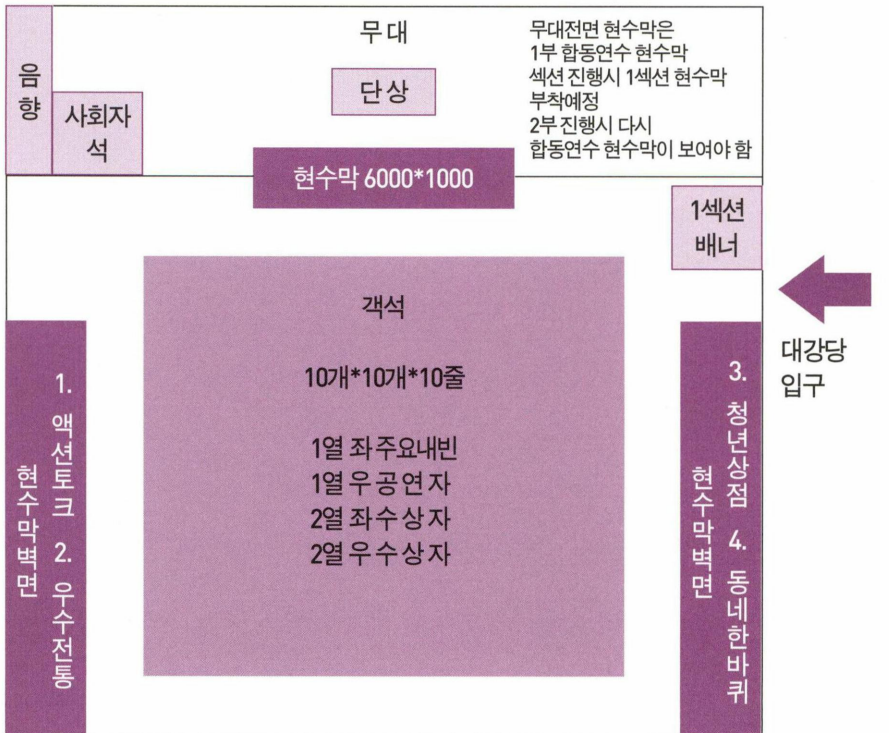
- 문화예술분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 협조 시스템 구축
- 현장 문화활동가 교육을 통해 전문성 제고 및 업무효율 향상
- 지역문화 활동가로서의 문화에 대한 철학, 소신, 책임의식 함양
- 31개의 시, 군 문화원과의 공고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경기도민에게 양질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세부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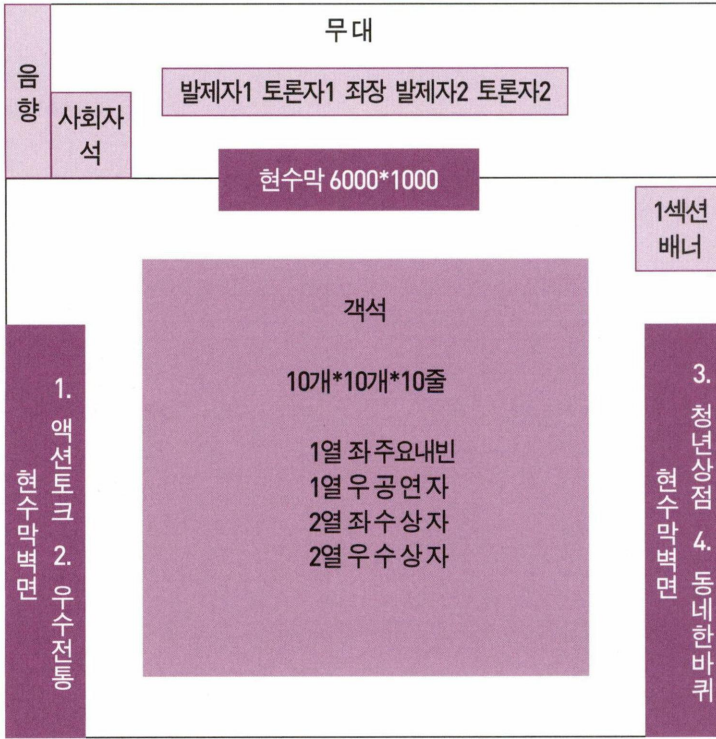
1층 로비



1층 대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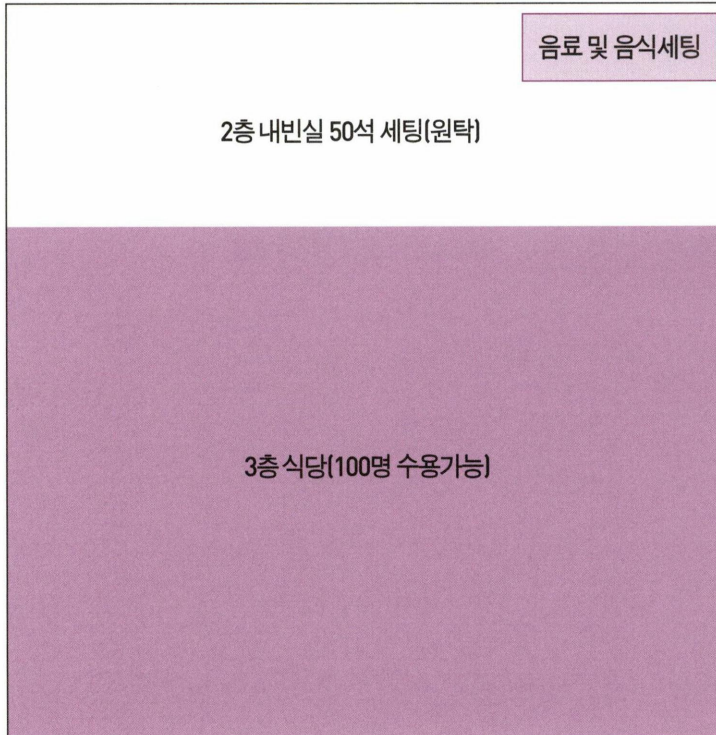
**1층 대강당
1섹션
진행시**



무대전면 현수막은
1부 합동연수 현수막
섹션 진행시 1섹션 현수막
부착예정
2부 진행시 다시
합동연수 현수막이 보여야 함

← 대강당
입구

**2층 내빈실
3층 식당**



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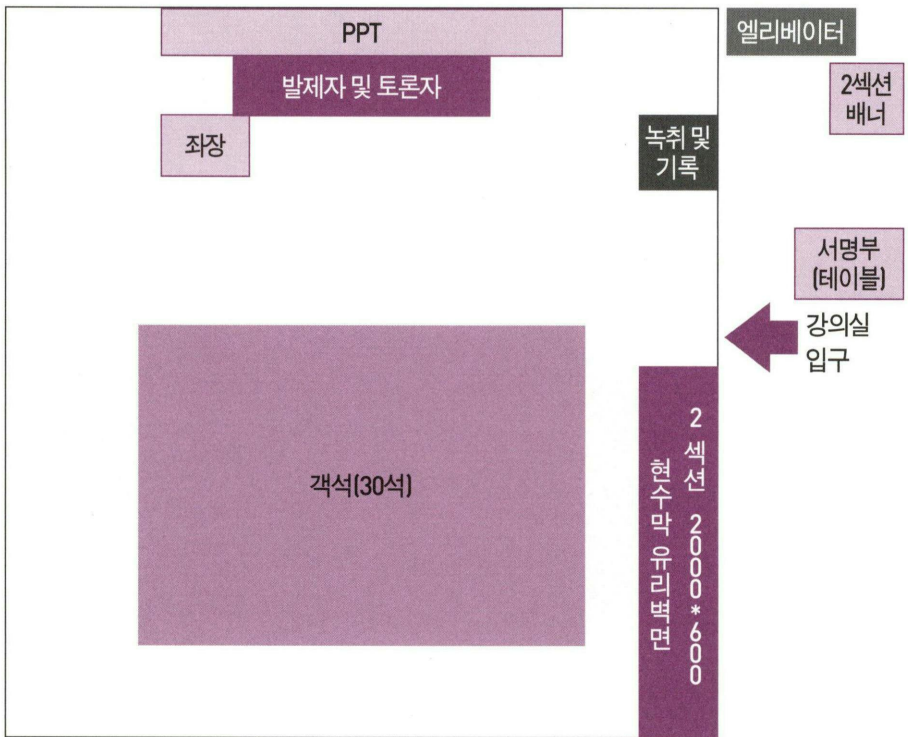
← 계단이용
내빈실 입구

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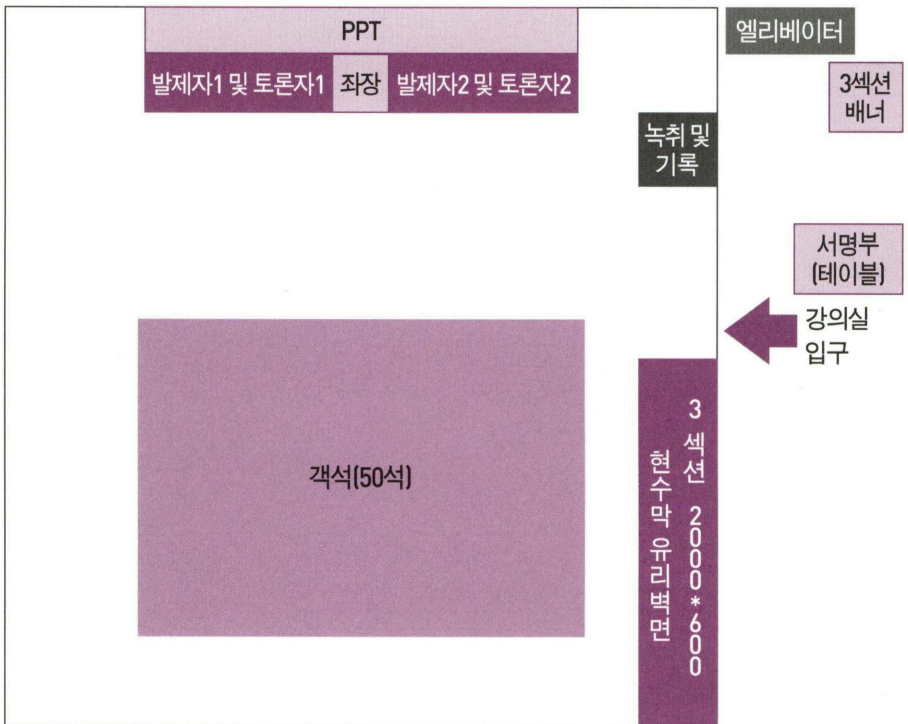
← 식당
입구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남양주문화원
“맛있게 드세요”
배너

2층 강의실



5층 강의실



6층 강의실

